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이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tra.or.kr
<http://www.kt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27 / November / 2004

0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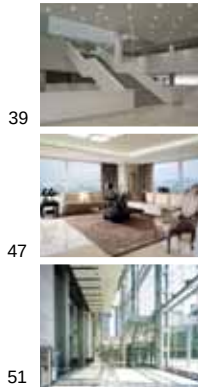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건축사 2004 / 11



Contents



39

47

51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11 427호

칼럼	큰 것은 좋은 것?	최동규	12
시론	변遷해야 산다	주수일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특집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19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광주광역시청사		34
	아이파크 삼성동		42
본 상	KT 여의도 빌딩		48
	한성대학교 도서관		52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 사옥		54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56
	언하당(雲霞堂)		60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62
	우수상 (주)세정서울사옥 외		66
	계획건축물부문 금상, 은상, 동상		89
작품노트	성남 고등학교 정보 도서관	최승원	9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5	최재석	100
건축마당	협회소식		109
	건축계소식		112
	현상설계		116
	해외잡지동향		118

발행인 송수구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박영순, 손기찬, 오성훈,
 윤시덕, 이관직, 이재림, 이종호, 주수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59



65



71

Korean Architect

Vol. 427
November 2004

Column

Bigger is Better Choi Dong-Gyu 12

Focus

Changing is a Matter of Survival Jugh Soo-Ille 14

Cartoon

Yoo Won-Jai 17

Special issue_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4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19

Grand Prize_ Gwangju City Hall 34

I PARK SamSungDong 42

Superior Prize_ KT-Telecommunication Center, Youido 48

Library of HanSung University 52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Kwangwhamun Office 54

Yongin Shingal New millennium Apartment 56

Yeon Ha Dang 60

Kwang jang 'Hyundai Home Town' 11th Apartment 62

Winning Works_ Sejung Building etc. 66

Prize Works - The Submitted Part 89

Design note

SungNam HighSchool Digital Library Choi Seung-Won 96

Serial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100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9

Archi-Net 112

Competition 116

Overseas Journal 118

Publisher Song Swoo-Koo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o-Il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큰 것은 좋은 것?

Bigger is Better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가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10조를 돌파한 S전자, 그 뒤를 숨 가쁘게 추격하는 H자동차 등 이런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 엄청난 이익이 내 것은 아니나 우리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백화점을 생각해보자. 쾌적하고 넓은 S백화점, L백화점만 기억나고 그다음 규모의 백화점은 어느새 기억에서 또 실제로도 경쟁력을 잃었는지 사라져버렸다. 또 각 일간신문을 도배하다시피 광고를 해대는 대규모 복합상업문화시설은 또 어떤가? 작은 규모의 시설들의 광고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실제로 대규모 복합시설을 시행하는 젊은 사장을 아는데 그 규모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몇 만 평 규모이다. 상업시설들 간에도 규모의 경쟁이 된 것 같다. 만약 같은 장소에 두개의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두 개 중 한 개의 시설로 사람들이 몰릴 것은 틀림없는데, 이때 규모가 큰 시설이 이길 가능성이 100%다. 한쪽 시설입장에서 보면 비극이다.

문화를 표방한 게임에서는 경쟁보다는 공존이 제격일 텐데 자본력의 싸움 크기의 싸움, 이런 경우는 겉으로 웃을 뿐 사활을 건 싸움이 아닌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닌가?

건축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10년 전만 해도 큰 사무실과 작은 사무실들이 서로 공존하는 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MF를 거치고 요즘도 건축불경기가 장기화하다 보니 건축주들은 더욱 큰 사무실을 선호하게 되었다. 불투명한 사회 속에서 보다 믿음이 가는 큰 사무실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작은 사무실들은 점점 더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인사동 거리를 가본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상점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을 유도한다. 이곳에 갑자기 대형 상점이 들어와 “우리 집에는 인사동 가게 곳곳에 있는 모든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문을 연다면 그것은 왠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전에 필자가 건축가 김수근 선생 사무실에서 실습생 노릇을 할 때만 해도 12명 정도의 직원들이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건축이란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 당시 생각한 것이 화가, 음악가, 소설가와같이 건축사를 같은 반열에 놓고 다만 건축 작업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조직이고, 그렇다면 12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몇 백 명이나 된 설계조직을 거느린 소위 선단규모의 대형 조직들이 설계비가 몇 십억이나 되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의 사무실들이 하는 일과 대형조직이 하는 일들이 나뉘어 가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심지어 작은 일들조차도 큰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심화되어 간다고 한다. 초원에 비유하면 큰나무 몇 그루만 남고 관목이나 풀들은 없는 사막화된 초원이 연상된다.

건축을 종합예술이니 어찌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쏟아 만들어가다 보면 설계할일도 차차 많아지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되었다. 한번은 규모가 제법 되는 건축경기설계에서 바로 앞의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은 직원이 300명이고……”하면서 멘트를 시작한다.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경기설계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맡기면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뜻 아닌가? 그다음 순간 “저희 사무실 직원은 12명입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작은 사무실에 우리 일을 어떻게 맡기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사무실은 큰 건물 실적이 없다고 보기 좋게 떨어졌다. 자본주의 논리, 크기의 논리,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작은 것은 설자리를 잃어가는 것이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그 일을 맡기는 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든 한판이었다.

땀을 생각해보자. 큰 돌과 작은 돌, 모래, 흙까지 함께 모여 커다란 독이 되고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아닌가? 큰 돌만 있는 독이 성립될 수 있는가? 모든 건축일을 다 처리하는 사무실 몇 개만 존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작은 일에 혼신의 힘을 쏟는 젊은 건축사들의 설자리는 어디일까?

작은 사무실과 큰 사무실이 공존하여 건축문화라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일까? 건축계에까지 배어들어온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들이 건축계 전반을 서서히 고사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삼성이 한남동에 세운 리움(LEEUM)을 가봤다. 마리오 보타, 렘 쿨하스 장 누벨 등 세 명의 저명 건축가가 세운 멋진 건축이다. 건축주는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사무실의 규모를 보고 고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업적을 보고 골라냈을 것이다. 우리 건축계도 사무실의 크기만 보고 골라 일을 맡기는 황량한 풍토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일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책을 쓴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환경보호운동가인 슈마허(Ernst F. Schumacher)는 구미의 성장지상주의 경제구조를 거칠게 비판하면서 '작은 것'을 지향하는 '인간을 위한 경제구조'를 힘주어 부르짖었다.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고 믿는 슈마허는 인류가 가야할 진정한 발전의 길은 유물론적인 거대경제체제의 질주나 인습에 얽매인 전통주의의 정체를 모두 버린 중용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중용의 상태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체제를 가리키는데, 인류는 이런 중용의 상태에서만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슈마허는 대량생산체제를 때려 부수고 지역과 주민 중심의 소규모 작업장들을 경제구조의 뼈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새삼 와 닿는 시기이다. ㉮

변(變)해야 산다

Changing is a Matter of Survival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는 것을 버거워 하지 않는다.
죽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주어진 것으로만 억척으로 산다.

(시인 김종태씨의 「잠초는」중에서)

주어진 것으로만 억척으로 사는 건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아는 건축사 한 사람은 IMF때 사무실 문을 닫고 분당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적당히 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 이도 저도 되지 않으니까. 홍익대 앞에서 '우동가게'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고 돈도 벌고 오토바이로 배달도 다니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건축사로 변해있었다.

바다에 낚선 사람들이 배(船)를 오래 타다 보면 육지에 내렸을 때 모든 땅이 다 흔들리듯 출렁거리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건축계의 모든 공간은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전환기일수록 우리 건축사들은 중심과 중심을 잇듯 자부심과 명예를 도면 위에 긋고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전혀 다른 변화들...

최근 건축사협회의 여러 변화들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결코 과거의 연장선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는다. 우리 건축사에게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전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다.

밭을 가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돌아보는 잘못과 과실을 논하는 따위의 '뒤'는 접어버리자.

너무 늦기 전에 과거는 빨리 잊어 버려야 한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

작은 가시 하나에 찢려도 아프다고 소리지르던 청년이 전쟁터에서는 파편을 맞은 상처의 아픔도 잊고 싸울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몸 속의 '엔돌핀'이 차고 넘쳐서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전쟁의 승리만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던가.

이제 우리 협회도 진정한 의미의 엔돌핀 넘치는 CEO(최고경영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고 황무지에서 출발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기업들을 일구어 온 CEO들처럼 우리 건축사협회에도 자랑스러운 CEO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CEO의 가장 큰 책무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축사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CEO는 먼저 자신을 위한 사무실의 업무는 접어두고 협회운영이 아닌 경영에 임할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CEO의 리더십은 협회내의 팀워크를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제 독불장군식 경영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회사의 주주와 같은 회원들의 다양한 견해가 분석되고 융해 될 때 비로소 바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는 때로 개천(川)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일까? 물이 얇다고 판단하고 바지를 걷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징검다리를 놓고 건널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이 많이 불어나서 도저히 그도 저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국군 포로들은 그 열대의 모든 악조건을 이겨가며 다리를 만들지 않았던가. 우리도 이제 바지부터 걷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안전하고 완전한 다리를 건설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과 건축사업무 대가 기준의 존폐문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용역수행, 새로운 협회 운영진의 선출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을 앞에 두고 이에 임하는 우리 회원들과 우리의 CEO의 자세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회원의 이익(권익)을 창출하는 CEO와 함께 하는 협회로 변해야 산다.

흔들림은 같은 방향으로 흔들어 주어야 하듯이 주어진 것으로만 억척으로 살자.

변해야 산다. ㉮

2004 한국건축문화大賞

Korean

수상작 전시회

- ▶ 기간 : 11월 24일(수)~11월 30일(화)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시상식

- ▶ 일시 : 11월 24일(수) 15: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주최 /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4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이 올해부터 '비주거'와 '주거'로 나뉘어 확대, 시상한다. 그 첫 번째 수혜자로 비주거부문은 김상식 건축사(주.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하고, (주)금호산업이 시공한 「광주광역시청사」가, 주거부문에는 김종국(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건축사가 설계하고, 현대산업개발(주)이 시공한 「아이파크 삼성동」이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2004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大賞)으로 각각 선정됐다. 또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KT여의도사옥 등 6작품이 본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 등 모두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를 주제로 공모한 일반 및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씨가 공동 출품한「Plankton House」가 금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은상 2팀, 동상 3팀 입선 22점 등 모두 28개 팀이 입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준공건축물부문 89점, 계획건축물부문 252점 등 총 341개 작품이 응모했다.

비주거 부문의 대상을 차지한 광주광역시청사는 “관(官)건물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 건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또한 주거 부문의 아이파크 삼성동은 “아파트이면서도 주상복합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면서 판상형 형태에서 벗어나 탑상형 배치에 의한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친환경적인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시공이 매우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올해부터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한 건축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인상’을 제정, 그 첫 번째 수상자로 김석철 건축사(아카반건축도시연구원 건축사사무소)와 이창남 건축사(센구조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어 대상의 비주거부문 수상작의 설계자인 김상식 건축사에게 대통령상 그리고 시공자인 (주)금호산업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인 광주광역시청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또한 주거부문 수상작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주)에게 대통령상 그리고 설계자인 김종국 건축사에게는 국무총리상, 건축주인 현대산업개발(주)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됐다. 또 KT 여의도 빌딩 등 본상 6개 작품의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등 정부포상이,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입상자 전원에게는 각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 수상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ARC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 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3회째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통령상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등 그 폭이 넓어져 수상자에게 더 큰 영예를 주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가성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건축저변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평가 아울러 우리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명실공히 국내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할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 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 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 수 상
제1회 (1992년)	한샘시화 공장	삼성종합연구소 청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출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담교회 SBS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주타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아와음악당, 진로커머스 공장 용문초신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턴조선포털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구소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렉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구소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월곶시터, 동아미디어센터 미재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웅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 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시에지 포스코역사관	-

역대 응모작 및 수상작 수

* () 숫자는 입상자수

부문	년도	1회('92)	2회('93)	3회('94)	4회('95)	5회('96)	6회('97)
준공건축물부문		99점(18)	40점(18)	81점(28)	76점(24)	75점(33)	63점(22)
계획건축물부문	신인부문	-	-	15점(10)	16점(9)	236점(45)	304점(36)
	학생부문	-	-	127점(29)	179점(38)		
부문	년도	7회('98)	8회('99)	9회('00)	10회('01)	11회('02)	12회('03)
준공건축물부문		72점(22)	52점(25)	62점(26)	78점(24)	67점(20)	90점(21)
계획건축물부문		322점(30)	-	26점(13)	123점(33)	128점(25)	263점(28)

준공부분 | 대상



광주광역시청사(비주거부문)



아이파크 삼성동(주거부문)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8. 31
- 접수 : 9. 1~9. 2
- 심사 : 9. 9(사진접심사)
9.18~19(지방 현장심사)
10.8~10.10(수도권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
- 시상식 : 11. 24. 1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1. 24~11.30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
-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 응모작품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분 명시해야

시상내용

상명	시상내용	설 계 자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2점)	비주거 건축물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주거 건축물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본 상(6점)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주거건축물 3점 비주거건축물 3점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하며, 외국사 참여 작품인 경우 관련 사실을 필히 기재해야 함
- 수상자가 공동 출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 대해 시상함
 - 1차 사진접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배 제출

심사

- 가. 심사방법
- 1차심사 (사진접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 (현장심사) : 입상작(대상·본상·우수상)선정

나. 심사위원

- 정무웅 / 단국대학교 교수(심사위원장)
김선양 / (주)한중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서 / 단국대학교 교수
박헬렌주현 / 경기대학교 교수
박현일 / 삼성물산 상무
심우갑 /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수 / 홍익대학교 교수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대상

- 비주거부문 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국무총리상)
- 광주광역시청사 / 김상식(주.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금호산업(주) / 광주광역시청
- 주거부문 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대통령상),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 아이파크 삼성동 / 김중국(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강원) / 현대산업개발(주) / 현대산업개발(주)

■ 본상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건설교통부장관상)

- 비주거부문
 - KT 여의도 빌딩 / 이관표(주. 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동원이앤씨 / 주식회사 케이티
 - 한성대학교 도서관 / 이상림(주.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 학교법인 한성학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 김정철(주.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산업개발(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웅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 주거부문

-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 최두호 (주. 토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두산산업개발(주) / 대한주택공사
- 연하당 / 방철린 (주. 인.토 종합건축사사무소) / 정순화 / 정순화
-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유 건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상) / 현대건설(주) / 광장11차 현대지역주택조합

■ 우수상 (설계자, 시공자 : 대한건축사협회장

- 상, 건축주 :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주)세정서울사옥 / 이영수 (주. 건축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 (주)세정건설 / (주)세정
- 금강휴게소 / 인의식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케이티씨건설(주) / (주)금강휴게소
-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 신동재 (주. 다울 건축사사무소) / (주)태광건설 / 서울대학교
- 포항공대 청암 학술정보관 / 심성보 (주. 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 (주)포스코건설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 경기테크노파크 / 이영희 (주.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동양고속건설 / (재)경기테크노파크
- 순천 어린이도서관 / 김병옥 (주.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 (주)유탐ENG / (재)책읽는 사회문화재단
- 국립 남도 국악원 / 이종찬 (주. 원양 건축사사무소) / 현대산업개발(주) /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 충청대학 ART HALL / 유 건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상) / (주)신라종합건설 / 학교법

인 충청학원

- 인사동 덕원갤러리 / 권문성 (주. 건축사사무소 이돌리에십칠) / 유령건설(주) / (주)덕원문예개발
- SBS 신사옥 / 최관영 (주. 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 (주)태영 / (주)SBS
- 논산 뽕뽕 요양원·유치원 / 강병국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주)오지아이건설 / 재단법인 천주교 뽕뽕수도원 유지재단
- 주한이란대사관저 / 한현철 (주. 데이비드한 건축사사무소) / LG건설주식회사 / 주한이란대사관
- 조린현 / 김효만(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 강태진 / 강태진
- 우면동 스튜디오 / 임재용 (건축사사무소 OCA) / 조창환 / 조창환

심사 총평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는 명실공히 건축부문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건축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불어 닥친 건축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작품 수는 비주거 부문 73작품 그리고 주거부문 16작품 등 총 89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방법은 예년과 같이 비주거와 주거부문의 작품 수를 고려하여 우선 우수상 이상의 작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모든 작품을 현장 답사하여 그 중 최종적으로 입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창의성

및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고려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심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였다. 그 결과 예비심사를 거쳐 주거부문 9작품, 비주거부문 19작품 등 총 28개 작품을 현장 심사대상작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예년에 비해 주거부문에 있어 출품작이 적은 관계로 숫자적으로 비주거부문에 비해 심사 대상작이 적었음을 밝힌다. 사전접에 의한 예비심사였기 때문에 선정 대상 작품 모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총 5일간에 걸친 현장 방문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현장 선정 대상 작품 모두 매우 우수한 작품들이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만 시상 작품을 분류하여 선정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방문과 토론 결과 일부 작품은 사진접과 현장 방문과의 시각 차이에 의해 입상작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비주거부문 대상 1점과 주거부문 대상 1점 그리고 비주거와 주거부문 본상 각 3점 그리고 우수상 14점 등 총 2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설계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비주거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시청사는 8년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완공된 작품으로 '관(官)' 건물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 건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시공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주거부문의 대상인 아이파크 삼성동은 아파트이면서도 주상복합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면서 판상형 형태에서 벗어나 탑상형 배치에 의한 낮은 건폐율의 적용으로 매우 친환경적인 단지를 이루고

준공부분 | 우수상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주)세정서울사옥



금강휴게소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있는, 특히 사공이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상 이상의 작품들이 모든 지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른 해보다 훨씬 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해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5일간에 걸친 강행군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한국건축계의 밝은 미래가 도래되기를 기대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 출품작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 중에 하나인 광주광역시청사는 현상설계 이후 2년간의 설계기간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완공된 건물로 ‘관(官)’ 건물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강력한 축선에 의한 권위적인 시각은 잔존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타파하려는 건축사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 전체 매스는 행정 동, 진입 홀, 의회 동으로 형태와 기능을 분할하고, 여기에 입면 개구부와 계단 등의 조형적 요소를 통해 미시적 분위기를 해소시키고 있다. 형태적으로 새 시대를 향해하는 선박을 연상시키는 좌측의 경사진 형태의 5층의 의회 동과 18층의 행정 동이 서로 다른 몸짓을 하면서도 기능에 따른 수평적 확장을 통해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매스를 벗어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흔적은 특히 내부공간에서 보이는데, 4층 높이의 약 18m에 달하는 오픈 된 홀은 면과 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 다층적으로 중첩되면서 외부의 수평적 균질감을 해소시키면서 자유로운 공간적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면을 통해 공간을 담고 싶었다는 건

축가의 말처럼 흰색 면들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공간을 분할하고 팽창시킨다. 8년 전의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관’ 건물이라기보다 하나의 문화건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시공성도 매우 우수한 건물이다.

• 아이파크 삼성동 :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한 건물이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세워진 순수아파트 건물로서 기존 일자형의 획일적 아파트 배치에서 탈피하여 주상복합의 편리성과 아파트 주거성의 장점들을 결합시킨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건물이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 가격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아파트와는 다르게 많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는 건물이다.

현상설계 당시 건폐율 9%대의 배치계획으로 주동수를 줄이고 고층화하면서 나머지 공간들을 모두 녹지로 계획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 점은 당시 다른 계획안과 차별되는 가장 강력한 개념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가 가치의 대명사격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의 설비시스템 혹은 시공의 질적인 우수함은 물론 국내 최초의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된 건물로 알 수 있듯이 매우 적극적인 친환경 설계를 도입한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외지인들에게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고급아파트이기 때문에 과연 대지의 90%인 외부공간이 과연 공공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관리상의 문제, 거주민들에 대한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만 개방된 공간이 아닌 좀더 지역주민과 교감된 외부공간의 활용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KT 여의도 빌딩 : 여의도 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이미 근 10년 전에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시간의 흐름이 말해주듯이 IMF 등을 거치면서 초기 안이 많이 수정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기능이 여의도 전화국과 한국통신 지원시설 등인 이 건물은 평면기능보다 대지 위치상 건물외관이 더 강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경련 빌딩 옆에 위치한 건물은 사실 낮보다는 밤에 더욱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소가 가지는 좋은 조망권으로 인해 15.6m라는 매우 긴 스팬으로 공간 내부의 기둥을 없애고 여의도 공원 쪽으로 확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고층부에서 보이는 수직의 돌출물은 외관의 주요 재료인 유리화 최상부의 화강석 면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지만 너무 장식적인 선이라는 느낌이 있다. 물론 여의도 공원에서 바라보면 건물에 스케일 감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내부공간의 마감처리라든지 디테일 처리 등 시공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된다.

• 한성대학교 도서관 : 캠퍼스입구에 조용히 배치된 도서관은 다가설수록 과감한 공간들을 선보이고 있다. 운동장에서 선긋기대로 내려가는 동선을 응용, 무대와 운동장 등 수직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빌딩 전면에서 후면으로 연결되는 옥외통로 역시 캠퍼스의 동선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통로의 개념을 입면까지 응용하여 경사로로 이루어지는 빌딩 전면을 유리 처리, 투과되는 공간이 건물의 존재를 가볍게 해주며, 도서관 수직 동선의 표현으로 캠퍼스 야경에 활기를 더해준다. 설계에 비하여



포항공대 청암 학술정보관



경기테크노파크



순천 어린이도서관

제한된 예산의 한계가 곳곳에 보이거나 학교건물 설계가 거듭해 온 기능해결과 상징성 부여에 급급한 현실을 발전시키는 좋은 예이다.

• 현대해상 화재보험 광화문 사옥 : 기존건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야심 차고도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진 리노베이션 작업이다. 외관에서는 기존 기업 건축이미지를 탈피하면서도 석재 소재의 연결로 친숙함을 자아내었고, 광화문거리에 빛과 시각적으로 투과되는 로비공간을 부여하였다. 내부에서는 효율적인 설비, 전기 시스템이 꼼꼼한 인테리어와 일체가 되었고, 열린 유리 외관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망과 압전이 가능한 강당을 소개하였다. Roof Garden과 연결된 공간은 숨겨진 보석처럼 작용할 것이다. 입면처리와 함께 병행된 연구와 해결방법이 보여주는 건축설계작업의 즐거움과 정교하게 이어지는 대리석 판재의 혈관패턴을 같이 논의하는 건축주의 깊은 관심이 공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 서민용 주공 아파트로 현장 답사 시 주변 환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 단지에서 건축사의 의도대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작품이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다른 여타 주공아파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매우 우수한 주거단지로 평가되었다.

배치계획에서 매우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단지로 분할 구성하여 마을 속의 마을의 개념이 드러나고 있으며, 기존 지형을 일부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골프장에 면한 일부 테라스 형 주거의 제단 등 서민아파트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외부공간에 여유 있는 구성이 특히 돋보인다. 그리고 곳곳에 분수 혹은 벽천을 두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2개 층 높이의 보이드 된 연결통로라든지 저층과 고층부분을 재료를 분리하여 획일화 될 수 있는 파사드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단지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서민아파트로서의 공사비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이 제시될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공 역시 일반 아파트보다 우수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사와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 모두 새천년 주거단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진 주거단지라고 평가된다.

• 연하당 : 성북동 굽은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계속 이어지는 담들의 행렬 중에 작은 진입마당이 길로 열리며 식재를 보여주는 집이 있다. 아담하게 구성된 진입은 건물의 규모를 잘 숨겨주고 있다. 중정을 통하여 집 곳곳에 햇살이 드는 밝은 집이다. 규모에 비하여 많은 실들이 좁은 느낌이 들었으나 작은 기도실의 스케일이 성공적이었으며, 건축주의 여러 요청과 건축적 고려를 잘 풀어간 작업이다.

•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풍치지구로서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부정형 형태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개발된 저층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제안하고 있다. 159세대 모두 33평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소규모이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경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한 마을을 연상시키는 단지계획이 돋보인다. 특히 대부분이 꺼려하는 1층을 작업실 혹은 서재 등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에게 할애한 점이라든가 최상층인 4층 세대에 다락방과 전면 건물의 옥상 테라스 정원으로 할애시킨 점 등은 여느 아파트에서 찾기 힘든 차별화된 개념으로 보인다. 일부 평면에서는 매우 실제 평형보다 크게 느껴질 정도로 새로운 평면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단지 중앙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면서 경사지를 따라 매우 자연발생적 마을을 연상시키는 동선과 공간체계가 매우 돋보이는 건물로 평가된다.

• 주한 이란대사관저 : 출품작 중에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었던 주한이란 대사관의 대사관저인 이 건물은 매우 폐쇄적이고 주변과 소통이 없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많은 접촉이 없고 이해하기 힘든 문화권 나라, 외국 대사의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방문한다는 것이 매우 궁금하기도 했다. 작가인 파하드 아마디는 같은 시기에 대사관과 대사관저를 동시에 설계한 특이한 경우다. 작가는 빛에 대한 신화적 해석을 근거로 중정과 아트리움, 차폐와 개방이라는 4개의 요소를 통해 이 두 건물을 디자인하고 있다. 관저의 외관에서 보여지는 노출 콘크리트의 4개 박스의 극단적인 대칭성 그리고 건물 중앙에서 대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물의 사원인 수 공간,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주거라기보다는 종교건물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종교적 이미지는 내부공간에서도 같이 읽혀진다.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공간은 매우 미



국립 남도 국악원



충청대학 ART HALL



인사동 덕원갤러리



SBS 신시옥

니멀하고, 절제되어 있고, 인테리어 역시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마감되어 있다. 주택이지만 일반 주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도 겸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공간을 자세히 읽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었다.

• 논산 쉼썬 요양원 및 유치원 : 이름에서 읽히듯 이 건물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요양원)과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구성된 건물이다. 모두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을 답사하고 나서 건축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작품이다. 수녀님들의 희생정신 못지않게 건축사 역시 매우 봉사하는 생각으로 이 건물을 설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약간 경사진 대지 입구 쪽에 유치원을 그리고 중심부에 성당과 종탑이 그리고 후면에 요양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먼 외지에 매우 구석구석 건축사의 손길이 느껴진다. 특히 요양원 건물은 그 기능이 사회생활의 마지막 장소이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 매스에서 보이는 절제의 미가 내부공간에서도 읽혀지고 있다. 노출콘크리트로 된 수평적 매스와 그 뒤에서 동판으로 처리된 매스 등 수평과 수직 그리고 면과 선 등이 적절히 균형 있게 구성된 작품이다. 노출콘크리트와 적삼목으로 구성된 요양원 숙소와 매우 간결하면서도 엄숙함을 드러내는 종탑 등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폐쇄적이긴 하지만 이런 외지에 절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 경기 테크노파크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주요 기능이 기업의 정보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산학협동의 연구단지 조성계획이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와 이웃하고 있는 이 건물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주변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사의 창의적인 형태미의 도출보다는 증축에 대한 고려, 효율적인 동선 등 기능적인 기준이 우선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임대 연구소 동, 지원 편의시설 동 그리고 임대공장 및 파이롯 플랜트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곡면 처리된 지원 편의시설로 인해 매우 단조로운 형태에 조소적 형태를 가미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주진입 동선인 해안로에 대해 가로 방향에 따라 길게 늘어 선 곡면이 진입광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다른 두개의 건물은 세장한 입면이 흐름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사의 의도대로 정원 개념이 적용된 외부공간의 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 금강휴게소 : 그냥 스쳐가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쉬고 즐기는 건물이 되어버린, 누구나 한번은 들릴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되어 버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는 하나의 문화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흔히 않게 상하행선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금강휴게소는 주변의 경관만으로도 매우 기억에 남을 만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금강휴게소는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상류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을 등지고 배치되었던 과거의 건물을 철거하고 과거 건물과는 반대로 새로운 건물은 배면에서 보이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교감을 이루고

있고, 자연과의 조화와 보존을 위한 친환경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의도대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원목상태 그대로 사용한 가로등과 데크의 기둥들은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을 내부공간으로 관입시키고 있고 경관 조망을 위해 내부의 모든 요소는 단순화되어 되어 있는 건물이다. 사실 이 장소는 없는 듯한 건물이 더욱 좋은 건물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 건물로 평가된다.

• 우면동 스튜디오 : 서초구 우면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화가인 건축주의 주택으로 건축사는 일련의 작품을 통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선의 유희 혹은 자유로운 형태의 유희라고 할까? 건축사는 이 주택의 주된 개념으로 “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면과 면 사이의 틈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마당 그리고 내부 공간과 마당 등의 틈이 그것이다. 문화시설에 서나 가능할 수 있는 직선과 사선의 멋진 어우러짐이 있는 주택이다.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공간에서도 이러한 사선은 모든 실의 천장이 사선의 지붕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체 내부공간을 뒤엎고 있다. 노출콘크리트와 징크가 어우러져 있고 재료가 주는 절제의 미도 돋보이는 건물이다. 평범한 모든 공간은 이러한 사선의 에너지가 발휘되어 낮설고 신비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논산 쉼썬 요양원 · 유치원



주한이란대서관저



조린헌



우면동 스튜디오

• (주)세정 서울사옥 : '인디안'이라는 의류 브랜드로 알려진 패션전문회사의 사옥인 이 건물은 테헤란로변 포스코센터 사거리에서 대치 사거리로의 오르막길 정상에 35m 삼성로를 두고 서측 면을 정면으로 하는 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그저 평범한 주변 가로변의 파사드에서 매우 역동적인 형태 처리로 가로경관을 매우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 이 건물은 먼저 외부형태에서 다른 건물과 차별되는 중규모 사무소 건물이다. 외부적으로 활처럼 휘어져 긴장감을 주고 있는,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듯한 곡선의 H형강에 의해 눈에 띈다. 또한 곡선 처리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1층부터 9층까지 오픈된 아트리움 공간으로 내부 공간 역시 압도하고 있다. 이 아트리움 공간에 1층부터 3층까지 직접 연결되는 내부계단은 지하 선로가든과 풍부한 내부공간의 연출 장소가 되고 있는 듯 하다. 기능적으로는 일반 사무소 건물과 다를 바 없으나 사옥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강한 이미지가 구현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지하 오픈 공간의 처리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 충청대학 아트 홀 : 충청대학 캠퍼스의 진입광장에 면해 있으며, 지하에 중규모의 공연장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실제로는 이름과는 다르게 주로 교무행정과 교수실로 구성된 대학 건물이다. 환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질서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특히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별다른 상징시설이 없고 캠퍼스의 정문 역할도 할 수 있는 매우 인지성이 강한 상징적인 건물로 해달라는 의뢰에 따라 약간 작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축을 약간 틀어

건물 전면에 투명한 유리 박스를 교수동인 솔리드한 매스에 삽입시켜 강한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건물이지만 형태에 있어서 매스와 지붕을 약간 띄어 하늘과 연계된 또 다른 입면을 구사한점이라든지 캠퍼스 밖에서 보이는 매우 정리된 연구소를 연상시키는 파사드와 건물전체의 사공성도 돋보인다. 공간적으로는 중복지형의 교수연구실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동선을 깨기 위해 일부 면을 절삭하여 외부공간을 내부로 끌어 들인다든지 중간에 테라스를 활용한 옥외 휴게공간을 배치한 점은 단조로움의 깨고자 했던 건축사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를 :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서관과 공과대학 사이에 6m 고저차가 있는 중간 위치에 건립된 이 건물은 프로그램 상 강의시설의 제공 외에 다른 공과대학의 건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어진 건물이다. 따라서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모두 건물들의 연결통로로서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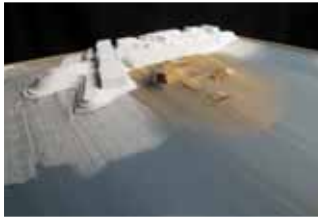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의 배치를 위해 단면상의 입체적 겹침으로 건물 높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한 방법은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파사드에서는 시멘트 패널, 이연판, 마천석의 솔리드한 면과 투명 유리의 이중의 효과를 통하여 다양한 질감의 효과와 질감의 표정으로 주변의 균질적인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SBS 신사옥 : 목동에 세워진 이 사옥은 건물 외관에서부터 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놀로

지가 적용된 건물이다. 외부 형태는 투명한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방송국의 공정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으며, 내부 역시 유리화 금속재를 주로 사용하여 전반적인 느낌이 명쾌하고 밝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전 층 모두 오픈 되어 있는 중정은, 채광은 물론 4면의 모든 실의 활동을 볼 수 있어 매우 활동적인 방송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치밀한 디테일과 우수한 시공으로 형태 구현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건물로 평가되나 시공 상의 실수이든, 공기의 문제이든 일부 디테일에 있어서 결함이 보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건물이 아니기도 하지만 방송국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 건물을 평가하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 포항공대 청암 학술정보관 : 포항공대의 장기 캠퍼스 확장계획의 중심 건물로 신축된 학술정보관은 그 규모와 배치가 현 상황으로는 어색하나 마스터플랜 상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물위치와 더불어 정보통신 Hub의 역할과 건물의 이미지는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와 청암관의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작업이다. 원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가구배치는 조용한 개인 작업공간과 공공의 열린 공간의 균형을 이루었고, 학생들의 팀 작업이 가능한 실들의 배치 등 섬세한 고려가 보였다. 보완과 설비의 이유로 개폐되는 창이 부재가 아쉬웠지만 포항공대의 이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유리화 과감한 철 부재의 디테일이 돋보였다.

• 순천 어린이 도서관 :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연속인 거리에 순천 어린이 도서관은 특이한 입면과 매스로 주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계획부분 금상	계획부분 은상	계획부분 동상
		
Plankton House	도심속의 외부공간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
		
		관악구클린센터 + 자연순환테마전시관

사용자 분들의 힘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듯 어린이와 부모님들은 건물을 책과 함께 하는 열기로 가득 채웠다. 전래와 규율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서 탈피한 공간작업이었으나 많은 공간 유형과 표현은 조금 더 건물이 커서 소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주었다.

• 국립 남도 국악원 : 야심 찬 프로그램과 규모를 잘 소화한 결과물이다. 건물의 배치는 진도의 바다전경과 경사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고, 건물의 웅장함을 전달하면서도 섬세한 조경설계로 황량할 수 있는 건물사이공간을 잘 연결하였다. 야간조명도 이러한 목적을 잘 도와주었다. 그러나 우리 소리를 담은 대공연장이 새로 해석되지 않고, 전래의 서양음악당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 인사동 덕원갤러리 : 인사동이라는 논쟁상의 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하는 힘든 프로젝트였다. 건물의 프로그램 상 관람객을 5층까지 지루하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동선과 내, 외부 공간의 엮임이 잘 해석되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재료의 쓰임과 공간 나눔이 다소 부담스러워 보였다.

• 조린현 : 작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의 모든 조건이 다르게 만들어진, 설계의 즐거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작업이다. 특정 건축주의 이해로 이루어진 과감한 재료의 응용과 공간 구성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어졌다. 다소 요소가 많게 다가서지만 주택공간의 다양한 표현이 연구된 작업이다.

계획건축물부문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8.31
- 접수 : 2004. 10. 11
- 심사 : 10. 13(1차 패널리스트)
11. 1(2차 모형심사)
- 시상식 : 11. 24.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1. 24~11. 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
- 주제설명 :
 - 각 지방 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의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건축은 장소의 한정성과 물질적 기능의 확대육구로 인해 더 높게 더 넓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술과 하이테크의 결합으로 건물은 쾌적한 인공환경을 갖추어 지능화, 자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욕망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시에 위압적이

면서, 자연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건축계획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을 담은 자연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자연과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건축디자인은 자연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 환경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보적 관계로 얹혀있다. 서양적 이성, 근대서양의 유산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부정과 포기가 아니라 동양적, 생태적 세계관에서 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최상위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해 가치매김을 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치 체계로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 환경적 건축이라 해서 단순히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자연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하고 외기와 접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시건축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과 바람의 흐름과 공기의 이동을 이해하고,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부문 | 입선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Re-Garden



용산 삼각지주변 황강가 문화거리 만들기



경주시레벨을 통한 도심속 오픈스페이스 재구축

재료의 속성을 깨우치고, 보다 큰 자연의 순환 논리를 감지해야 할 것이다.

퇴보 (Retrogression)	진화 (Evolution)
←	→
단순성	복잡성
확일성	다양성
불안전성	안전성(안정상태)
종의수:소수	종의수:소수
높은 엔트로피	낮은 엔트로피
독립성	상호의존성(공생)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부채 / 이안L. 맥하그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시건축상은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잡성, 안전성, 상호의존성(공생)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축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서들 : 땅, 물, 바람, 빛, 수목, 경사지

- 출품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 패넬(가로 90cm×세로120cm), 패넬 축소한 A3용지 1매,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 2차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75cm×90cm 또는 90cm×세로75cm, 높이 75cm 이내)

※ 1차 패넬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모형을 제출함. 모형 제출일은 개별통보

- 출품인원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함

심사

가. 심사방법

- 패넬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심사위원장)

박영순 / 건축사사무소 상화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오성훈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금상(1점):상금 300만원 및 건설교통부장관상

- 은상(2점):상금 2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3점):상금 1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선(다수):상금 2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 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 명단

■ 금상

• Plankton House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

■ 은상

• 도심속의 외부공간 / (주)건축사사무소 우진 박준용

•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김성원, 이지훈, 임정수

■ 동상

• 관악구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 / (주)건축이상 건축사사무소 황규하,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석재영

•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인선

• Re-Garden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최해안, 인하대학교 건축과 서윤원, 이신재

■ 입선

• 용산 삼각지주변 화랑가 문화거리 만들기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성래, 대림대학 건축과 송형태, 김희연

• 경사지레벨을 통한 도심속 오픈스페이스 재구축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원영권

• 난지도 에코-라인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김의섭, 고석홍

• 경계의 불명확성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신민재



난지도 에코-라인



경계의 불명확성



지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 노을공원



생태체계를 도입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 지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 노을공원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실 류금영, 유용배, 이창엽
- 생태체계를 도입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최수미
- 기능의 전환을 통한 생태 공간의 확산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유규진, 오장훈, 최낙훈
- 온라인 집회시설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김우재, 박재우, 서강석
- 자연스런 흐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병규, 김성민
- 연속된 산책 공간을 통한 낙동강변 활성화 방안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박종규, 정해웅, 강민호
- Where is the Boundary? / 인하대학교 건축과 정우석
- 용머리 해안, 하멜 기념관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강현석
- 자갈치 시장 재구축 / 동서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정재우, 김미애, 동서대학교 건축공학대학원 김정은
- Nature Connection Person Flowing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근형, 서현옥,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성호
- 남산 경사도에 따른 수직공원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심경아, 이주석,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이종훈
- 무하유지향과 실 한 오라기 /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박종세, 장현창
- Recovery of the Urban Life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용원, 김대연
- Urban Landspace Image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이종훈, 손형주,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김민하

- 3+4=Nature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준석, 박종원, 장수현
- Multi-Ground in the City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김진국, 김원기, 소재민
- Equation of the Higher Degree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김해진, 김진국, 신동하
- Hybrid Station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조상현, 지동현, 김진국

심사평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심사위원장
 금년은 예년과 달리 1차에서는 패널과 패널을 축소한 A3도판을 제출케 하고, 예심에서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모형을 제출케 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수고를 덜게 하고, 참여 작품의 숫자를 늘리게 하기 위함이었는 바, 기대와 달리 작품 숫자의 증가는 없었다.

심사는 1차로 28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에서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예심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제와 동떨어진 작품이 다소 있었으나 전반적인 작품의 질은 작년보다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소화하기에 버거운 큰 스케일의 작품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일로서 앞으로 참여자들의 기준이 되리라 본다.

금상으로 선정된 「플랑크톤 하우스」는 심사위원의 전원일치를 가져올 정도로 주제와 맞는 작품이었다. 플랑크톤의 증식과 변이의 시스템을 형태구성에 반영한 점이라든지, 평면이나 입면의 해법은 물론 표현 기법 또한 뛰어났으며 스케일도 적절하였다. 굳이 흠을 잡자면 갯벌에 그대로 앉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은상의 경우 「도심속의 외부 공간」은 기성 건축사들이 건축주라는 벽에 막혀 풀지 못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준 작품으로, 직육면체의 틀 속에서 공간을 비우고 채우며 빠고 더하는 기법이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다. 「Artificial forest...」는 탄천을 지나는 도시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건축적 공간을 디자인한 것으로 기능적인 기능에 의한 건축적인 숲과 자연 숲을 조화시키는 아이디어 측면이 뛰어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차분하여 영예를 안게 되었다.

동상을 수상한 「Re-garden」의 경우 그와 유사한 작품들이 있었는 바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작품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레벨 월을 통한 청소년 문화시설」은 고식적이고 경직된 부분도 있으나 위치의 선정과 경사지 등 자연을 가장 당위성 있게 풀어나간 능력을 높이 샀다. 「관악구 클린센터...」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착안한 점이 발군이었다. 전반적인 디자인도 무난했으나 건물의 비중이 대지가 수용하기에 너무 짝 찬 느낌이다. 좀 더 걸러내고 속아 내어 보라매공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멜 기념관」이나 「온라인 집회 공간」, 「청라 노을공원」 등도 입선작으로는 뛰어난 작품이었음을 밝혀둔다.

금년도 수상작 가운데 대학원생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위상을 높이는 일 이기에 반가운 일이다. 입상자들을 축하하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 정진하여 이 나라 건축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능의 전환을 통한 생태 공간의 확산



온라인 집회시설



자연스런 흐름



연속된 산책 공간을 통한 낙동강변 활성화 방안

박영순 / 건축사사무소 상화

대부분의 출품작이 그 장소의 독특한 특성과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대지를 잘 선정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재해석해서 건축적으로 풀어내려는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예를 들면 1차 심사에서 「탈북자 지원센터」,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도립 천 수변공간」, 「부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미혼모 요양원」, 「실미도 기념공원」, 「은퇴노인 공동주거시설」 등의 작품은 주제와 좀 더 접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반적으로 1차 패널 심사는 주제와 접근된 내용 위주로 여러 차례 토론 끝에 총 252작품 중에서 28작품이 선정되었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 때 충분히 읽혀진 28개의 패널 도면을 기준으로 모형심사로 이루어졌고, 다소 미약했던 패널 작품도 모형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토론을 거쳤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가진 「옹머리 해안, 하멜기념관」은 주제에 적합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소선정과 계획적 표현도 월등했지만 지나치게 국한된 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던 작품이다.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는 소음이나 진동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시가 아쉽기는 했지만 도시 고속도로의 버려진 하부공간을 재해석해서 충분한 건축적 가능성을 제시해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는 도시의 무수한 직육면체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끌어들이는 아이디어가 신선했고, 다양한 외부공간의 작은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도시환경의 활력과 상가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훌륭했다.

를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Plankton House」는 갯벌의 수위변화에 따른 건축과 생태계의 공존을 제시해서 1차 심사 때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 의외로 단순한 계획안이었는데, 모형에서도 그 계획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바로 그 부분이 계획하고자했던 초기의 의도를 끝까지 잘 소화해낸 작품으로 선정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참가예정자에게 주제가 좀 더 일찍 제시된다면 실무하시는 분이나 학생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둘째, 1차 작품을 간소하게 받아서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을 선정하고, 더 발전된 2차 심사로 연결된다면 좋은 작품이 더 많이 참가하게 될 것 같다. 셋째, 차세대 건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보상이 주어진다면 교육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수상하게 된 모든 분들과 참가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낸다.

송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올해에는 소모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심사를 했지만, 건축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1차에서 이미 패널을 제출했기 때문에 계획안의 발전이 없이 모형만을 제출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다음에는 1차를 계획안을 보는데 그치고, 2차에서 더욱 발전시켜 밀도가 높은 패널과 모형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직하다.

1차에서 이미 입선작에 가까운 작품들이 걸러진

터라, 어렵지 않게 입상권의 작품들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본다. 동상의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 문화시설」은 경사지를 이용한 문화공간으로서 비교적 원만한 건축적 기법에 의한 해결이지만, 오히려 학생으로서의 창의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동상 「관악구 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은 훌륭한 주제임은 사실이지만 부지의 건축적 조형성에 치우쳐, 그러다 보니 공원과의 연계로서 여유 공간이 없고 도로와 공원과의 여유 공간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동상의 「Re-Garden」은 뛰어난 조형성과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부둣가부지가 지니는 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전개가 아쉽다.

이외에 입상에서 밀려났지만 「경계의 불명확성」은 일상을 추적하고 도시근교의 전원주택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어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전원이라는 마을과의 관계에서 주제가 시사하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의 소홀함과 「자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공원」 또한 땅의 흐름을 분석하여 지기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를 보여주었지만 건축적인 외피를 구성하는데 그치는 아쉬움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집회사설」은 온라인 네트워크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집회사설을 계획하는 훌륭한 주제와 설정은 좋았지만, 부지가 지니는 역사성 등 강한 주변과의 맥락에 대한 의식과 「옹머리 해안, 하멜기념관」 또한 장소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의 주변 특성과 땅에 대한 해석함이 부족하여 입상의 대상에서 고심하게 한 작품이었다.

은상인 「도심 속의 외부 공간」은 직육면체의 가



Where is the Boundary?



옹머리 해안, 하멜 기념관



자갈치 시장 재구축



Nature Connection Person Flowing

장 보편적인 공간의 틀 속에서 외부공간과의 관계에 의해 형태를 구성해 나가는 쉬운 주제인 듯하지만, 비교적 작업방법은 다른 작품과는 차별화되어 오히려 흠 없이 은상에까지 이른 데에는 별 이의가 없었던 것 같다. 또 다른 은상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는 기존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재해석하여 재생산한다는 좋은 주제와 밀도 있는 공간 처리임에도 탄천이라는 수공간과의 관계와 어프로치문제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금상인 「Plankton House」는 조수간만의 차이와 갯벌의 경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연의 변화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작업은 생태계의 시스템과 건축의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주제이고, 그 표현된 결과 또한 만족할 만하여 금상으로 결정되는데 무난하였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작품 거의가 주제에 대한 철저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애석했다. 즉 충분한 사고 작업은 했지만 그것이 건축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적당한 부지(대체적으로 경계지점)를 선정하는데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지의 형식은 직관적으로 파악되지만, 땅의 해석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주변적 반응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하나의 건축언어를 뒷받침하는 주변적 해석 없이 그 가시적 형식만 수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의 빈곤은 미적 풍성함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불이(不二)라는 주제가 시사하는 것처럼 땅이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이란 개념이상으로 자연을 포괄하는 뜻일 것이다. 땅이란 재생

산될 수 없고, 자연재생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마인드가 긴요하다. 모든 건축사들이 그들의 가치를 새로이 구축하려면 땅에 대한 겸손을 그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오성훈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체적으로 주제해석, 대지선정 및 읽기, 아이디어 전개과정, 완성도의 4가지범위에서 전체 제출된 패널들을 봤다. 먼저 주제-不二(둘이 아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풀었다는 느낌보다는 나름대로 설정한 주제 내지는 상황을 전제로 많이들 풀어 간 듯이 보였다. 제출된 상황들이 학교과제와 겹쳐서 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라는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제시가 주어졌으면 그 관계 내지는 자연에 대한 해석을 좀더 치열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제해석과 연관지어 대지선정에 있어서 하천가, 바닷가 등이 꽤 있었는데, 주제해석에 있어서 1차적이고 표피적인 단계를 넘어나지를 못한 것 같았다. 또 도심지에 설정된 대지들도 주변의 콘텍스트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의 반영이 약했던 것 같다.

아이디어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읽히기는 했으나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수단 등으로 치밀하게 이행한 것은 적었던 것 같다.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이 취약하다 보니 결과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다. 즉 많이 보아온 건축적 언어들로 취약한 아이디어가 대체되고, 현란한 그래픽으로 과정이

호도되는 현상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끼리 작품하나씩 리뷰한 결과 입상권에 들어가는 30여 작품을 골라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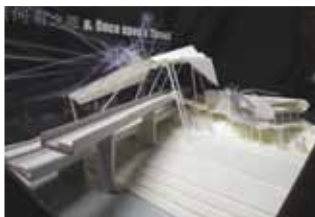
지금 생각해보면 일차 심사를 마친 후에 몇몇 작품들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모형이 추가되고, 혹은 보완될지도 모를 작품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패널들의 보완은 없었고 모형의 추가만 있어서 위원들끼리 아쉬움을 나타냈다. 몇몇 개의 작품은 모형으로써 아이디어설명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전개 과정을 읽을 수 있어서 기분이 괜찮았다.

주제의 포착과 전개과정, 주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금, 은, 동상을 선택했는데, 크게 이론했고, 소위 메달권에서 벗어난 것들 중 아쉬운 것들이 세 작품이 있었는데, 「온라인집회 시설」, 「하멜기념관」, 「청라노을공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변과 관련된 고려가 없거나 미약했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나 결과의 솜씨는 동 메달권의 것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정도였다.

금상을 받은 「플랑크톤 하우스」는 프로젝트 크기 문제를 넘어서 주제해석이나 시간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잘 드러내서 1위를 차지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모형으로도 변화의 개념이 잘 드러나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전체적인 설정이나 개념이 건축적 처리에 까지 깊이 들어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특히 육지 쪽 건축과 바다 쪽 건축은 좀 다른 제스처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물에 잠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상을 받은 「Artificial forest.....」에 눈이



남산 경사도에 따른 수직공원



무허유지함과 실 한 오라기



Recovery of the Urban Life



Urban Landscape Image

많이 갔던 거 같다. 이 「Artificial forest...」도 대지의 선택과 건축적 해결에 좋은 솜씨를 보여줬다. 아티피셜 포리스트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해결책의 제안과 전개에 있어서 흔히 보는 듯한 해법으로 처리된 게 아쉬웠다, 깔끔하고 스마트하긴 해도 학생이나 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이 부족한듯해서 아쉬웠다. 「도심속의 외부 공간」은 설명서에서 작은 도시 복합체로서 경험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 의도라면 외부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축적 언어로써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제안한 공간조직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제 해석과 그 전개과정, 건축적 완성도가 골고루 갖추어진 작품들이 인상했고 결국 메달권에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또 주제 선정 시에는 대상이 도시든지 자연이든지 자기 나름의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올해의 주제는 자연과 인공의 건축이 다르지 않음 불이(不二)이다. 평가한다는 것은 작업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 다른 대지에 각자의 해석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우열로 평가하여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입상권에 든 작품들 중에 금상, 은상, 동상을 구분하는 것은 심사위원 간에 비교적 의견이 쉽게 접근되었다. 다만 상위 6개의 작품을 고르면서 그 안에 들지 못한 몇 개의 작품은 인상적이었고 조금은 아쉬운 것들이 있었다.

상위 입상권에 들지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아

쉬운 작품 중에 「제주도 용머리해안 하멜기념관」 계획안이나 「Hyper-Green-Arena」 등의 작품은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주제의식과 형태와 도형을 풀어가는 능력은 비교적 좋은 평가였지만 대지주변(자연 혹은 도시)과 관계를 해석하는 점이 부족했다.

상위 입상의 작품 중에 「Plankton House」는 단순하고 소규모의 작품이지만 주제의식이 강렬하고 섬세한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림과 다이어그램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과 모형의 표현력도 좋았다.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와 「Artificial Forest」는 두 작품 모두 도시를 재구성하는 작품이다.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는 우리말 제목이 외부공간을 통한 도시의 상가건축 되돌아보기이다. 건축이 당대의 사회적 요구 프로그램을 건축사의 도시와 형태해석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볼륨이 커지고, 두꺼워지는 건물의 채광, 환기, 전망 등의 건축적인 조건이 열악해지는 도시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써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연구가 돋보인다.

도시를 지나는 고가도로의 하부 일부 구간을 건축적으로 이용하는 「Artificial Forest」는 교통에 해결을 위한 거대한 토목구조물이 혼재된 도시에 있어서 그러한 토목 구조물에 의해서 버려두고 황폐해지기 쉬운 공간을 발견하고 건축적으로 재조직하려는 노력의 작품이다. 현실성과 구체성은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와 비교해서는 떨어지지만 다양한 레벨을 해결하고 건축 조형적인 감각과 구성이 좋아 보인

다. 조금 더 다양한 기하학의 구성으로 접근했다면 공간적으로 다양함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인천의 해안 지역을 건축적으로 재구성하는 「RE Garden」은 공간, 구조, 형태를 기하학적 선형으로 다루는 솜씨가 돋보인다. 회화적인 감각과 건축공간이 조화되어 있다.

「Disappearing of Wall and Road」는 학교가 밀집된 경사지에 계단형 청소년 문화 시설을 계획한다. 직교의 구성과 레벨을 이용한 공간 활용이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지형에 그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Animated Urban-Park」는 최근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을 공지형을 이용한 공원 문화 시설과 복합적으로 처리한 작업인데, 강안 둔치의 경사를 이용한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다양한 각도의 선들을 겹치고 복잡한 기하학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보여준다.

250여 전체 작품들 속에는 주제와 거리가 있고 미숙한 것들이 더러 보였지만 대부분 많은 작품들은 연구와 표현에 있어서 노력이 많은 노력의 보여서 반가웠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을 통하여 건축문화에 이바지할 건축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3+4=Nature



Multi-Ground in the City



Equation of the Higher Degree



Hybrid Station

대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비주거

광주광역시청사

Gwangju City Hall

설 계 자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식

시 공 자 | 금호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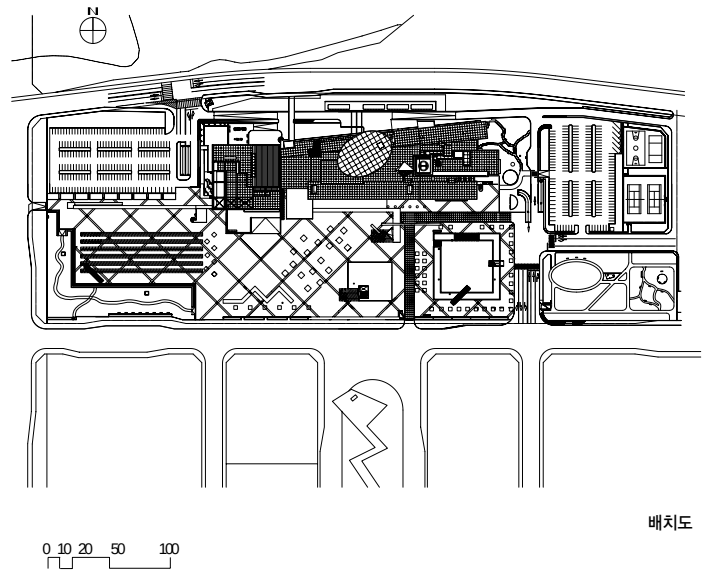
건 축 주 | 광주광역시장





건축개요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번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상세계획구역
주 요 용 도	공공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대 지 면 적	94,192 m ²
건 축 면 적	13,177 m ²
연 면 적	86,526 m ²
건 폐 율	13.98%
용 적 륜	59.53%
규 모	지하 2층, 지상 18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 부분철골트러스 + 철골조
외 부 마 감	화강석판석, 저반사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알루미늄 골판
내 부 마 감	화강석판석, 카펫타일, 알루미늄 타공판, 무늬목, 흡음텍스
설 계 참 여	김용미, 김현철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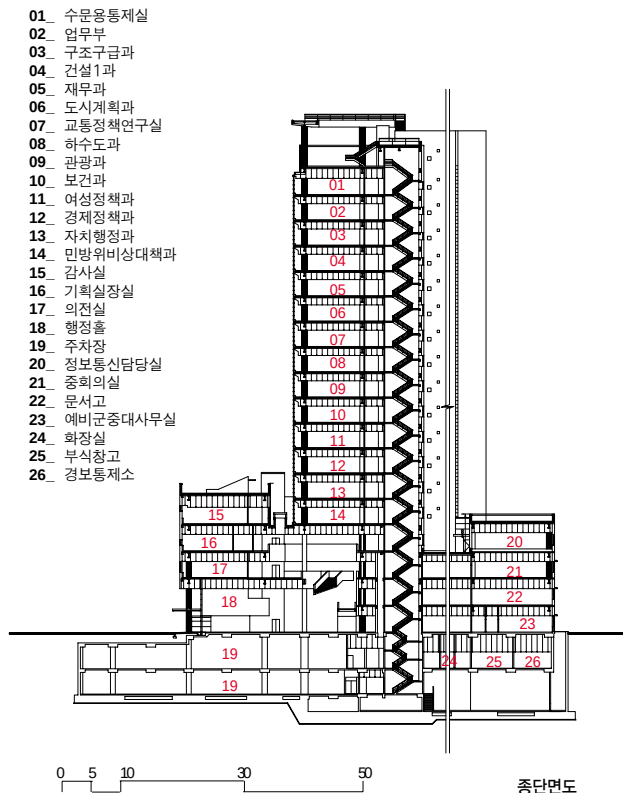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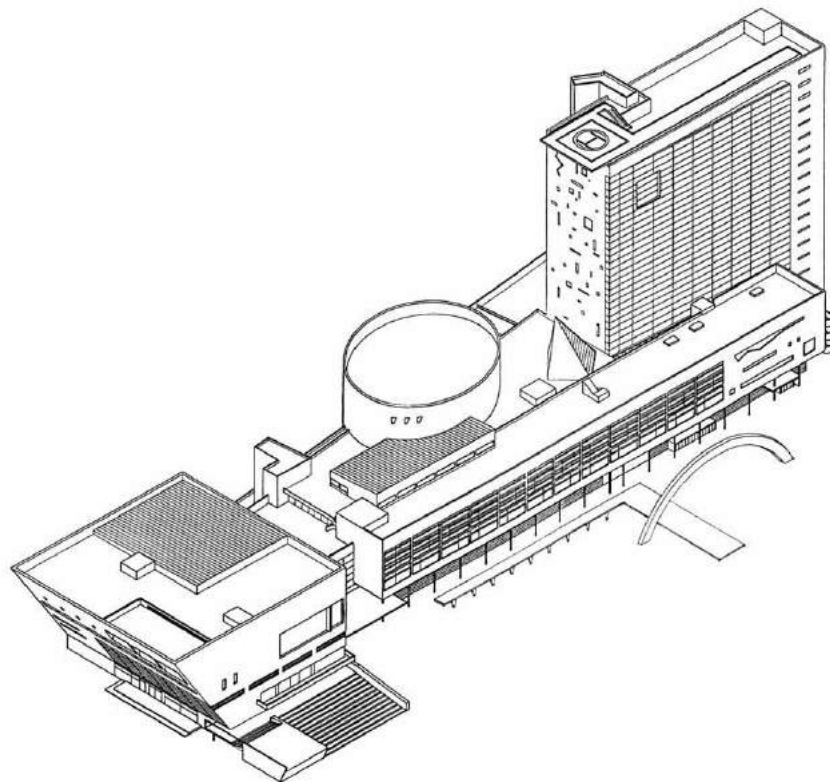
적어도 광주광역시 신청사 현상설계를 수행하던 1996년 그 당시에는, 그동안 관공사 건축물이 만들어낸 권위 중심의 표현은 방법이나 형식 및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대한 외부적 힘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왔으며, 관공사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권위적 중심적 이미지는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의 그러한 경향은 관공사 건축물로서 정부나 기관의 권위를 가능하면 잘 표현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든, 당선을 겨냥한 전략이든, 건축가 자신의 조형적 사고의 결과물이든 비교적 큰 규모의 자치단체 청사 건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칭의 정적인 균형으로, 수직이 강조된 무겁고 권위적인 건축물로 생산되고 있었다.

1996년 우리는 광주광역시 신청사 계획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조형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와 민주와 예향의 땅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역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칭과 불연속적인 다양성을 포함하는 기존 청사건물들의 권위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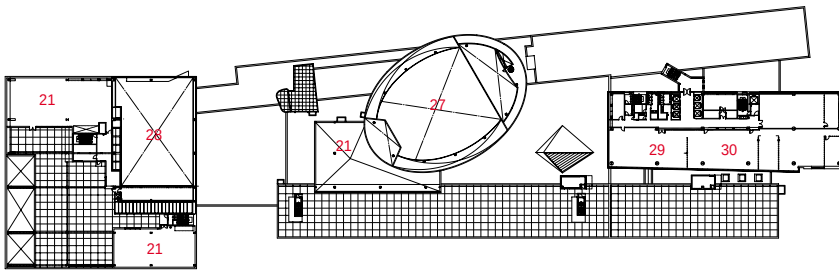
단순히 자신에게 알맞는 형태나 공간을 구성하는 결과물로서의 존재를 벗어나 '민주'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대칭파괴와 수평적 펼침을 통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 다양성과 외부조건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조형적으로 완성하고, 열림을 통해 내 외부공간의 연속적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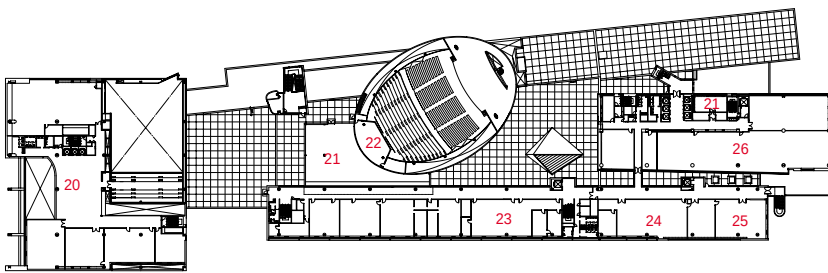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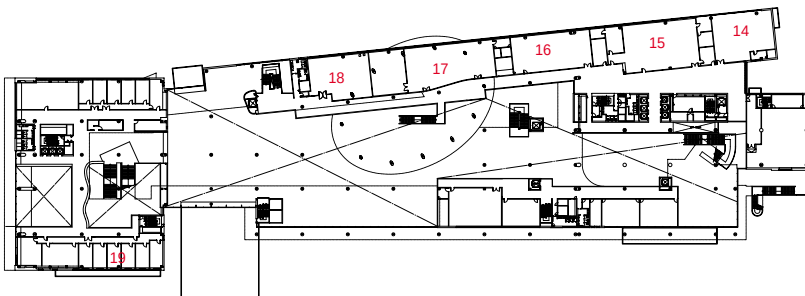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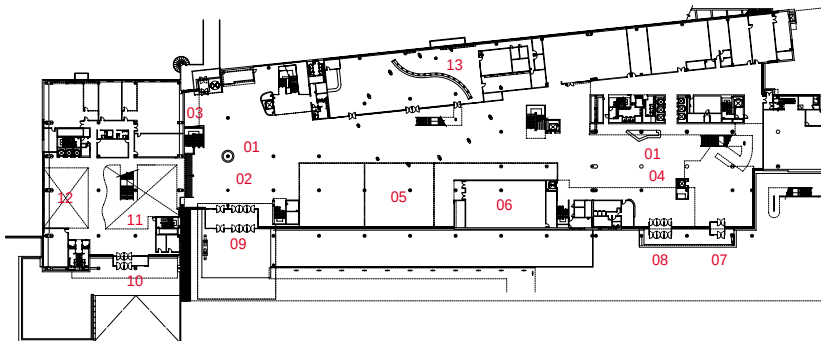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0 5 10 30 50



- 01_ 안내
- 02_ 시민홀
- 03_ 관광안내코너(홍보)
- 04_ 행정홀
- 05_ 전시홀
- 06_ 시청홍보관
- 07_ 입구
- 08_ 공무원입구
- 09_ 시민입구
- 10_ 의회입구
- 11_ 다목적홀
- 12_ 의회역사관
- 13_ 민원실사무실
- 14_ 민방위비상대책과
- 15_ 총무과
- 16_ 세정과
- 17_ 회계과
- 18_ 시청정보센터
- 19_ 의원사무실
- 20_ 방청객 대기로비
- 21_ 공조실
- 22_ 조경실
- 23_ 공보실
- 24_ 감사실
- 25_ 감사장
- 26_ 소회의실
- 27_ 대회의실 상부
- 28_ 본회의장 상부
- 29_ 건축주택과
- 30_ 농정과

대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주거

아이파크 삼성동

I' PARK SamSungDong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김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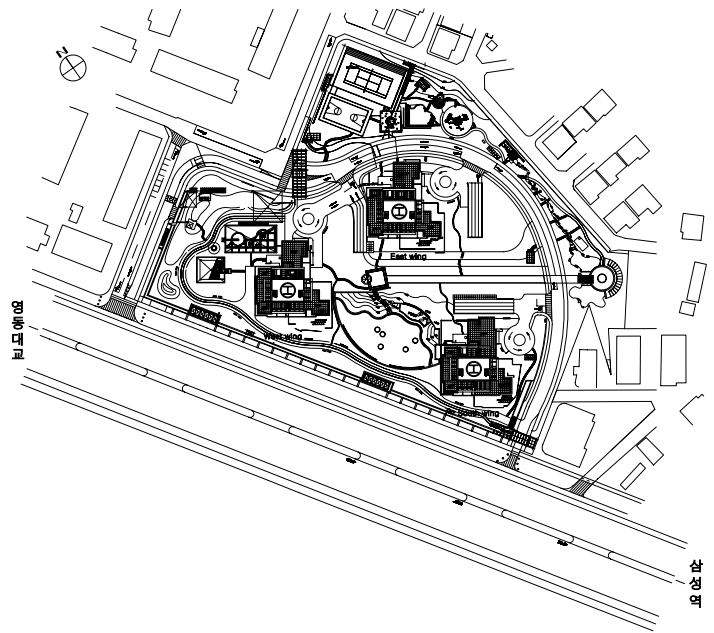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주)

건 축 주 | 현대산업개발(주)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주 요 용 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32,259,000m ²
건 축 면 적	2,960,501m ²
연 면 적	146,482,922m ²
건 폐 율	9.177%
용 적 륜	296.317%
규 모	지하 4층, 지상 4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 부 마 감	24mm컬러 복층유리, 알미늄커튼월, 화강석
세 대 수	449세대
주 차 대 수	1,253대
설 계 담 당	최홍남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계획개념

삼성동 아이파크는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갖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 창조 즉, 인간, 자연, 도시라는 세 가지 인자의 조화를 기본 개념으로 설정 하였다. 생태환경과 실내환경과 교통 등의 지표를 토대로 하여 국내 최초로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배치계획의 주안점으로는 첫째, 순수아파트로서 기존의 일자형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에서 탈피하여 주상복합 건물의 초고층 형태와 편리성, 아파트주거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새로운 주거형태를 시도하였다. 둘째, 초고층 탑상형의 주동방식 적용으로 입면의 차폐율을 최소화 하여 주변대지의 한강변로의 조망권을 열어주어 시각적인 화랑을 부여하였다. 셋째, 건폐율을 9%로 하여 녹지의 비율을 전체대지의 50%이상 되도록 계획하여 친환경적 주거계획의 핵심으로 작용하였고, 단지중앙의 선크광장, 저층부 필로티 설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였다. 넷째, 단지 내부의 주동 배치는 조망과 향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하여 2면 이상 개방방식의 단위세대 평면을 적용하고, 동 배치를 남 동향으로 하여 저층부에서는 향을 고층부에서는 조망을 확보한 주동 배치를 제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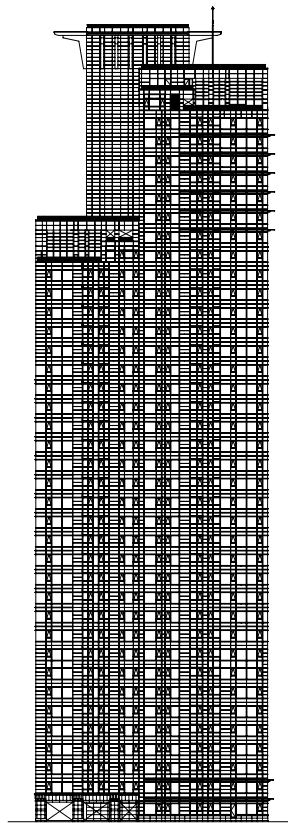
단지 조경계획은 자연(Nature: 자연과 더불어 사는 High Quality), 건강(Health: 활력과 생기가 있는 High Living), 생활(Life: 편리함과 정다움이 있는 High Society)을 기본개념으로 사계절 푸르름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주거단지를 연출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념으로 단지 곳곳에 설치된 운동시설, 놀이터, 연못, 정자, 선크가든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오솔길(Allee)을 구성하여 녹지축의 흐름을 연계 하였고, 나무가 우거진 단지 내의 길, 실개천, 작은 폭포, 분수 등의 조경요소를 도입하여 자연체험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각 타워 동별 진입부에 조경요소(수종, 색깔 등)를 달리하여 동별 인지성 및 독자성을 확보하고, 테라스형 계단식 조경방식을 통해 지하공간으로 자연채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여 밝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 하였고, 단지 Level에 의한 수공간을 만들어 Dynamic한 공간을 자아내게 하였다.

건축계획 요소로서 주동계획의 1층 평면계획은 각 주거동마다 특색 있는 진입공간을 구성하고 Drop-Off Zone을 설치하여 접근의 편리성을 주었고, 저층을 피로티로 하여 초고층 아파트의 압박감이나 폐쇄성을 해소하여 쾌적성을 한층 높였다. 호텔식 로비에 커뮤니티 장소와 휴게시설을 두어 주민들의 유대관계를 극대화 시키고, 1층의 층고를 높여 홀 내부의 격조높은 공간감을 연출하였으며, 전용 정원 개념 도입으로 저층 세대를 위한 특화개념을 부여하였다.

기준층 평면계획은 1개의 주동 코아에 4세대 조합형으로 계획 되었고, 2~3면이 외부로 개방되도록 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최상층은 복층형으로 계획하여 조망권을 두배로 열어주고 전용 옥상정원을 확보하여 최상층 세대로서의 Amenity를 극대화 하였다. 주동 코아의 피난계단 외에 노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2개 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재계획을 시도 하였다.

지하층 평면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



동쪽 입면도



한 Activity를 위한 충분한 여유공간과 시설계획으로 오락과 휴식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골프장, 스쿼시, 헬스클럽 등을 설치하여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시설 내에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지형을 이용한 선근가든을 중심으로 수평, 수직의 동선체계를 구성하고 단지 진입구의 보행체계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단지 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21c 주거에 적합한 첨단 통합방재 시스템을 갖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입면계획은 21c 미래형 도심주거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High Tech한 외관창출과 변화있는 매스적용으로 Dynamic한 조형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고층부는 경관조명을 이용한 입면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초고층 아파트로서 수직성을 강조하면서도 안정감 있고 세

련된 입면계획을 하였고, 저층, 중층, 고층부마다 차별화된 입면으로 시각적 균형을 유도하였다.

단면계획은 주거동 저층부를 피로티화 하여 단지 내의 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피로티 하부에 호텔식 로비를 계획하여 주동내부의 최초 진입공간으로서 거주민의 Identity를 부여하였다. 기준층 층고는 3.2m, 천정고 2.4~2.6m 확보하고 1층 세대는 4m로 계획하여 내부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고, 최상층 세대는 복층형으로 계획하여 단면변화의 다양함을 유도 하였다.

구조계획은 첫째, 기존의 일반적인 철골조 구조방식을 탈피하여 R.C구조방식을 채택하여 거주성을 향상시키고 기동식 구조방식의 도입으로 가변성 및 향후 리모델링을 고려하였다. 둘째, 두께 250mm의 Flat Plate Slab방식 채택으로 세대간의 바닥 충격음을 최소화 하고 ACS Form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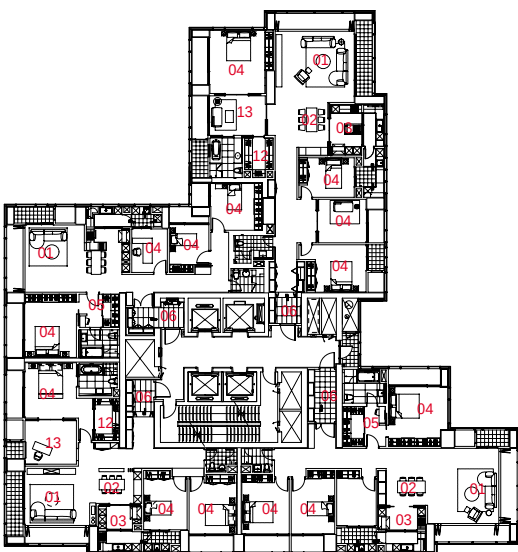
4Days Cycle을 실현하고 Unit Type의 Curtain Wall설치로 미려한 외관을 만들어 내었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아간경관조명을 고려한 입면계획으로 건물의 인지성을 확보하고 파라펫과 발코니, 캐노피 등에 Edge Light설치로 View Point를 시각 디자인으로 차별화 하여 상징성을 표현 하였다.

한강줄기를 굽어보는 우뚝 솟은 터
그곳에 번잡한 대도시의 일상을 닦을
넉넉한 자연의 품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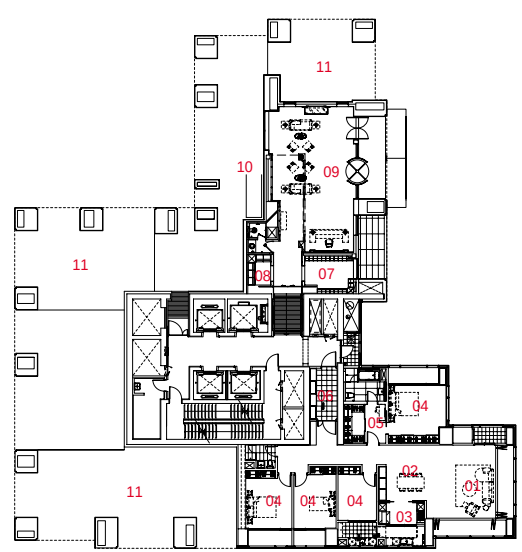
신체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평온한 곳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집
자연과 이웃을 향해 열린 집
새로운 세기의 생활을 담는 데 모자람이 없는
그런 집을 그려본다. ㉮





101동 3~40층 평면도

- 01. 거실
- 02. 식당
- 03. 주방
- 04. 침실
- 05. 파우더실
- 06. 현관
- 07. 우편물수취함실
- 08. 택배보관실
- 09. 로비
- 10. 자전거보관실
- 11. 피로티
- 12. 드레스실
- 13. 서재



101동 1층 평면도

본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KT 여의도 빌딩

KT-Telecommunication Center, Youido

설 계 자 | (주)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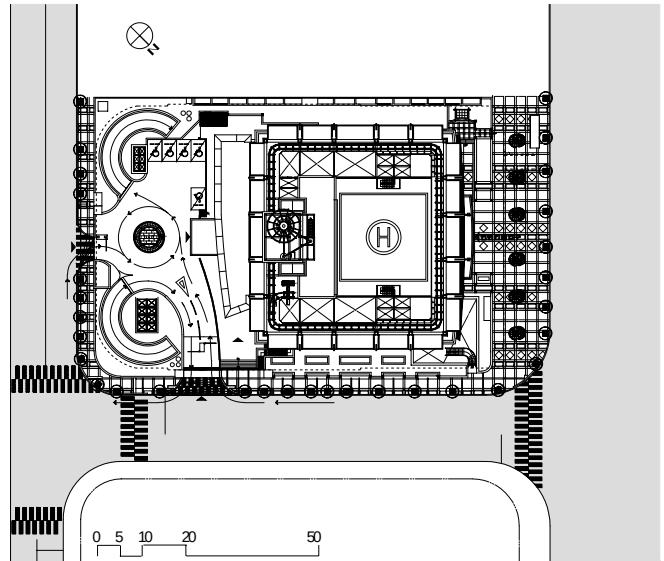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동원이엔씨

건 축 주 | (주)케이티



건축개요

위 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4번지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보호지구, 1종집단미관지구
주요 용도	업무시설, 공공용(통신시설, 근생시설)
대지면적	6,615.00㎡
건축면적	2,653.11㎡
연면적	65,138.48㎡
건폐율	39.96%
용적률	676.90%
규모	지하5층, 지상21층, 옥탑1층
외부 마감	유리커튼월, THK30화강석, AL 스위트
주차대수	250대
설계담당	이문제, 이재영, 주영환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KT여의도 빌딩은 기존의 국가 보안시설이었던 한 국통신시설의 폐쇄적인 전하국 시대를 접고, 21C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발맞춰나가는 KT 의 첨단네트워크 이미지를 대표하는 최초의 건축 물이다.

도심(강북)과 강서를 잇는 여의도 중심축인 여의도 공원이란 전면에 위치한 이 부지는 북서쪽으로 시 민공원이 조성되어 매우 양호한 조망이 형성 되며, 동남쪽에 대단위 주거 단지(광장APT)가 위치해있 어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각적인 폐쇄 가 필요 하였다. 차량 이용시 광장로(폭79.5m)를 통해 측면도로를 통한 후면 진입이 가능해 영등포 와 마포 양측에서 접근이 모두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전면에서 Bus 및 Taxi 승강장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건물의 후면 접근이 용 이하여 Main 로비를 후면에 배치하였다.

일부는 전화국으로, 일부는 임대사업에 쓰이는 이 건물은 Top Down 시공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저층부(1층~3층)는 아트리움 로비와 대강당으로 개방감과 접근의 용이성을 주었다. 그리고 4, 5, 6 층은 KT의 전화국으로 7층부터 19층까지는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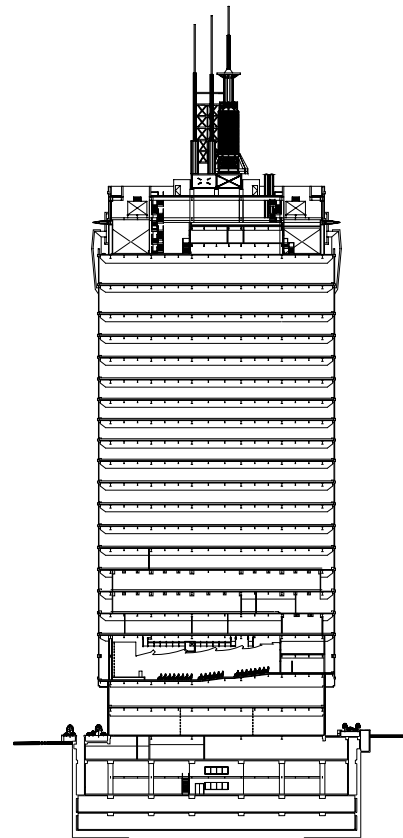
사무실, 20층은 스카이라운지(뷔페식당)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기존층들은 KT 본연의 원활한 네트 워크 System에 맞게 Open Office-landscaping 개념을 도입하여 장 스펀으로 계획하여 Flexible 한 평면을 갖게 되고, 채광보다는 조망을 중시하 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여의도공원 쪽을 향해 실 내를 전면배치하고, 내부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의 극대화와 외부에서의 시각적 폐쇄성을 최소화시키 기 위해 All Glass Curtain Wall로 구성하였다. 이 러한 Void한 매스는 Head의 Solid한 매스와 대 비 되며 이로 인한 시각적 분리를 막기 위해 수직 적 장식요소를 사용하여 상하부의 연결성과 조형 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반면, 후면부에 Core 배치 를 하여 광장 APT와의 시선교환을 직간접적으로 막으면서 최근 고층건물이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반감의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단면 계획으로는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적용이 가능하도록 4.5m의 층고를 확보 하였고, KT의 기능에 부합 되도록 각 실에 Access Floor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규모 인원의 비상 이동시 피난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강당(3층), 스카이라운지(20층) 등을 피난층에

근접 배치하였고, 설비계획상 에너지 절약과 쾌적 한 실내 환경을 위해 바닥 취출 공조 방식을 채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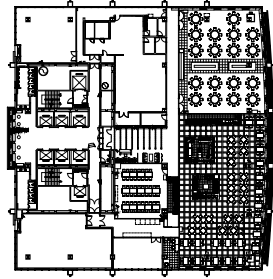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시공 전 단계에서 알루미늄 창호의 전문가와 관계인들의 연구 개발에 따라 Mock-up Test를 실시한 프로젝트로서 일반 고층 빌딩 에서 여태까지 채택되어 왔던 착색유리와는 다른 맑은 유리(clear glass)를 사용하여 KT 본연의 투 명 이미지를 강조하고, 인근 건물에 일반반사로 인한 불쾌감과 현휘를 거의 없앴으며, 태양 입사 각에 따른 루버 사용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1.7m 의 알루미늄 태양광 차단 루버는 유리창에 그림자 를 드리우면서 직사광을 막아주어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형성하고, 강력한 수평적 디자인요소로 작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치게 평활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줄이고자 하였다.

건축가의 과도한 엘리트코드(Elite-code) 주장과 그로인해 빚어질 건축가의 대착각(Architect fallacy)을 경계하며, 이 건물은 도시의 건축들과 그 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축으로써 여의도 의 바람직한 Land-mark가 되어주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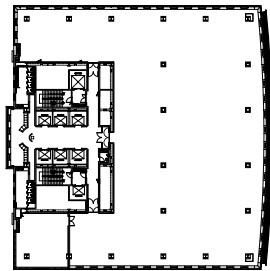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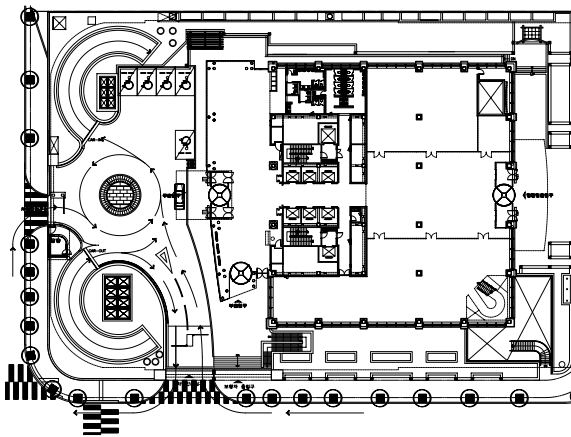




20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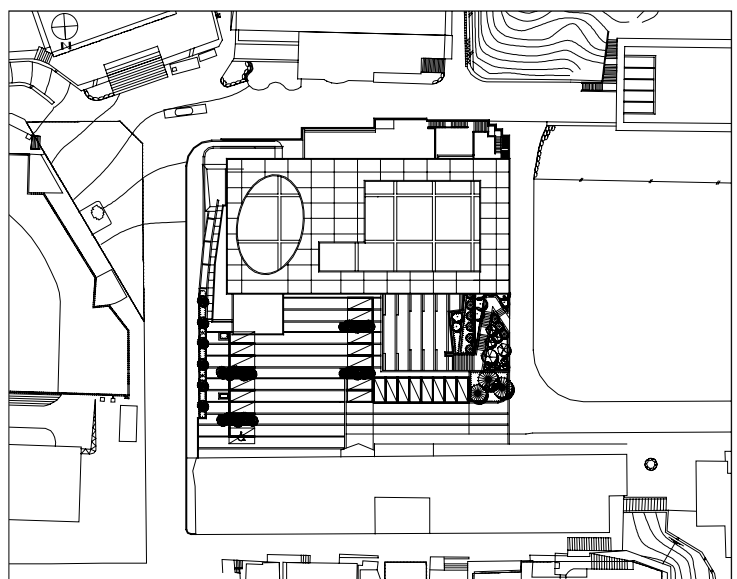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도서관 Library of HanSung University

설 계 자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시 공 자 | 삼성물산(주)
건 축 주 | 학교법인 한성학원
(건축사지 0312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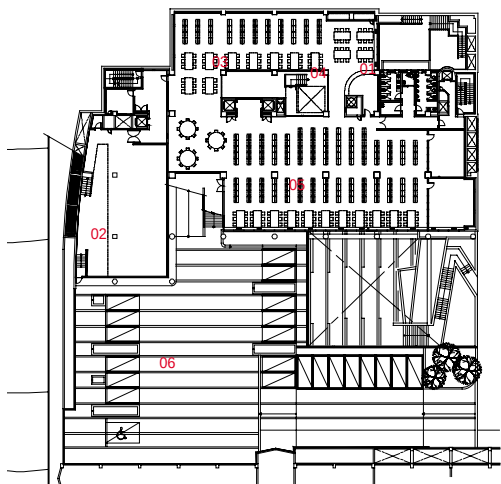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번지 외 19필지
지역 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8,864.40㎡
건축면적	1,543.66㎡
연면적	14,066.6㎡
건폐율	26.42%
용적률	118.4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 지상6층
외부 마감	THK24투명복층유리, THK30화강석버너미감, 노출콘크리트
설계 담당	오섬훈(총괄), 한승호, 김범준, 한준일, 이재훈, 김지형, 권시형, 김형수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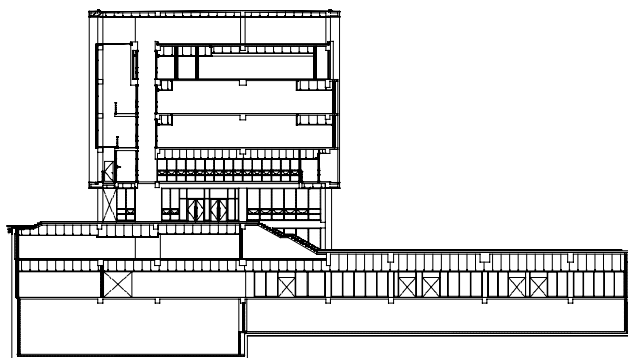


배치도

- 01_선큰정원
- 02_박물관
- 03_과제도서실
- 04_학위논문실
- 05_연속간행물실
- 06_광장



1층평면도



종단면도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 사옥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Kwangwhamun Office

설 계 자 | (주)정람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철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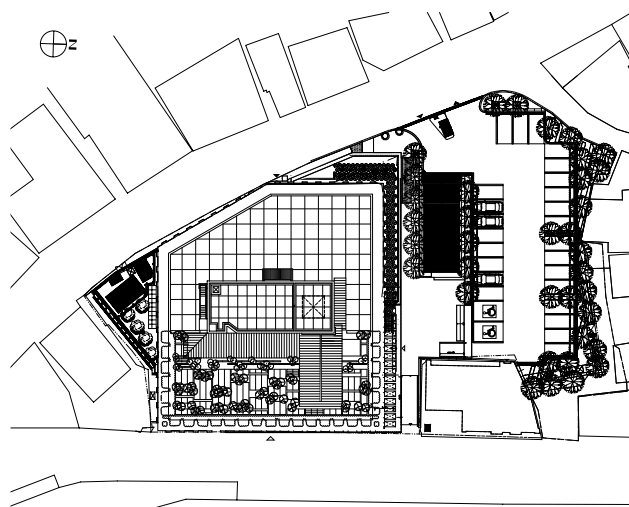
건 축 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건축사지 6405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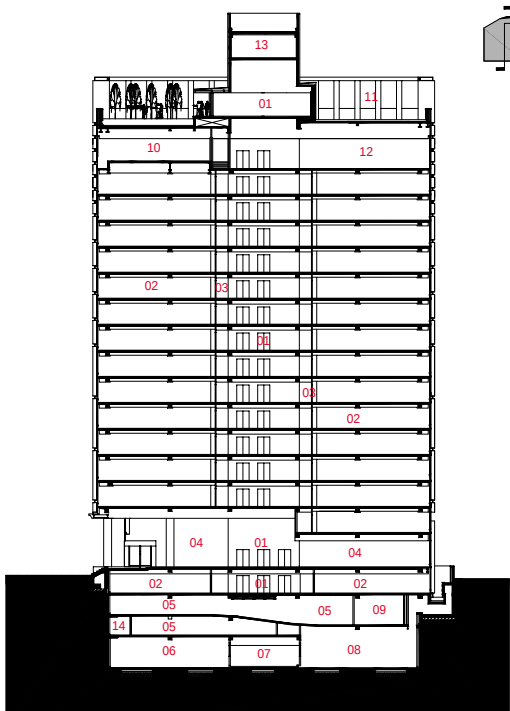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91-1외 13필지
지 역 지 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재개발사업지구
주 요 용 도	업무시설
대 지 면 적	3,015.8㎡
건 축 면 적	1,239.28
연 면 적	23,557.06㎡
건 폐 율	41.09%
용 적 륜	648.0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4층, 지상18층
외 부 마 감	THK30후동석베너구리, THK110코블스톤갈기
설 계 담 당	박승홍(총괄), 김진구, 한홍섭, 이상포, 명재범, 심상보, 이형주, 전신영, 김현숙, 김중범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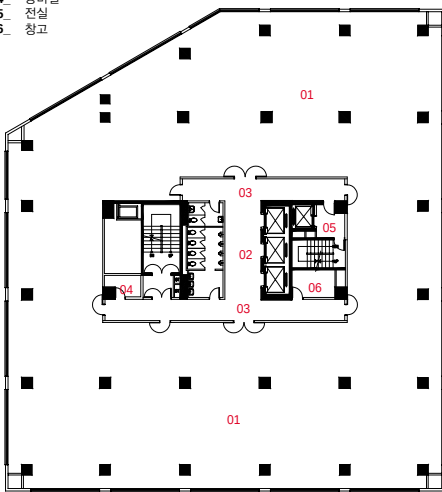


- 01_ ELEV홀
- 02_ 사무실
- 03_ 복도
- 04_ 로비
- 05_ 주차장
- 06_ 전기실
- 07_ 중앙감시실
- 08_ 기계실
- 09_ 공조실
- 10_ 강당
- 11_ 기계설비
- 12_ 직원식당
- 13_ ELEV전기실
- 14_ 창고

주단면도



- 01_ 사무실
- 02_ 홀
- 03_ 복도
- 04_ 탈바실
- 05_ 전실
- 06_ 창고



기준층 평면도



본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Yongin Shingal New millennium Apartment

설 계 자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두호

시 공 자 | 두산산업개발(주)

건 축 주 | 대한주택공사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주 요 용 도	공동주택
대 지 면 적	지구전체 50,000평
건 축 면 적	9,000평
연 면 적	전체 107,800평
건 폐 율	18%
용 적 륜	150~180%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 모	8층~25층
외부 마감	점토벽돌 및 외부수성페인트
내부 마감	바닥 - 월목마루판, 벽 - 석고보드위 실크벽지, 천정 - 석고보드위 실크천장지
설 계 담 당	박승만 본부장
공동참여자	(주)하워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중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는 5개 단지가 새천년 가로와 공원을 중심으로 하나로 엮여, 단지내 자연구릉과 조화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주택 단지이다.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주거모델과 환경친화 주택단지 조성을 모색하는 시범단지로서 국내 최초로 M/A 설계방식을 도입하였고, 사람과 풍수가 어우러진 마을"을 테마로 계획하였다.

각각의 단지는 기존의 숲과 지형을 최대한 배려해 독립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영역성을 확보하고, 산수의 전경이 단지내로 유입되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기존 수환경 체계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적 계획기법을 통한 환경친화단지를 구현하였다. 특히 새천년 공원과 연계되어 단지 전체를 관통하는 새천년기념가로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생태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단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여 걷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주거가로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이 가로에 새천년의 상징과 의미를 담고,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성격의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상징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전용보행로로써 단지내외부를 연결하고 그 린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경관 창출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개개의 단지는 단지내 레벨차를 이용한 테라스 하우스와 데크식 주차시설 등으로 좀더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단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거주자의 거주성을 고려해 일조와 채광이 양호한 남향위주의 배치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

민족의 주택계획을 위해 타워형, 판상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주동계획을 하였다.

또한 각 마을들은 차별화된 조형물과 입면계획, 조경계획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점토벽돌 사용과 아치형의 특화된 피로티 등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이웃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커뮤니티가 형성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기 다른 성격의 외부공간 계획으로 거주자의 identity와 amenity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2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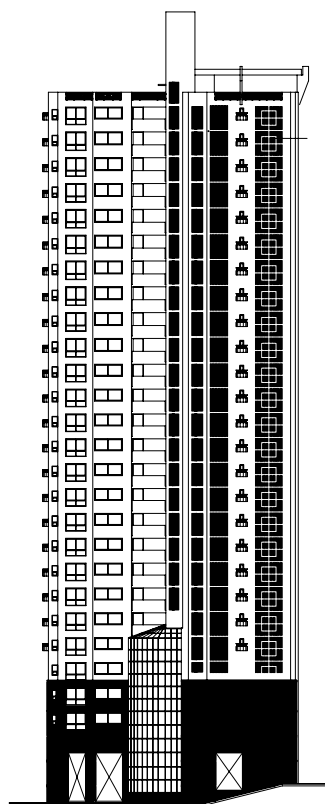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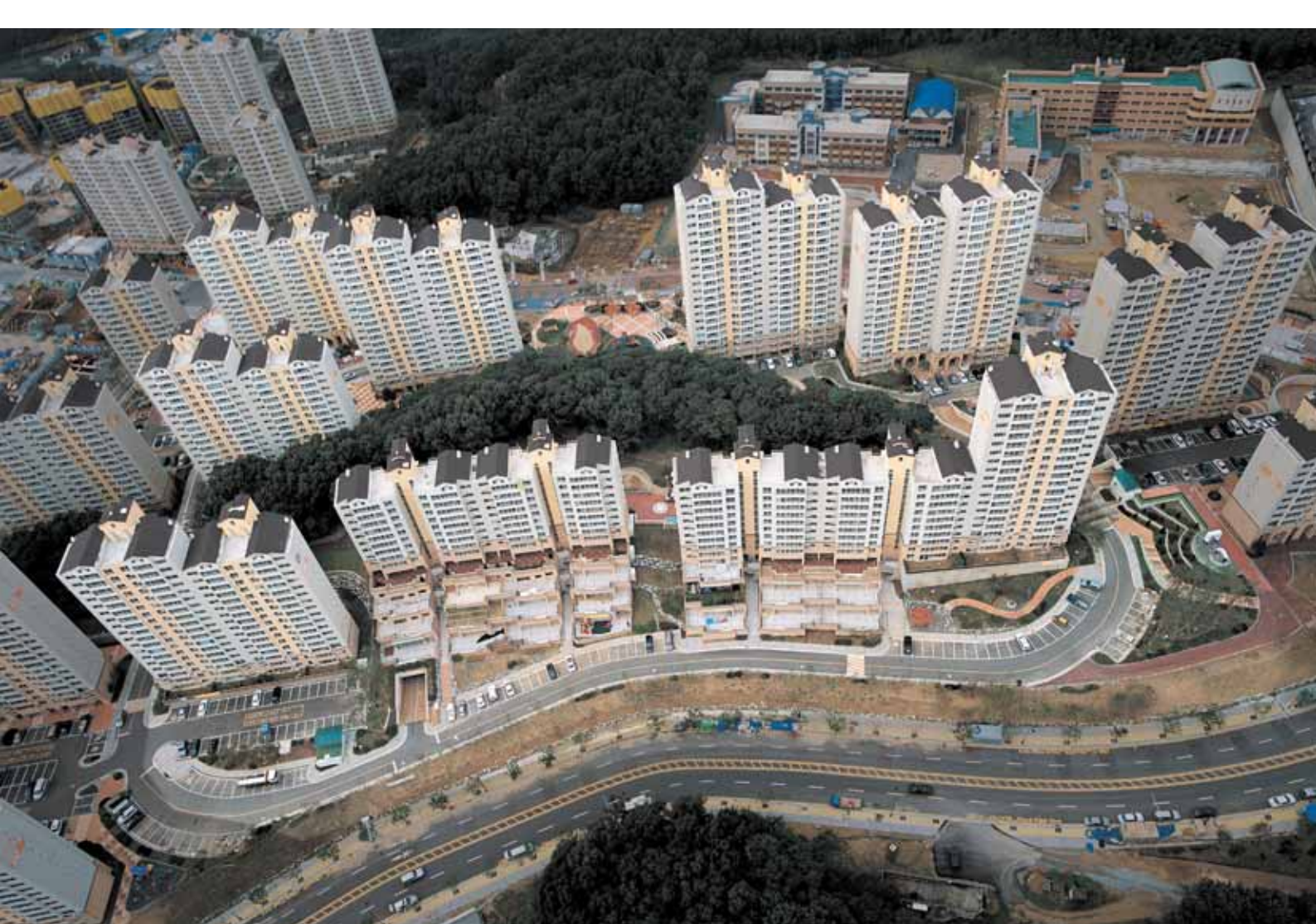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테마로 하여 통경축과 주보행축을 일치시켜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형성하였다.

4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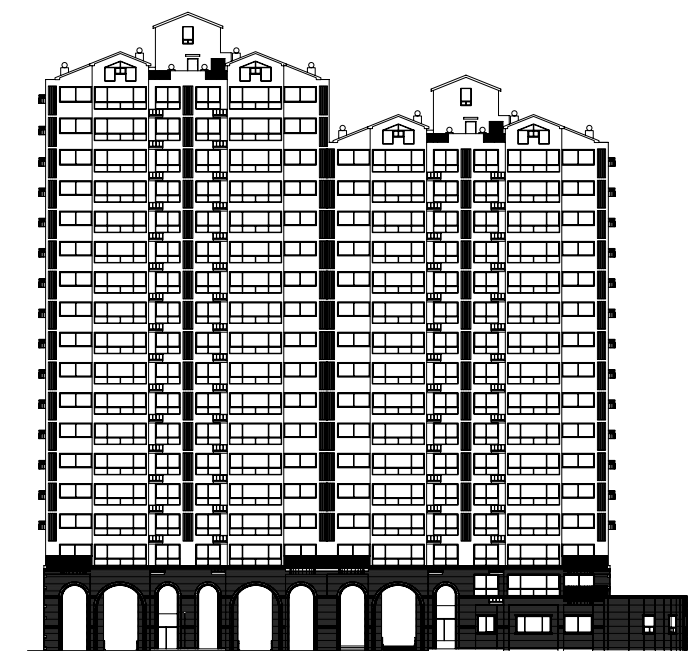
거닐고 싶은 우리 마을을 테마로 하여 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과 에코 브릿지를 조성하고 지형을 살린 테라스 하우스를 통해 산책하고 싶은 마을을 형성하였다.

5단지는

옛스런, 미래스런 우리 마을을 테마로 하여 부지형상과 지형을 고려한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여 아름다운 단지경관을 연출하고,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풍경이 있는 마을을 형성하였다. ▣



501동 배면도



401동 정면도



84m² T형 테라스



84m² 단위세대



본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연하당(煙霞堂)

Yeon Ha Dang

설 계 자 (주인) 토종합건축사사무소 방철린

시 공 자 정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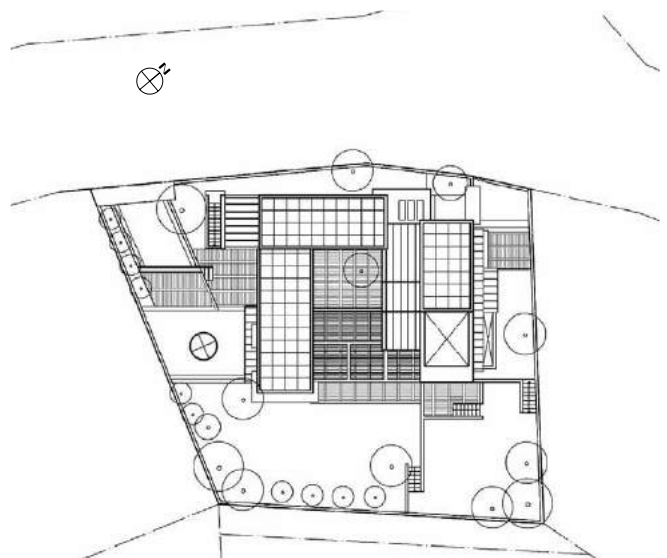
건 축 주 정순화

(건축사지 0405호 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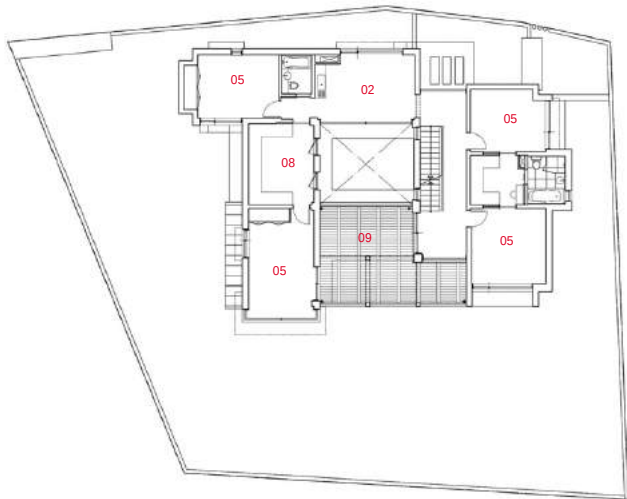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성북구성북동330-496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자연보존지구
주 요 용 도	주택
대 지 면 적	675.00㎡
건 축 면 적	190.11㎡
연 면 적	651.06㎡
건 폐 율	28.16%
용 적 륜	58.77%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 화강석 + 단열재 위 목재패널
내부 마감	석고보드2겹위 VP + 목재패널
설 계 담 당	주선영, 이명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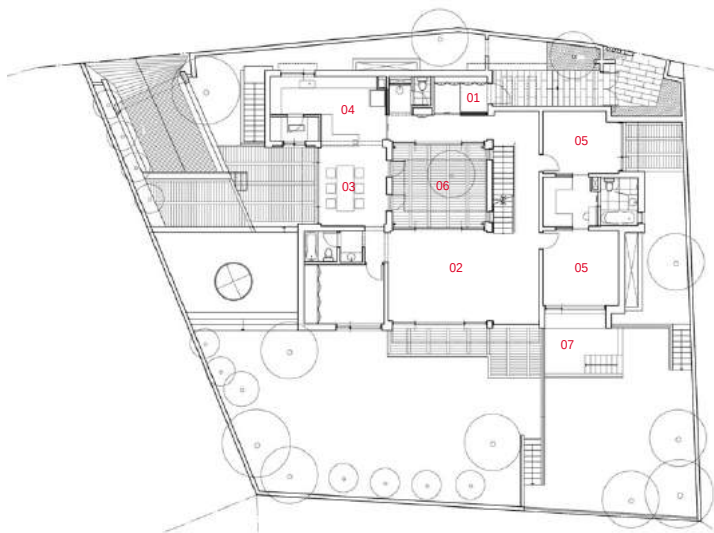
0 09 27 63

배치도



- 01 현관
- 02 거실
- 03 식당
- 04 주방
- 05 침실
- 06 화장실
- 07 선반
- 08 드레스룸
- 09 테라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본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Kwang jang 'Hyundai Home Town' 11th Apartment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유 건

시 공 자 | 현대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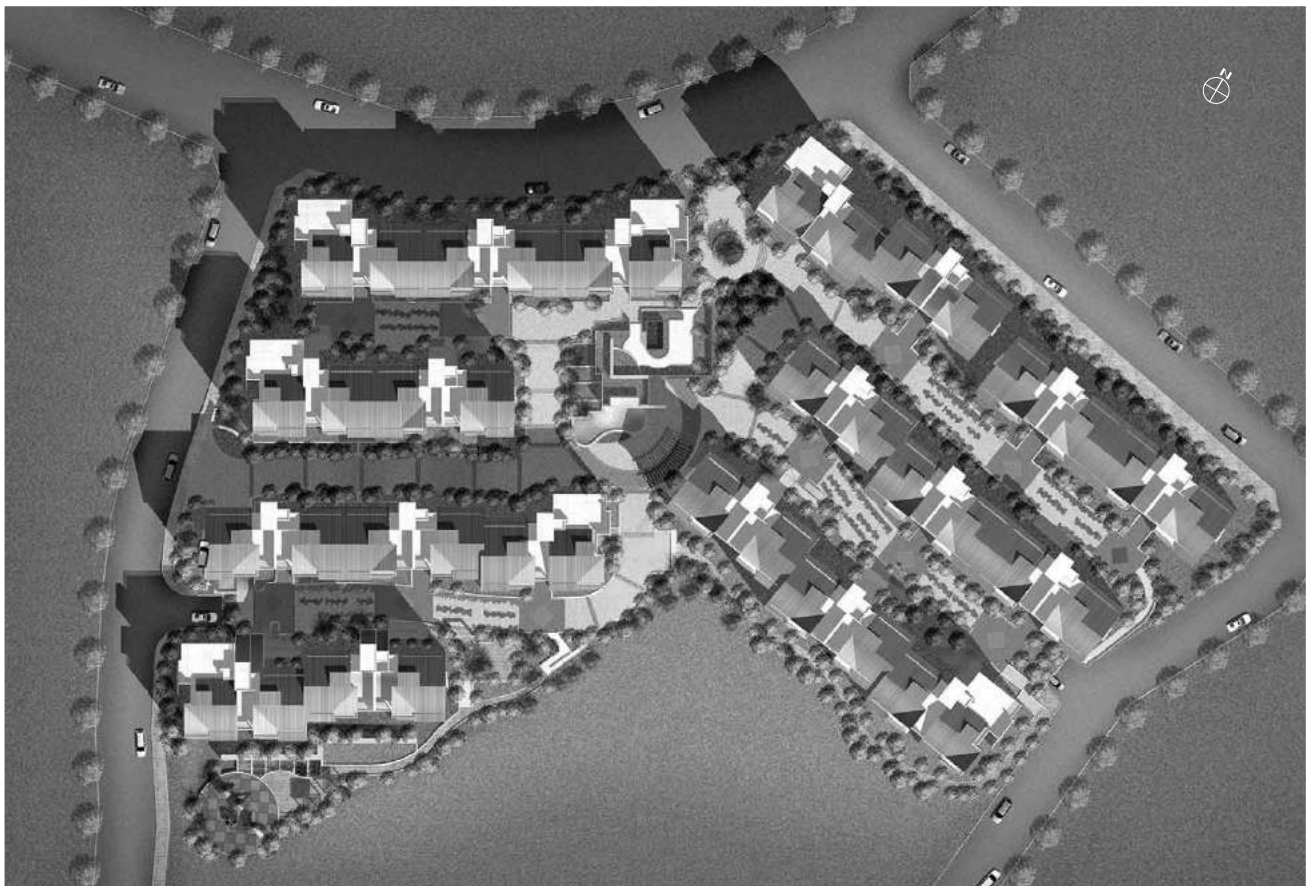
건 축 주 | 광장11차현대대지역주택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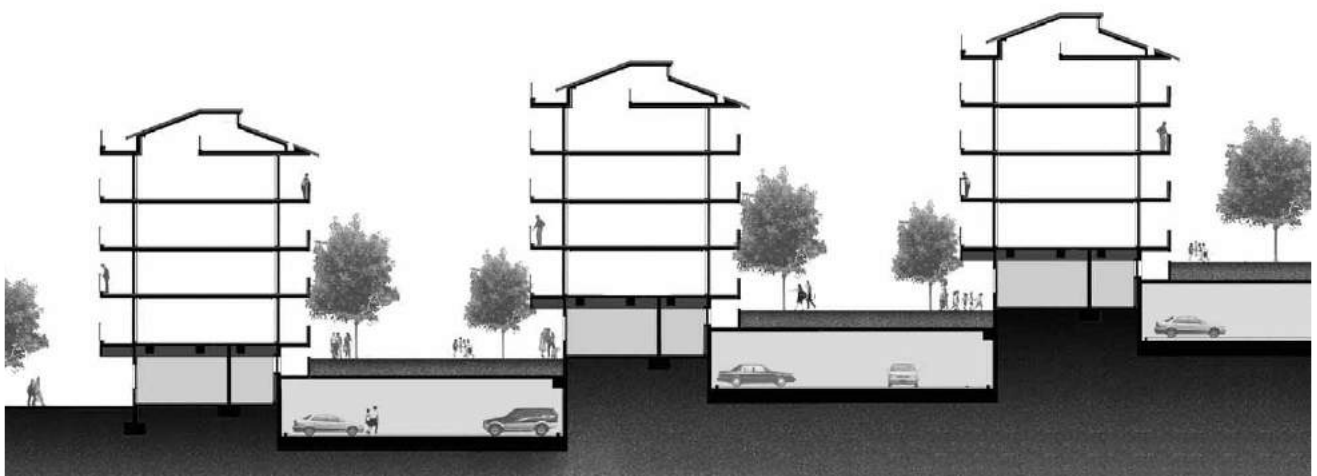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14-12번지의 10필지
주 요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대 지 면 적	16,772.20㎡
건 축 면 적	5,079.87㎡
연 면 적	27,590.14㎡
세 대	33평형 / 159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외 부 마 감	적벽돌타일 / 테라코트 / 복층유리
내 부 마 감	온돌마루 / 벽지마감
구 조	(주)신원구조
전 기	(주)한국ET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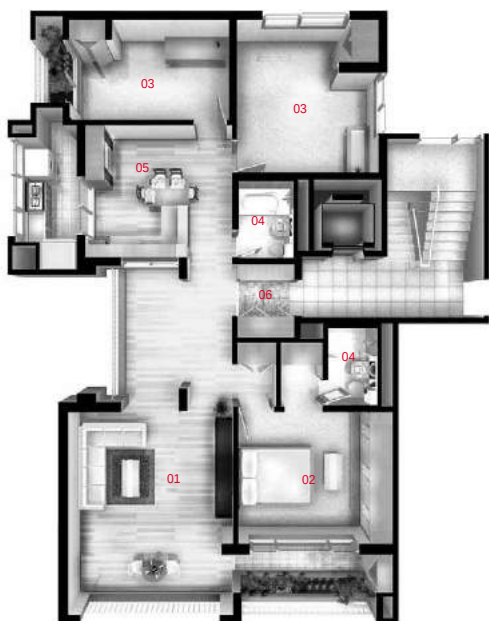
북측으로 위커힐길과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부정형 형태의 경사지로 오랫동안 공치지구로 지정된 저층개발 가능 부지이다. 저층주거의 보다 인간중심적 환경조성을 목표로 주민간의 유기적 관계를 증진하고 단지내 질서를 정립하고자, 단지중앙에 출입구와 연결된 입주자 COMMUNITY 공간을 구성하고, 각 건물 단위의 중심 공간과 순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자연발생적 주거지역과 같은 동선과 공간체계가 형성되도록 하여 주민 상호간 교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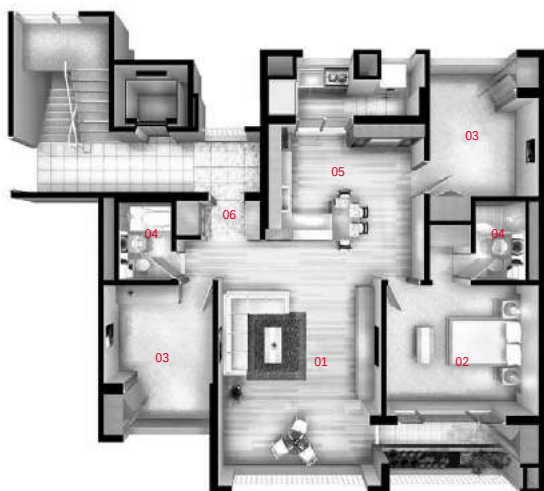


주단면도



33평 B형

- 01_ 거실
- 02_ 안방
- 03_ 침실
- 04_ 욕실
- 05_ 식당 / 주방
- 06_ 현관



33평 A형

단위세대 평면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주)세정서울사옥 Sejung Building

설 계 자 | (주)건축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이영수

시 공 자 | (주)세정건설

건 축 주 | (주)세정

(건축사지 0409호 계제)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2-1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
대 지 면 적	1,773.60㎡
건 축 면 적	802.25㎡
연 면 적	8,835.15㎡
건 폐 율	45.23%
용 적 륜	291.5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3층, 지상10층
추 차 대 수	79대
외 부 마감	TECPANEL, 커튼월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금강휴게소

Geungang Service Area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인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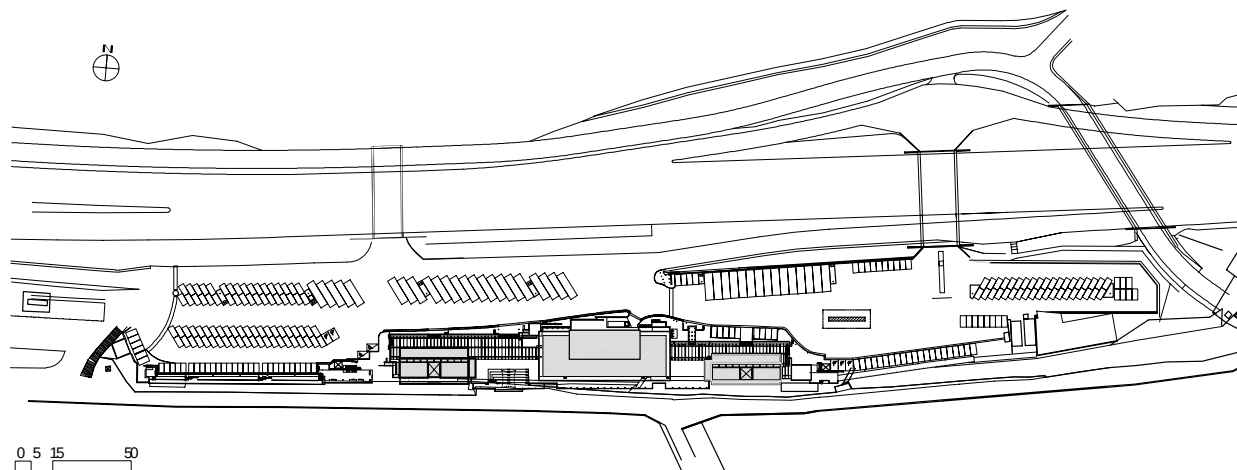
시 공 자 | 케이티씨건설(주)

건 축 주 | (주)금강휴게소

(건축사지 0407호 게재)

건축개요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항리 576
지 역 지 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대 지 면 적	8,793.00㎡
건 축 면 적	2,448.96㎡
연 면 적	5,484.96㎡
건 폐 율	27.85%
용 적 륜	45.9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 부 마 감	노출콘크리트, 방부합판, 목재루버, T24 북층유리
내 부 마 감	마천석, 폴리싱타일, 무늬목, 비닐계 페인트
구 조	바른구조 엔지니어링
설 비	미도설비
전 기	한신전기
조 명	DS라이팅
설 계 담 당	장명희(총괄), 김응창, 이희준, 안호섭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서울대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Seoul National University Multi-Media Lecture Hall building for Science & Engineering Department

설 계 자 | (주)다올건축사사무소 신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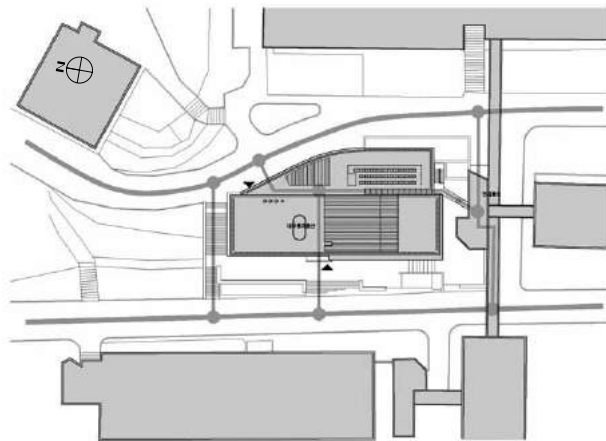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태광건설

건 축 주 |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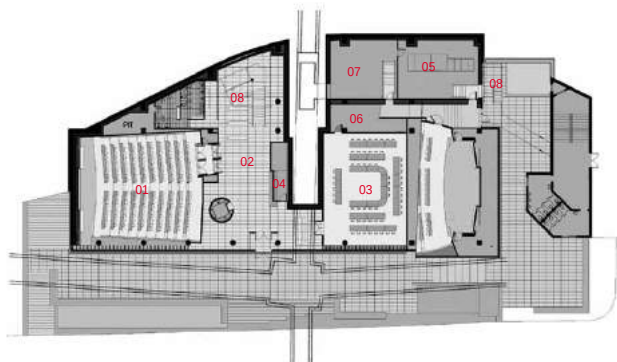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8-1번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내
대 지 면 적	1,185.85㎡
연 면 적	4,135.43㎡
구 조	지상 4층
규 모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 부 마 감	THK24 투명복층유리, THK60 압출성형시멘트패널, THK0.7 아연판, THK30 마천석물갈기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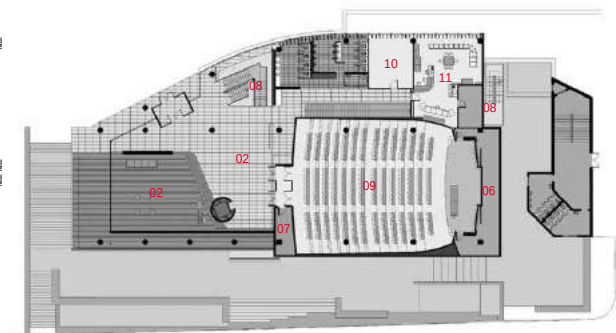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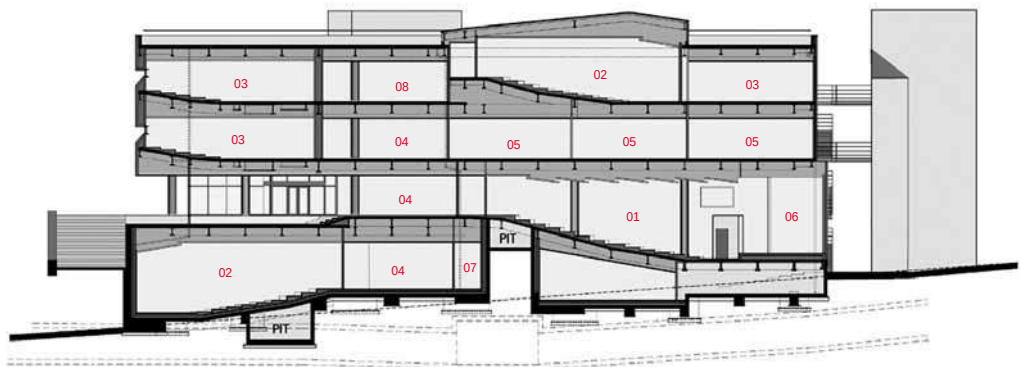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중형강의실
- 02 로비
- 03 세미나실
- 04 당직실
- 05 전기실
- 06 준비실
- 07 창고
- 08 계단
- 09 대형강의실
- 10 강사대기실
- 11 조정실



2층 평면도

- 01 대형강의실
- 02 중형강의실
- 03 소형강의실
- 04 로비
- 05 세미나
- 06 준비실
- 07 당직실
- 08 복도



단면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Postech Digital Library

설 계 자 | (주)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심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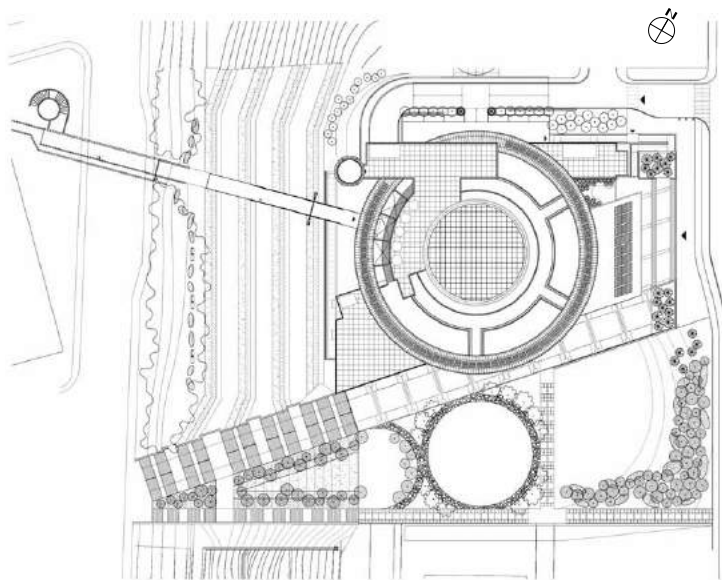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포스코건설

건 축 주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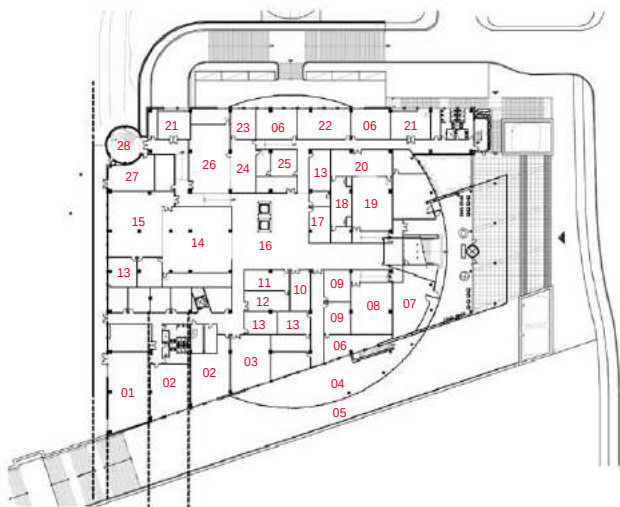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지곡동 166-20번지 외 236필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보존지구
주 요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 지 면 적	1,587,836㎡
건 축 면 적	5,590,24㎡
연 면 적	24,982,04㎡
건 폐 율	0.35%
용 적 륜	1.38%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외 부 마 감	THK24컬러복층유리, THK30 화강석 고운다듬(고흥석)
내 부 마 감	(바닥/벽/천정) 로비: 대리석/대리석/석고보드 위비닐페인트 열람실: 카펫타일/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흡음무늬텍스 세미나실: 카펫타일/흡음패널, SUS/석고보드 위비닐페인트 카페테리아: 목재마루/유리, 비닐페인트/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설 계 담 당	박경수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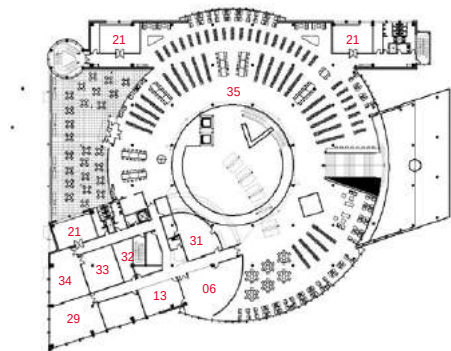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 | | | |
|--------------|--------------|--------------|
| 01_ 전기실 | 13_ 회의실 | 25_ 통신실 |
| 02_ 연구정보센터 | 14_ 중앙전산실 | 26_ 교환기실 |
| 03_ 전산시스템개발실 | 15_ 전산운영실 | 27_ UPS실 |
| 04_ 자료편집실 | 16_ 홀 | 28_ 계단실 |
| 05_ 센터장실 | 17_ 전산장비실 | 29_ 프로젝트 지원실 |
| 06_ 사무실 | 18_ 멀티미디어보존실 | 30_ 원장실 |
| 07_ 기념자료실 | 19_ 스튜디오 | 31_ 열람지원실 |
| 08_ LAB실 | 20_ 편집실 | 32_ 휴게실 |
| 09_ 연구원실 | 21_ 공조실 | 33_ DL서버실 |
| 10_ PC 창고 | 22_ 특수연구정보센터 | 34_ DL개발실 |
| 11_ 전산유지보수실 | 23_ 요급전산실 | 35_ 도서실 |
| 12_ 창고 | 24_ 회선실험실 |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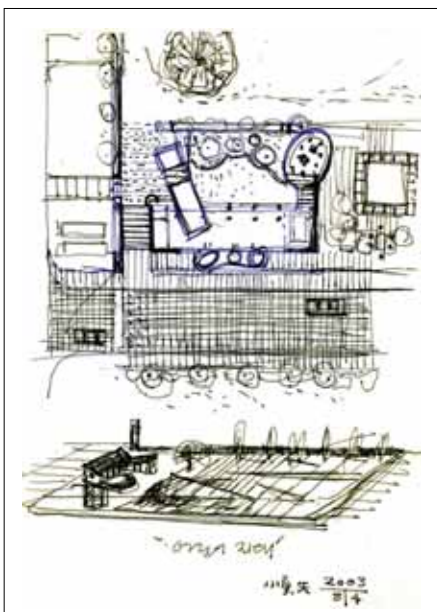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순천 어린이도서관 For Children Library

설 계 자 | (주)웅건축사사무소 김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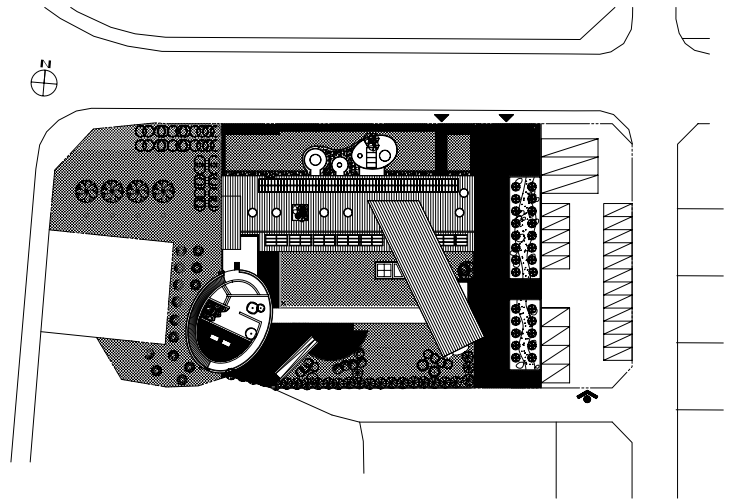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유탐 ENG

건 축 주 | (재)책읽는 사회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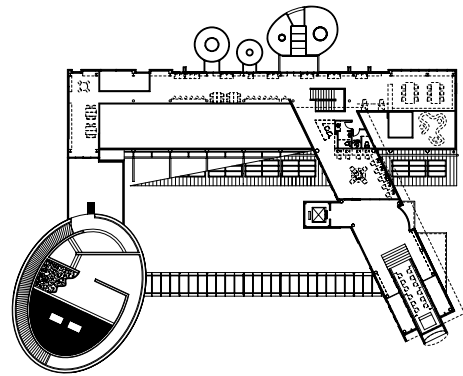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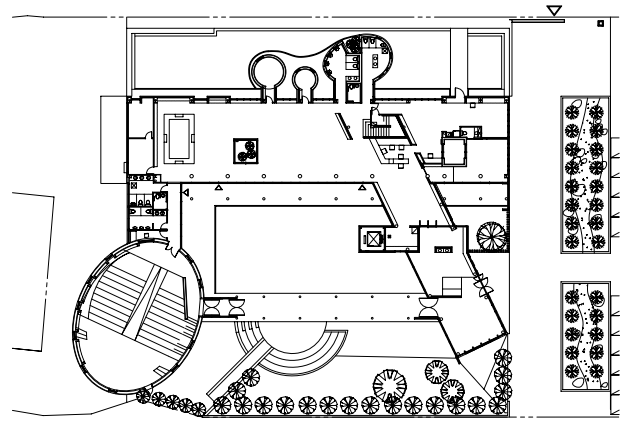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지역 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 용도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 시설
대지면적	4,204.4㎡
건축면적	966.43㎡
연면적	1,304.31㎡
건폐율	22.99%
용적률	31.02%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2층
외부 마감	홍송 및 드라이버트
내부 마감	수성페인트 및 Fabric
설계 담당	윤여갑, 김현숙, 최갑재연, 이여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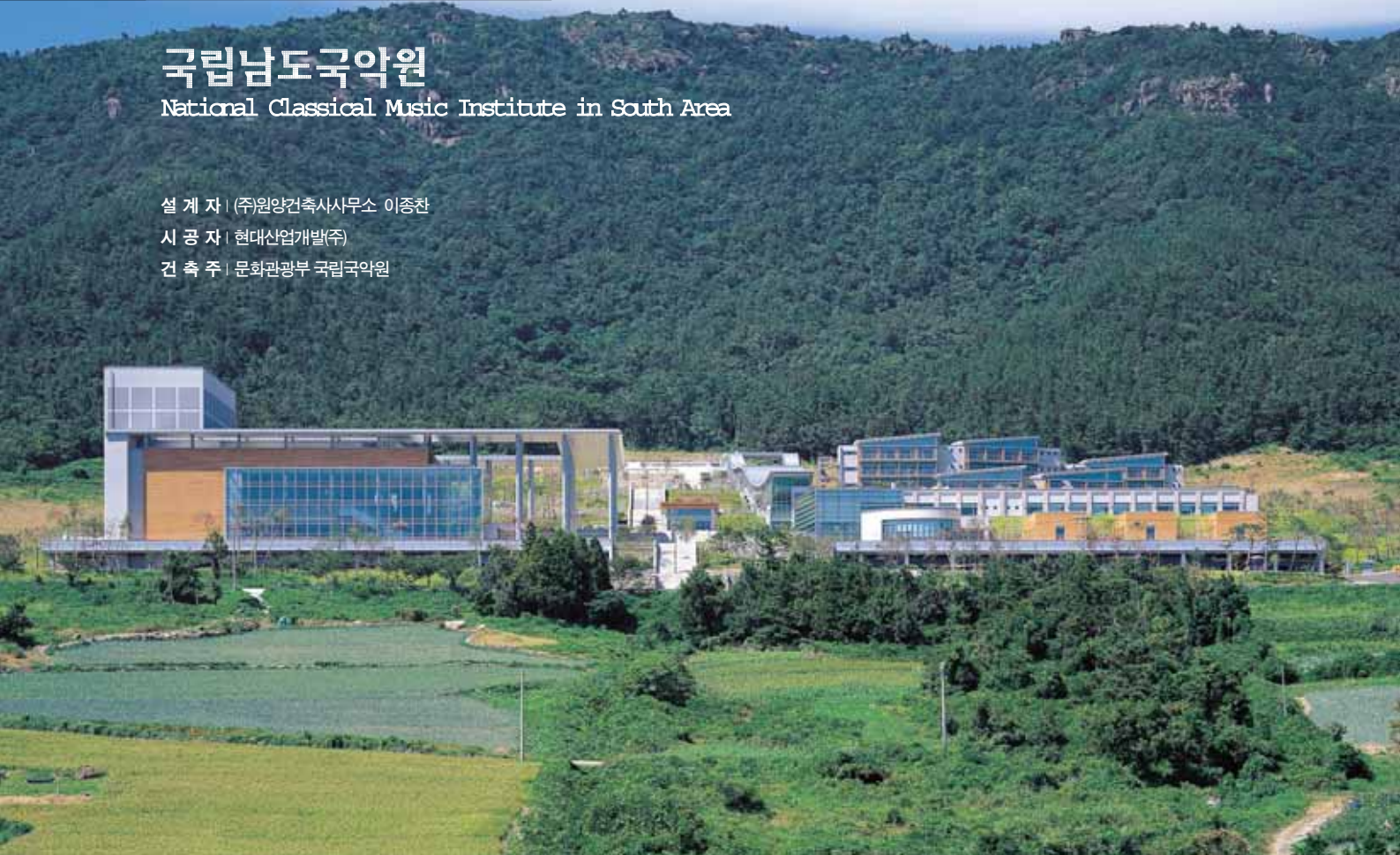
국립남도국악원

National Classical Music Institute in South Area

설 계 자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종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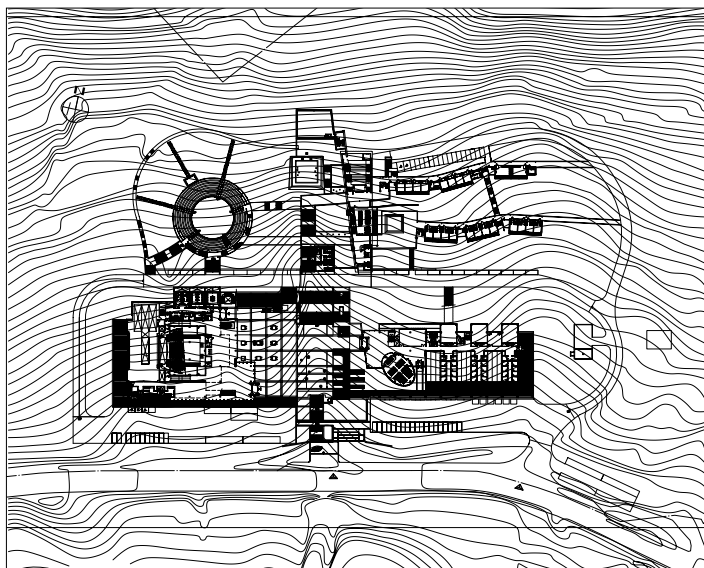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주)

건 축 주 |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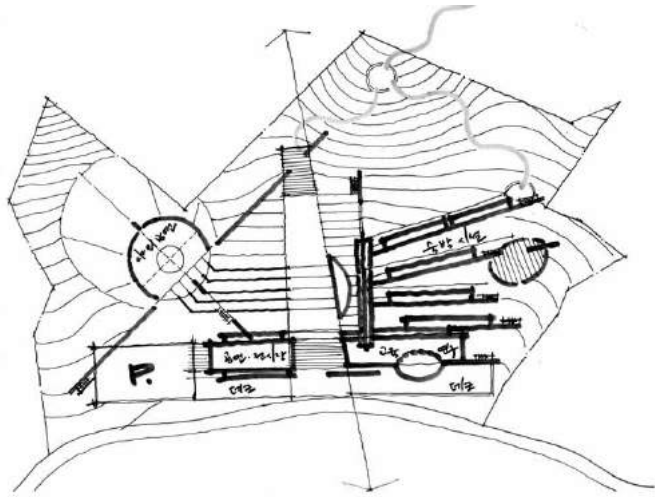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산50번지 일대
지 역 지 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주 요 용 도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수원), 관람집회시설(공연장)
대 지 면 적	113,251㎡
건 축 면 적	8,899.63㎡
연 면 적	9,540.52㎡
건 폐 율	7.86%
용 적 륜	7.36%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규 모	공연장동(지하1층 지상3층), 교육연구 및 관리동(지하1층 지상2층), 숙박동(지상3층)
주차 대 수	168대
외 부 마 감	화강석 + 목재 + THK24컬러 북층유리
내 부 마 감	바닥 (목재 후로링) 벽 (THK50 폴리에스터 흡음재/FABRIC 마감) 천장 (목재무늬 쉬트)
설 계 담 당	성진용, 정갑열, 김영진, 김경목, 김태명, 박찬정, 박주인, 심주연, 장명석, 손기선, 정병용, 김규리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전체 1층 평면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충청대학 ART HALL

Chung cheong College Art Hall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유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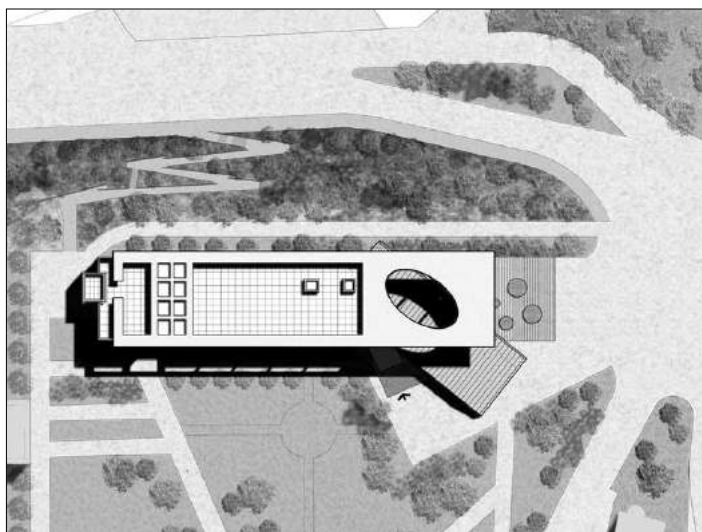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신라종합건설

건 축 주 | 학교법인 충청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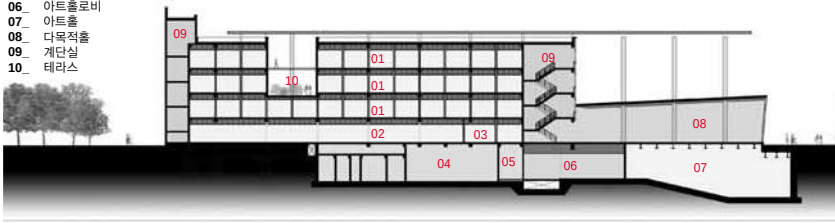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13번지외 6필지
주 요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 지 면 적	137,524.00㎡
건 축 면 적	1,727.48㎡
연 면 적	5,790.7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 부 마 감	적벽돌치장쌓기/티타늄강판/THK24컬러복층유리
내 부 마 감	화강석/비닐타일/석고보드위비닐페인트
실 내	(주)중앙디자인
구 조	(주)동양구조
전 기	(주)원이엔씨
기 계	(주)미도설비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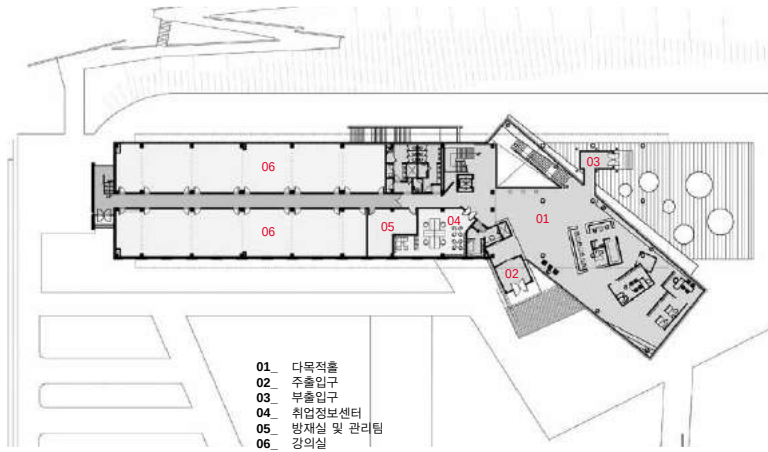


배치도

- 01 교수연구실
- 02 강의실
- 03 취업정보센터
- 04 기계실
- 05 방재실
- 06 아트홀로비
- 07 아트홀
- 08 다목적홀
- 09 계단실
- 10 테라스



횡단면도



1층 평면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인사동 덕원갤러리 Dukwon Gallery

설 계 차 |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심칠 권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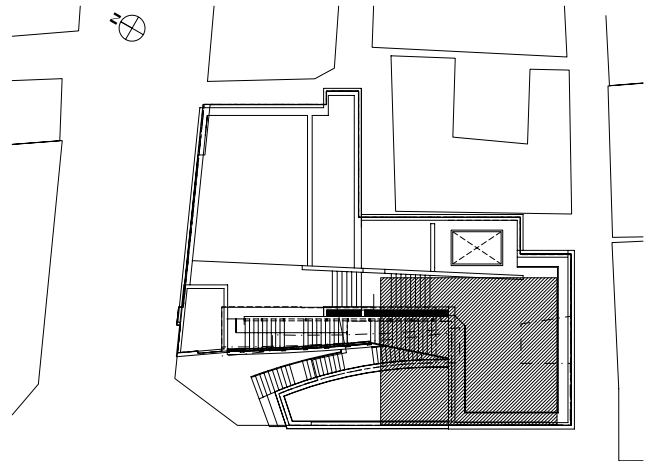
시 공 자 | 유평건설(주)

건 축 주 | (주)덕원문화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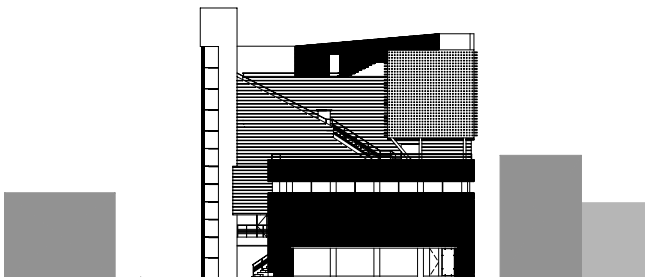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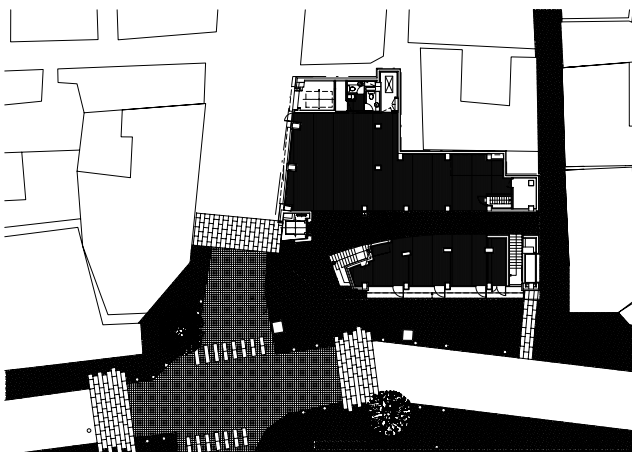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문화지구
주요 용도	전시장/상업시설
대지면적	418.60㎡
건축면적	348.95㎡
연면적	1,633.07㎡
건폐율	83.36%
용적률	369.2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 마감	벽: 한식기와쌓기(전면), 적삼목커튼월(전면), 드라이비트뿔칠(후면) 바닥: 바닥전돌(진입부), 고흥석 버너구이, 말바우데크
내부 마감	벽: 합판 위 수성페인트 천정: 파라이트 뿔칠(전시장),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바닥: 중보행용 온돌마루새구성에폭시 코팅, 도장(전시장), 우드타일
주요 설비	전망엘리베이터, 화물엘리베이터
설계 담당	이경락, 양근영, 윤현아, 이미영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정면도



0 2 5 10

1층 평면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SBS 신사옥

SBS New H.Q

설 계 자 | (주)일건씨앤씨건축사무소 최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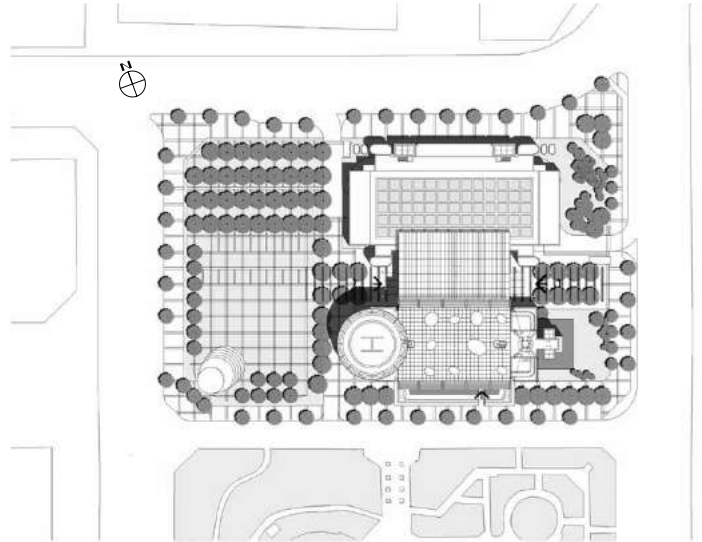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태영

건 축 주 | (주)SBS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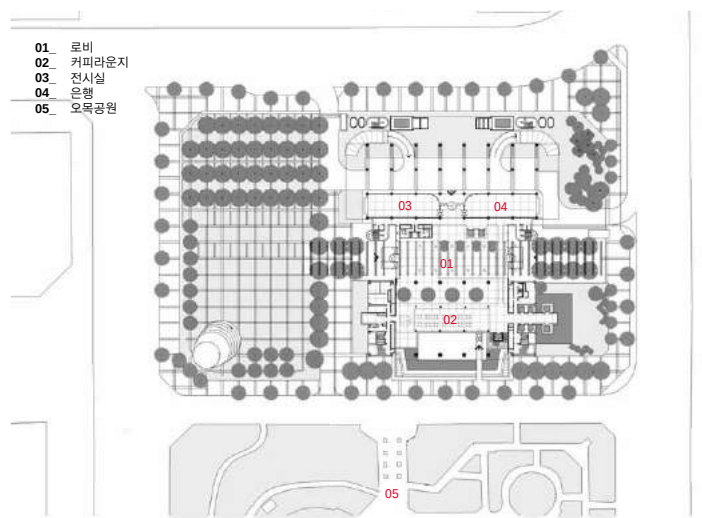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미관1종, 도시설계지구
주요 용도	공공용시설(방송국)
대지면적	13,114.9㎡
연면적	62,661.42㎡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모	지상 22층, 지하 4층
구조	(주)전우구조
토목	(주)지오그룹 ENG
기계	(주)한일 MEC
전기	(주)협인
설계담당	정동명
사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단면도



1층 평면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논산썬별 요양원, 유치원

St. Paul. Asylum for the aged, Kindergarten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강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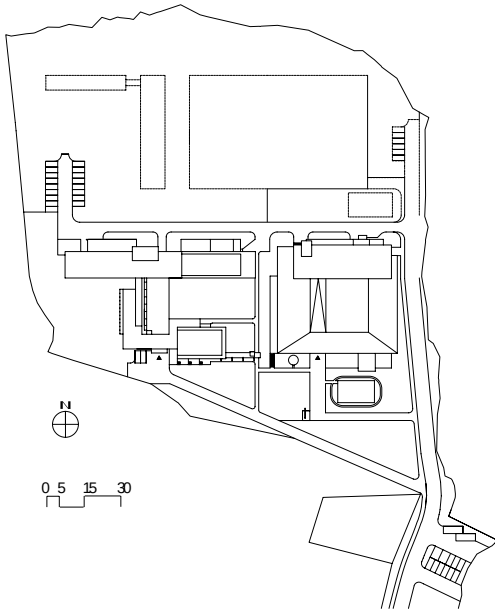
시 공 자 | (주)오지아이건설

건 축 주 | 재단법인 천주교 썬별수도원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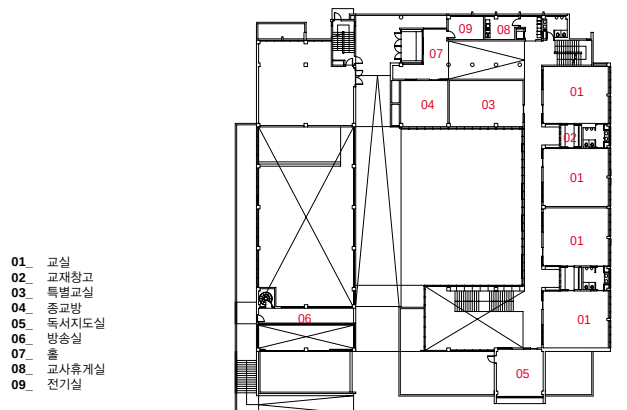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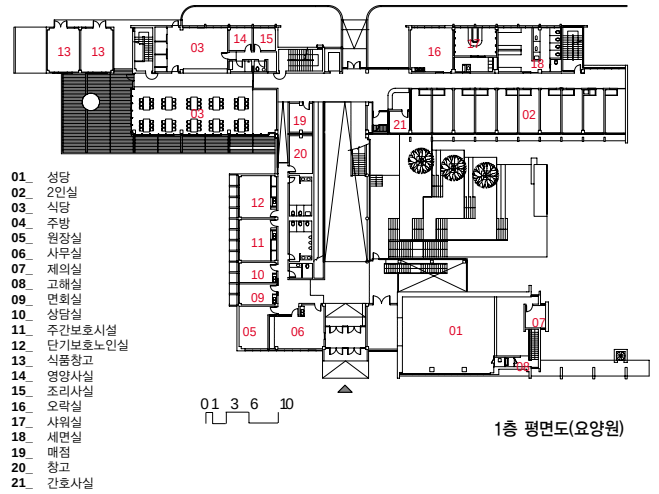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3외4필지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5,709㎡
건축면적	4,005㎡
연 면 적	8,648㎡
건 폐 율	15.6%
용 적 륜	30.23%
사 진	건축사무소제공



배치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주한이란외교공화국 대사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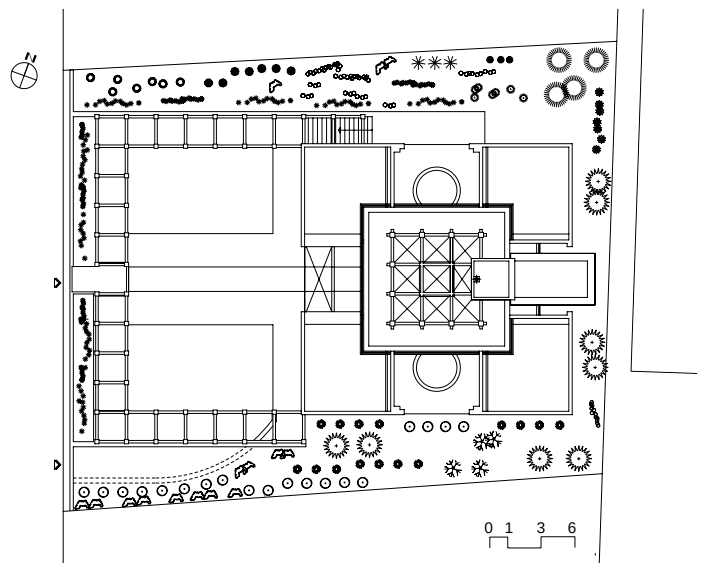
Iranian Ambassador's Residence, Seoul

설 계 자 (주)에이비드건축사사무소 한현철
시 공 자 LG건설주식회사
건 축 주 주한이란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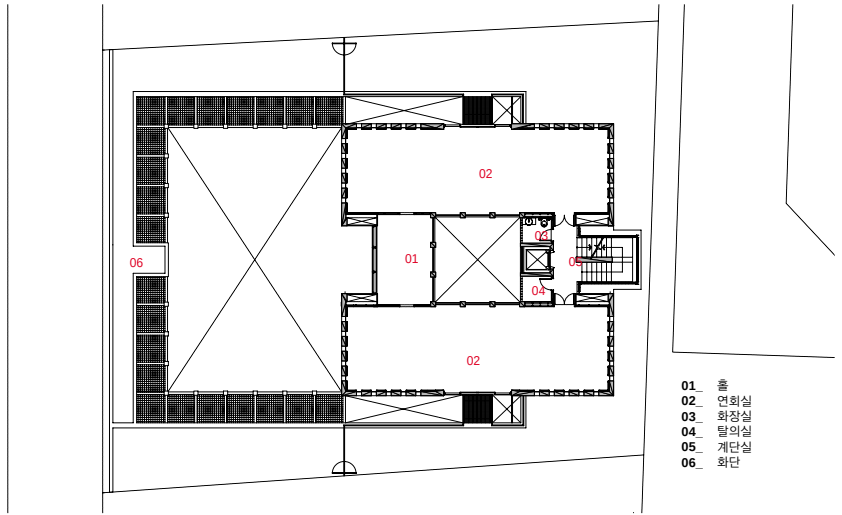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26
대 지 면 적 830m²
건 축 면 적 244.06m²
연 면 적 1,541.43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3층, 지상3층
외 부 마 감 노출콘크리트, 유리블럭, 시스템창호 T18 맑은복층유리, T24 컬러복층유리
내 부 마 감 바닥: 화강석, 대리석, T15우드플로링
벽: 노출콘크리트 위 무늬톤수성페인트, T50 압출성형시멘트판, 석고판위 비닐수성페인트, 유리블럭
천장: 석고판위 비닐수성페인트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1층 평면도



경기테크노파크

Gyeonggi Technopark

설 계 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시 공 자 | (주)동양고속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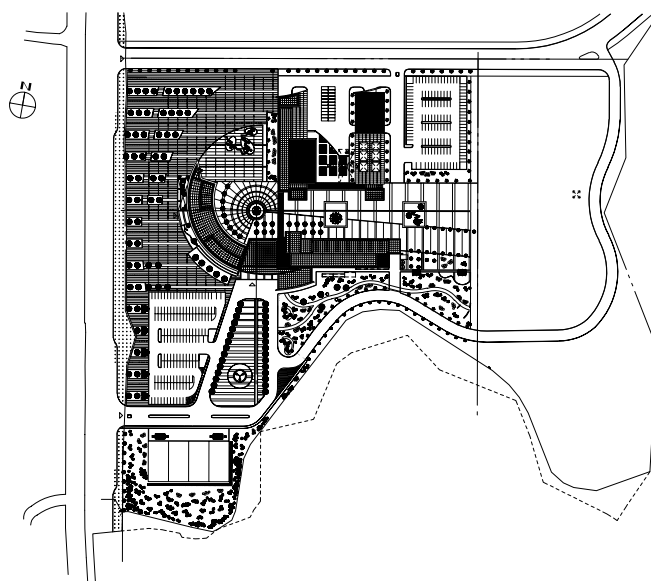
건 축 주 | (재)경기테크노파크

(건축사지 0306호 계제)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안산시시동 1271-1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99,176㎡
건축면적	8,795.15㎡
연 면 적	40,660.47㎡
건 폐 율	8.87%
용 적 륜	41.00%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12층
주차대수	총 162대(장애차 4대 포함)
외부 마감	외벽: 메탈패널 창호: THK24 컬러복층유리
설 계 담 당	정영균(총괄), 정재호, 심재춘, 윤정두, 배해경, 최지인, 함은광, 백봉주, 장은성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조린헌 Jorinhun

설 계 자 |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김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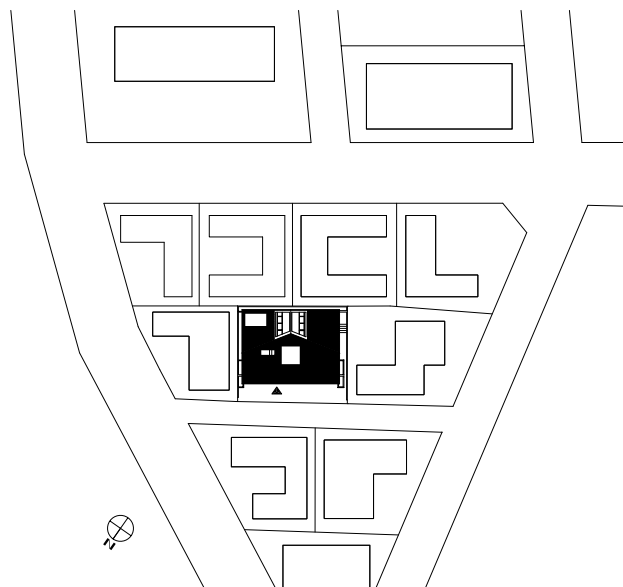
시 공 자 | 강태진

건 축 주 | 강태진

(건축사지 0403호 게재)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152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문화재주변지역
주 요 용 도	다가구주택
대 지 면 적	169.67㎡
건 축 면 적	100.28㎡
연 면 적	447.85㎡
건 폐 율	59.10%
용 적 륜	190.5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 부 마 감	익스펜디드메탈,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
내 부 마 감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 V.P.
설 계 담 당	정수미, 박미영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촬영: C3김종오



배치도

우수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면동STUDIO

WOOMYUN- Studio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OCA 임재용

시 공 자 | 조창환

건 축 주 | 조창환

(건축사지 0404호 계제)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47-5번지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단독주택/ 작업실
건축면적	346㎡
연 면 적	166,29㎡
건 폐 율	48,06%
용 적 륜	78,57%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상 2층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송판무늬노출콘크리트, 베이스 패널, 라인징크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내수합판위 투명락카, 밤라이트
설계담당	PROJECT DESIGNER 김현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사진 : 문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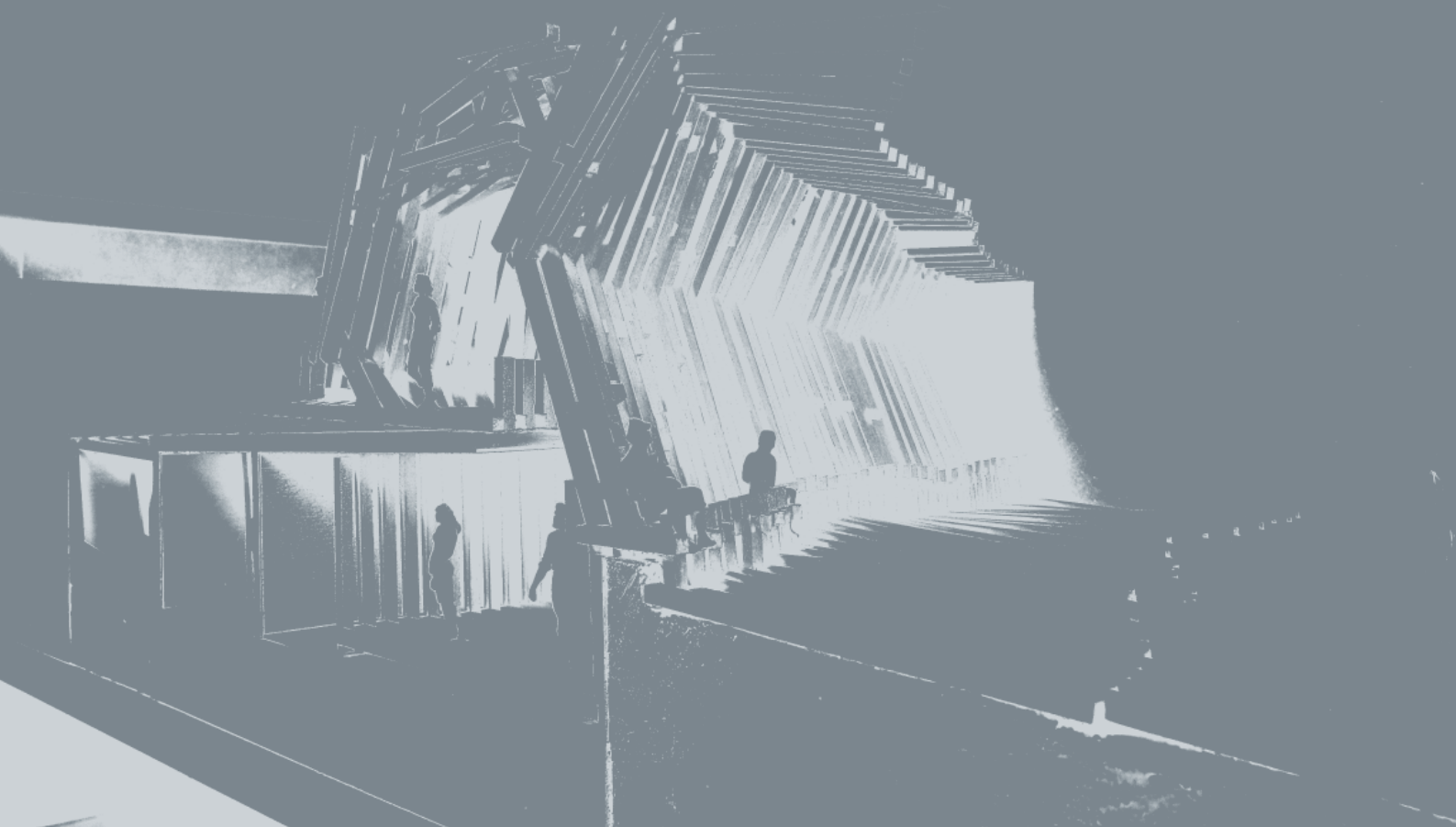
012 4 7

배치도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4

Plankton House | 도심속의 외부공간 |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 |
관악구클린센터+자연순환레마전시관 |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 Re-Garden |
용산 삼각지 주변 화랑가 문화거리 만들기 | 경사지레벨을 통한 도심속 오픈스페이스 재구축 | 난지도 에코-라인 |
경계의 불명확성 | 지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 노을공원 | 생태체계를 도입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
기능의 치환을 통한 생태 공간의 확산 | 온라인 집회시설 | 자연스런 흐름 |
연속된 산책 공간을 통한 낙동강변 활성화 방안 | Where is the Boundary? | 용머리 해안, 하멜 기념관 |
지갈치 시장 재구축 | Nature Connection Person Flowing | 남산 경사도에 따른 수직공원 |
무하유지향과 실 한 오리기 | Recovery of the Urban Life | Urban Landspace Image |
3+4=Nature | Multi-Ground in the City | Equation of the Higher Degree | Hybrid Station



플랑크톤 하우스 Plankto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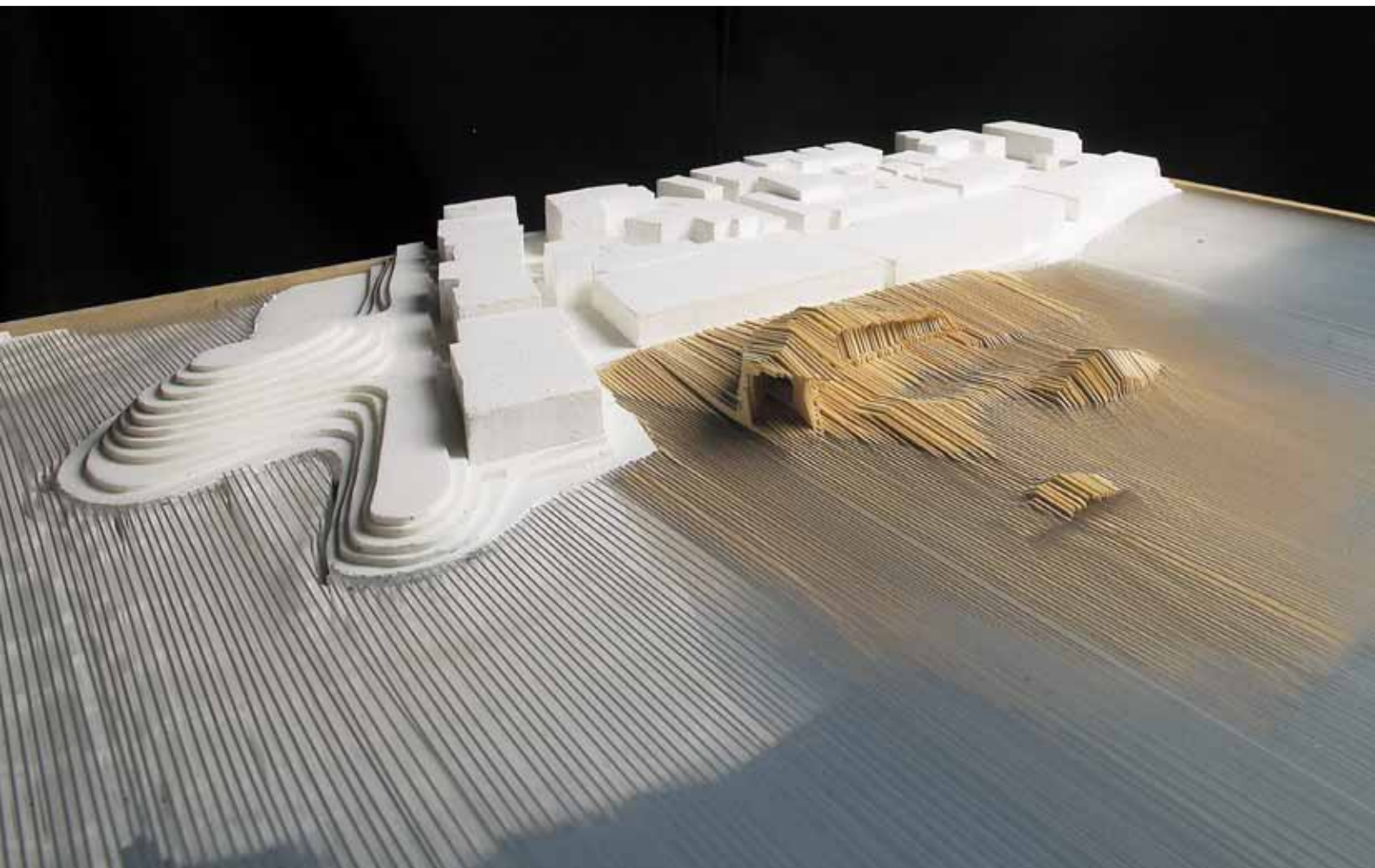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의장 연구실 2학기

생태계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공존 모색

현대의 도시와 생태계의 관계는 단순한 생태계의 복원이 아닌 불가피한 도시의 확장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의 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의 상호보완이 필수적이다. 도시를 떠난 생태계와 생태계를 떠난 도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극단적 단절을 보이는 서해안의 해안선과는 다른 생태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한 인공의 표피를 제안한다.

Nature System : 침식과 범람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조수간만의 차이와 갯벌의 경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에 주목한다. 생태계의 최소단위이자 1차 생산자인 플랑크톤의 증식과 변이의 시스템을 형태구성에 반영한다.

Industrial System : 최소 단위 구성단위의 반복과 증식 복제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시스템과 병행하여 산업시스템으로 대량 생산된 최소 구성단위의 복제와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공간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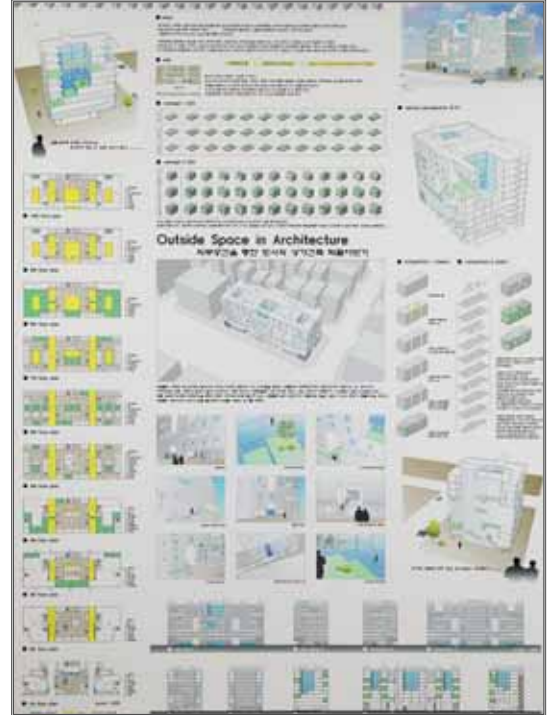


도심속의 외부공간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

박준용 | (주)건축사사무소 우진

외부공간을 통한 도시의 상가건축 되돌아보기

직육면체의 틀 속에서 공간을 비우고 채우며 빼고 더함으로서 외부공간을 만들어낸다. 여기서부터 그곳에는 도시의 일상이 시작된다. 외부공간은 그 건물이 가지는 쓰임에 따라 또는 도시환경이나 주변 건물에 따라 직육면체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외부공간은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독립시키고 프라이버시를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각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면서 건물에 존재하게 된다. 이 장소는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으며, 어제의 사건이 오늘은 부정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이다. 소위 불확정 장소이며 평면이지만 때로는 경사이기도 하고 언덕일 수도 있다. 건물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길, 공원, 마당같은 여러 도시적 요소가 이 안에 있다. 또한 틈이나 사이공간이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다.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

김성원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4학기

이지훈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3학기

임정수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4학기

기존 고가도로 기둥의 비물질화를 통한 Artificial Forest와 자전거 출근자를 위한 복합편의시설

탄천을 지나가는 도시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은 도시에서 탄천을 접하는 시퀀스상의 매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가파른 옹벽이 있으며, 그 위로의 거대한 고가도로의 램프가 시커먼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고가도로를 떠받치기 위한 육중한 기둥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탄천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 공간을 바라보자. 넓은 강 옆으로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뒤로는 도시로 연결되는 산길이 있다. 하늘에는 커다란 천창을 가진 지붕이 있다. 이 천창으로 빛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빗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상을 건축화 하기 위해 Artificial Forest를 제안한다. 고가도로의 하부에 새로운 지붕을 만든다. 이 지붕은 도시와 탄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레벨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관악구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 Animated Urban-Park

황규하 | (주)건축이상 건축사사무소

석재영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현 관악구 클린센터는 남측으로는 신림4동 주거지역과 북측으로는 보라매 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는 주거와 휴게시설이 적절히 조합된 도시의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폭 넓은 도로와 전철고가 등으로 인하여 공원과 주거지역 사이, 도시의 연속성에 단절을 가져와 극도로 고립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인프라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없고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커뮤니티 형성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보라매공원을 환경적(쓰레기 집하장), 물리적(형태적), 심리적(미관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클린센터와 보라매공원과의 물적, 심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공생 관계를 모색하고, 건축행위를 통하여 건축이 사회에 환원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을 계획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인간,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참여프로그램 속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여 도시 인프라 속에 인간과 자연이 느끼는 심리적, 물리적 흐름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Disappearing of Wall & Road

김인선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4

이 시대의 학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 굳게 닫혀 있는 담장은 하늘을 찌르고 학생이 아닌 이에게는 너무나 높기만 하다. 점점 교육의 본질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학생들의 자유성, 개별성은 무시된 채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주고 사이트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초중고가 모여있는 특성을 고려해 연령별 네트워크와 학부모, 주민들이 학교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의 외부로 확장을 고려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공간을 학교경계지역에서 일어나게 해 주므로 외부에서 학교 내부로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본다. 열린 학교에 좀 더 다양한 생동감이 부여되길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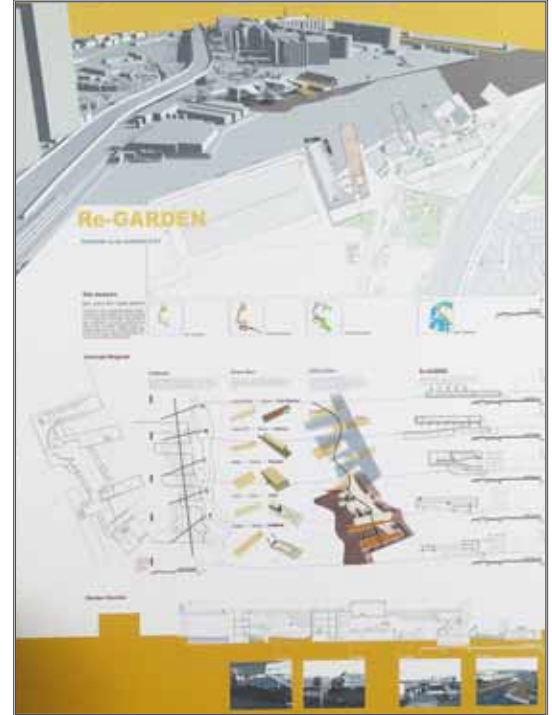
북성부두 수변공간 Re-Garden

최해안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4학기

서윤원 | 인하대학교 건축과 4

이신재 | 인하대학교 건축과 2

대지는 인천의 북성부두 지역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바다의 갯벌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이트로부터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하여 Re-Garden이라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텍스처로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오브제중심의 편협된 과정이었다면 불이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하나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대지의 상황이 기하학적인 도시 매립 라인이 자연의 갯벌라인과 충돌함에 주목하여 기존의 경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 경계는 이벤트 박스(Event Box)를 삽입하여 새로운 경계를 이벤트화하여 이벤트화된 영역 자체가 영역으로서의 경계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프로그램은 Fish Mall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벤트 박스가 어시장, 갤러리, 극장, 공원, 정원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벤트가 자연과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으로서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이벤트를 통해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의 영역 자체가 자연과 도시의 매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성남 고등학교 정보 도서관

SungNam HighSchool Digital Library



배지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75-1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용도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층축면적	1,106.23㎡
구조	철골조
외부마감	로이유리(low-e glass,그린), 페어 강화 간유리
내부마감	바닥/ 고흥석(회색), Access Floor, 테라조판 벽/ 방화석고보드, 방화 망입유리 난간, 계단/ 망입유리 지붕/ 아스팔트 싱글기와, 아스팔트 루핑, 우레 탄 샌드위치 패널(이음매 치오클 마감)
시공	금성 종합 건설 주식회사
감리	양가주망 건축사 사무소
설계담당	임주희, 천민정



1938년에 김석원, 원운수 두 분이 만든 서울 성남 고등학교는 강남에서 유일하게 구(舊) 시흥군 지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였다. 지금은 강남구가 강남으로 대접받지만 과거에는 이 일대가 모두 시흥군이었고 강남이었으며, 안양읍이 그 중심이었다.

설립이념은 설립자 두 분이 평소 이순신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를 존경하여 “병들어 죽지 말고, 나라 위해 일하다 죽자”라는 이념 아래 확고한 애국정신을 교육시켰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울 성남고등학교의 정보도서관에 대한 건축 상담을 시작할 무렵이던 2003년, 설립자의 한사람인 김석원 장군이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과거가 드러나 이래저래 시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김장군은 6.25 전쟁 시 포항전투에서 학도병을 이끌고 방어하여 낙동강 방어전에서 승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군인으로서 인기에 방영된 적이 있던

드라마 ‘아인시대’에서도 김두환과 방어진에 참가한 것이 방영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활약 이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보다. 지금도 교육 이념은 큰 강의 강물같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필자도 ROTC로서 이와 같은 교육이념의 영향을 받아 난중일기(이순신), 징비록(유성룡), 손자병법 등을 읽고 또 읽어 바보소리 듣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였다. 그 중 난중일기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부모님을 걱정하고 효도하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과 늘 활쓰기를 통해 육체를 연마하고, 평소 상공업(전쟁 시 군수산업)을 장려하고 보살펴 만일을 대비하던 이순신 장군의 안목 깊은 전략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설립자의 동상이 있는 곳에 1차로 계획 되었고, 배치도가 나오자 곧 동

상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동상을 이전한다고 역사에서까지 과거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상을 보존함으로써 시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다. 동상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결과이다.

2차 위치는 구 강당 터가 거론되다가 좁아서 현 위치가 검토되었다. 이 자리는 본관과 후관이 있는 가운데로서 샌드위치 형이다. 교사들은 이 위치를 답답하다고 반대가 심했지만 건축가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설득하였다.

90년대 초, 필자는 친척과 조카의 졸업식을 위해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 갔었는데, 이 학교의 여러 교육시설들이 불쾌하다고 편찬을 받았다. 이후 교육시설 개혁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그 후 국회 어린이집



설계(2000년)를 통해 고구려 무덤의 천정 디자인을 참고로 하여 자연광을 이용하는 작품을 시도했다.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담당과 관내 몇 군데 학교를 답사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현 위치는 경사지로 일부 석축이 있는 곳이다. 경사지를 수평으로 밀고 건축물을 앉히는 것이 관례인데, 이러한 토목공사(형질변경)로 전 국토가 자연스러움을 잃고 파괴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스위스 주택 경사지 배치, 홍콩 APT 경사지 배치 참고) 경사지를 살리고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석축을 조연으로 살려 시간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외관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사장이 요구하셨는데, 이 주문이 제일 어려워 피로티로 답답함을 제거하고 다소 경사 지붕을 만들고 지붕에 채광창을 돌출시켰다. 걸치레 없

는 소박한 디자인으로 100년 이상 사용함을 목표로 하였다.

학교는 보통 복도의 연속이다. 그래서 복도 없는 건축을 생각하였고, 단면을 계단 따라 공간을 만들었다. 복도는 학교에서 15~2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은 8~16개의 교실을 복도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권위적 사회 시스템과 건축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경량으로 경쾌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늘 바람으로 품고 있는 건축이다. 그래서 4층 코너의 기둥을 없애고 지붕을 스탠드 형으로 경쾌감과 투명성을 극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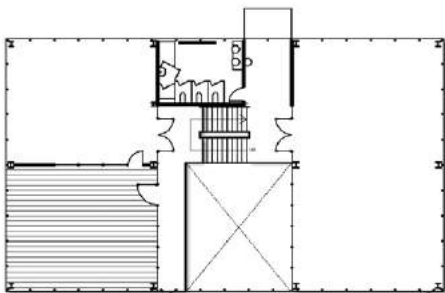
계단실과 엔트런스 홀 그리고 안뜰을 일체로 바닥에서 지붕까지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실내의 공간을 2층에서 4층까지 연장시켰고, 4층 높이의 공간에 둘러 싸여 답답하게만 느껴지기 쉬운 안뜰공간을 생동감 있고 활달한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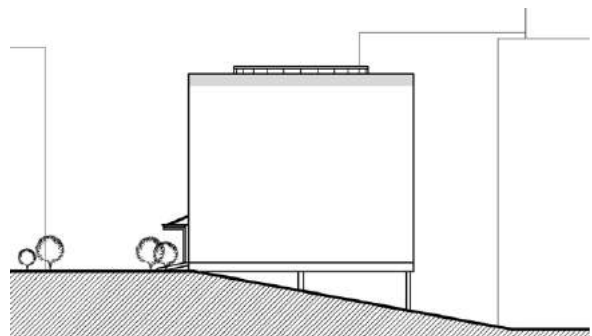
대형 공연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공간감을 도서관 엔트런스 홀에서 제공하고 있다. 실내건축의 각 부분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교감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름이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는 자원 식민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낮에 또는 하절기 피크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으로 조명과 난방을 유지하는 건축은 곧 우리가 자원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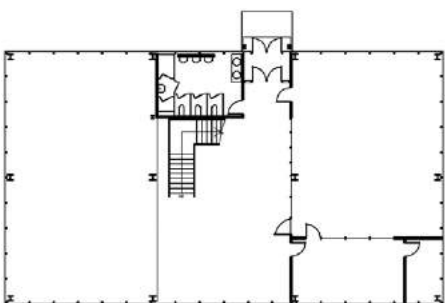
단열유리의 사용으로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쉽사리 더워지지 않음으로서 냉방 시 차가운 기운을 빼앗기지 않고, 겨울에는 겨울 햇살의 따뜻함만이 들어오고, 또 따뜻한 기운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에너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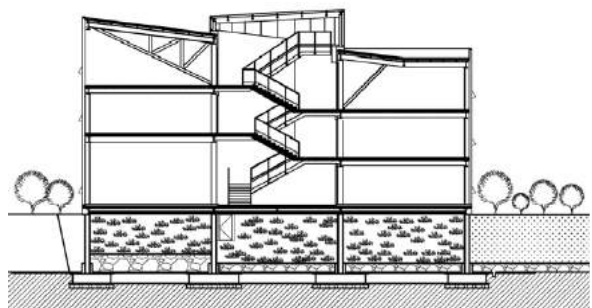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우측면도



2층 평면도



단면도

절약이 된다. 그러나 한 여름철에는 그물막을 덮는 수고가 따른다. 노력 없이 에너지 절약은 없는 것이다.

4각형 위 8각형 상부에 원형을 사용하는 수법을 다소 사용하였다. 고구려 우물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있었다고 한다. 중간에 13일의 달을 살짝 표현하였는데, 흥은동 주택 개구부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13일의 달 모양은 미완을 뜻하고 겸손함을 뜻한다. 꼭 찬 것(15일) 보다는 부족함이 희망적이다.

내부에 사용된 방화석고 보드는 핑크색이다. 이 색을 보면 나는 매우 생기를 느낀다. 계단 벽을 인디안 핑크로 하였고, 대문에 적색, 현관주변에 노란색을 일부 사용하여 생기를 주었다. 안뜰 바닥은 검정색으로 안정감을 주고, 모두 모이면 오방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투명 경영이 학교 목표라 모두 유리가 사용되었으며, 전용면적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단열 유리가 사용되었고 필자의 기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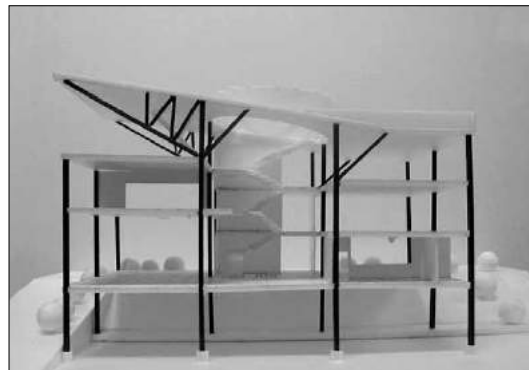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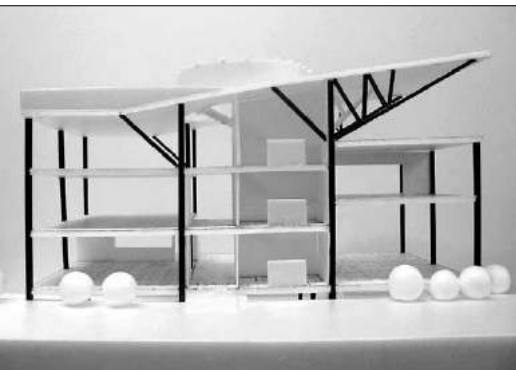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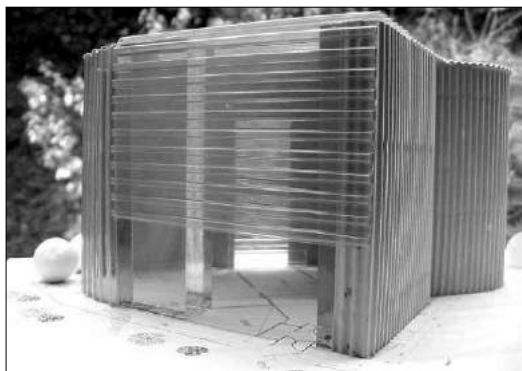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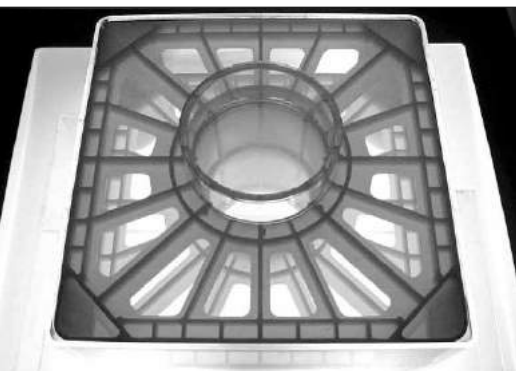
따라 무색유리를 선호한다. 칼라유리는 주변에 반사되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내 공간에는 망입 방화유리가 열린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 계단부위에는 도출 천정으로 처리 되었다. 중간에 음향을 걱정하였으나 양호한 편이다. 외국에 비해 구조를 싸서 안보이게 하는 겉치레 상태에 있는 것을 늘 안쓰럽게 생각한다.

이정도의 일은 후배들이 해야 하는데 필자가 하게 되어 미안할 따름이다. 그래서 지역 교육시설이 진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비가 쏟아져도 현장에 다니는 열정을 담았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정보도서관으로 운영되려면 3~4억원의 장비가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한편에서는 국, 영, 수를 강조하는 고교 경영의 타성적 편리함 때문에 일부를 지습실로 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모든 것은 학교가 결정할 일이다.

설계 후 시공까지 하는 후배들도 있다. 설계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다. 필자는 시공은 못하고 시공감리는 열심히 한다. 시공은 시공자가 스스로 잘하게끔 유도한다. 한 민족은 신이 나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에서 자상하고 성실한 시공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금성종합건설주식회사 김택겸 전무님과 장기석 현장 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야구가 유명한 학교에서 건축도 인정받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5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정'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전원도시의 전통

1898년에 출판된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저서 『진실한 개혁을 위한 평화적 방향』¹⁾은 영국의 집합주택에 관한 새로운 개념의 시작을 예고하였다. 이 저서는 네덜란드 집합주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영국의 사회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네덜란드에서 하워드 이념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네덜란드는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도시 부패를 경험한 영국의 전철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모리스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사회·이상주의(social-utopianism)와 반·기술주의 이념(anti-technology views)을 결합시키려고 했던 모리스와 같은 인물의 부재는 물론 하워드와 같은 인물도 네덜란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워드의 저서가 출간될 즈음 네덜란드에서는 주요 개혁을 위한 노력이 새롭게 제안된 주택법의 가결로 진행되고 있었다.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개량 대상으로서의 도시(city and town)를 수용하면서 네덜란드 도시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네덜란드에서보다 더 열악한 도시상황과 보다 강력한 이상주의적 전통으로 개혁에 대한 노력이 도시에 있어서 구성요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이상주의적 전통이 표명되지는 않아 하워드의 이념을 대부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하워드의 공헌은 현실적 감각에 확실한 전원도시 이념의 추정(推定)과 이런 이념을 지역적 여건에 맞

게 통합시키는 것에 있었다. 영국과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원도시 이념은 궁극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과 충돌하지만 결과적으로 통합하는 하워드의 본질적 이념보다 더 폭넓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원도시 이념은 네덜란드의 도시확장계획과 실제 건설을 위한 계획의 내용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지테의 도시계획 원리가 미학적 고찰로부터 유추되고 하워드의 이념이 사회학적 고찰로부터 유추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²⁾

이런 두 가지 전통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독일-오스트리아 양식은 네덜란드 도시계획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지테의 사상은 모든 전원도시 이념에 반영되고 있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라에서 도시확장의 출발점으로서 자기·충족적 공동사회(self-sufficient communities)의 건설보다는 하워드 이념을 적극 도입하였다.³⁾ 특히 네덜란드는 하워드가 제안한 독립적 규모의 전원도시를 계획하기에 충분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전원도시 이념의 도입

어떠한 방법으로 네덜란드에 전원도시 이념이 알려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건축가 크레르퀴(D. de Clerq)는 1904년 말부터 1905년 초에 걸쳐 공공복지협회에서 그림을 사용하여 강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전원도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네덜란드 건축잡지의 표준이 된 『Architectura』의 1905년 7월호에 소개되었다.⁴⁾

이 잡지는 하워드와 어원이 아닌 프랑스 건축가 레비(G. B. Levy)가 언급되어 있었

다. 여기서는 영국에서 이미 전원도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었다. 1904년에 출간된 레비의 저서 『전원도시』는 이미 하워드의 이념을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하였다.⁵⁾

다음 해인 1905년 8월, 벨기에 리제(Liege)에서 개최된 「주택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영국식 단독주택의 옹호자와 독일식 집합주택 형태의 옹호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 네덜란드인 리델(J. Bruinwold Riedel)은 베를린과 같은 도시가 전원도시 건설로 가가에는 이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⁶⁾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반대 입장은 영국에서보다 대륙에서 더 분명해졌다고 하여도 네덜란드에서 리델이 소개한 하워드 이념은 본래 사회적 비전에 대한 순수성이 무시되어 있었다. 리델은 1905년 영국에 체재하고, 다음 해인 1906년 1월에 출간된 저서 『전원도시』의 서문에 서명하였다. 이 책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다지 논쟁거리는 되지 못하였으나 하워드 마그넷 다이어그램(magnet diagram),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그리고 전원도시 센터 구상을 처음으로 네덜란드어로 소개하였다. 하워드의 독일어판은 1907년이 되어서야 출간될 수 있었다.

리델은 공공복지협회의 총서기로 있는 동안 크레르퀴와 협력하여 지방에서 전원도시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전원도시에 관하여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하였다.⁷⁾

리델은 도제제도(apprentice system), 공개교육(extramural education) 그리고 노동자용 정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1) 1902년 Garden Cities of Tomorrow로 재판(再版)되었다.

2) Weiger Bruin, Ebenezer Howard-Tuinstden van Morgen의 취임연설 Wageninngen(1947)참조.

3) Peter Batchelor, The Origin of the Garden City Concept of Urban Form.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28, No.3(1969), pp.184-200.

4) Belenastelling voor Tuinstden, Architectura, 13, No.30(1905), pp.248-249.

5) Francoise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p.31.

6) J. Bruinwold Riedel, Tuinstden (Utrecht, 1906), p.69.

7) J.P. Fockema Andreae, De Hedendaagsche Stedenbouw (Utrecht, 1912), p.101.

전원도시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용 정원』이라는 테마로 1905년 출간하고, 1906년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전원도시』라는 명칭으로 다시 출간하였다. 그는 노동자용 정원을 ‘예방 수단의 장치’로 묘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⁸⁾

“건강, 변형, 도덕성, 가족주의 그리고 태만과 알코올 중독의 예방”⁹⁾

리델은 ‘노동자에 유익한 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노동자용 정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전원도시 이념에 주목하였다. 리델은 프리츠(Theodor Fritsch) 이론을 만들고 하위드의 획기적인 저서가 출판되기 2년 전에 『미래도시』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이 저서는 리델이 언급하기 이전 네덜란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23년 쓰비어스(L. Zwiers)는 “프리츠의 작업은 하위드의 작업과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이론적 측면에만 해당하는 것이다.¹⁰⁾

하위드와 프리츠의 유토피아적 이념에 대한 대중의 관심 부족은 브라리쿰(Blaricum)과 부섬(Bussum)의 정착지가 지나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프리츠 이론을 과도한 사회민주주의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리델의 저서는 전원도시(garden city)와 전원교외(garden suburb)와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드 이념을 변전시키는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흐네타 공원단지(Agnet Park)와 포트 선라이트(Portsunlight)를 구분 짓는데는 실패하였다.¹¹⁾

리델은 아흐네타 공원단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 도시성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배후지(hinterland)에

있어 도시의 자연적 활동이 존재 가능하다는 그의 믿음은 전원도시에 장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적인 것과 같이 가능한 자연적 운동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의 심장부로부터 외곽으로 그리고 도시의 외곽으로부터 배후지로 확대되어 간다.”¹²⁾

1912년 안드레(Fockema Andreae)는 전원도시를 ‘시골에서의 생활’이라고 묘사하였는데,¹³⁾ 이에 대해 아범 출신의 건축가 페인스트라(G. Feenstra)는 이를 네덜란드적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순수한 전원도시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페인스트라는 전원 빌리지(tuindrop)와 전원도시계획(tuinstadsbebouwing)이라는 언어는 독자적으로 네덜란드 전원도시 이념의 적용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¹⁴⁾

그러나 유토피아적 전통이 결핍되고 건설 가능한 토지의 부족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네덜란드 서부지역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하위드 이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대규모 계획이 적당치 않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도로망과 상수도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었다. 특히 하수도 설비는 평탄한 지반이 요구되어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실제, 저밀도 건설과 1주거 당 녹지면적의 증가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언제라도 건설 가능한 토지공급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토지의 공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였다.

낭만주의

전통적으로 순수예술에서 낭만적 풍경을

볼 때 네덜란드는 영국만큼 뚜렷하지 못하다.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네덜란드의 다양한 옹호는 비교적 낭만적이며 반도시적이었다. 1905년의 시점에서 리델은 거대도시의 결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였다.

“높은 세금, 주택의 높은 가격, 높은 사회보장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존재와 다른 한편으로 백수(gadabout), 여가생활의 감소, 동요(agitation), 신경성, 과로, 냉소 이런 것들은 자연, 단순함 그리고 생활에서 분리된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무엇이 도시의 이상적인 팽창(hypertrophy)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¹⁵⁾

전원도시에 대한 리델의 관점은 하위드가 계획한 것과 같은 공업도시의 대체보다도 더욱 상류계급의 현실 도피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전원생활의 낭만성 또한 전원도시 이념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낭만주의는 모리에에서 사회주의자 폴락(Henri Polak)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적 파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¹⁶⁾

하위드와 마찬가지로 페인스트라는 전원도시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조화시킨 것으로 인식하였다. “공간,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 그리고 빛과 공기”¹⁷⁾

전원도시는 일찍부터 건강을 고려하여 건설되었다. 1912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어린이 건강과 환경 사이의 공존관계를 보여주는 포트 선라이트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다.¹⁸⁾ 전원도시는 건강한 생활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청년조직’과 같은 그룹이 농촌과 신체적 건강에 관하여 동시에 강조하였다.

8) S.J. Fockema, The Garden City Idea in The Netherlands Before 1930, Stedebouw & Volkshuisvesting, 44(1963), pp.95-107을 참조.

9) Riedel, Tuinsteden. 페이지가 없는 첨부물에 게재되어 있다.

10) L. Zwiers, Kleine Woningen (Amsterdam, 1923), p.36

그러나 후디호는 네덜란드 도시계획의 전개에 관한 해설에서 프리츠(Fritsch)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D. Hudig, Stedebouw, p.64를 참조.

11) Fockema Andreae, De Hedendaagsche Stedenbouw, p.101.

12) Riedel, Tuinsteden, p.75.

13) Fockema Andreae, p.102.

14) G. Feenstra, Tuinsteden en Volkshuisvesting in Nederland (Amsterdam, 1920), p.56.

15) Riedel, p.72.

16) Henri Polak, Het Kleine Land en Zijin Groote Schoonheid (Amsterdam, 1941).

17) Feenstra, p.55.

가족주의

하워드의 목표중 하나는 초기 공업지대의 거주지에서 볼 수 있었던 가족주의(paternalism)의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898년 이후 전원도시 이념을 적용한 산업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와 이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세뇌시켰다. 이와 유사한 윤리적 기대는 1922년을 기점으로 네덜란드 전원도시 이념이 최고조에 달하여 주택건설로 이어졌다.

리델은 “명예와 단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집단으로서 부분적으로 전원도시가 언급되어, 이런 접근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리델은 하워드의 모델에서 지적인 상호보완적 형태를 강조하지는 않았다.¹⁸⁾

1912년 안드레는 전원도시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 요소를 관찰하였는데, 여기서 도덕적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유지를 위한 장려, 주기적으로 음주금지 등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필요성 그리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이었다.²⁰⁾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몇 가지 사례로서 기능주의자들은 환경이 신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상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전원도시의 이념을 동반한 가족주의는 새로운 공업지대에 전원도시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헨헤로의 어뜨 란싱크(Het Lansink), 아인트호번의 필립스도르프(Philipsdorp, 그림 1~3)와 로테르담의 헤이플라트(Heylplaat, 그림 4~6) 전원단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900년 이후 석탄공업이 부흥했던 림부르흐(Limburg)의 남부지방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국립 광산지역에서 1911년과

1913년에 각각 설립된 건설조합-온스 림부르흐(Ons Limburg)와 띠인디흐(Tijdig)-은 최초의 발전모델로서 영국의 전원도시 이념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의 원조를 받은 건축가 스튜이트(Jan Stuyt, 1864~1932)는 영국으로 견학 여행을 간 바 있다. 그는 특히 레츠워드(Letchworth) 전원도시에 관심이 많았다. 1914년 그는 기존도시와 계획 중인 광산의 중간지점에 전원도시를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레츠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광산 노동자를 위한 1,000세대와 공무원, 관리인 등을 위한 400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미완성으로 끝난 이 계획은 반도시적이며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적 구조를 보존하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²¹⁾



그림 1. 바젤 + 한라스 + 손호, 필립도르프사 공장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의 전경(아인트호번), 1910~17

필립도르프사는 레고트(Regout), 마르겐과 같은 기업가들이 추진한 노동자를 위한 주택건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으나, 이 단지에는 마르겐과 같은 시종일관된 목적도 헤이플라트(Heylplaat)와 같은 다양한 공유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로지 전원도시 이념만을 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장노동자용 주택단지가 기업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나, 1902년 제정된 주택법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단지로 이사 온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농촌에서 전입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각 세대가 단독주택과 같은 성격을 갖도록 각 세대의 뒤쪽에 개인 정원을 배려한 것에 있다. 이곳에서는 주택의 앞과 뒤라고 하는 이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주택의 앞부분은 공간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는 대신 뒤쪽은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유토피아와 자기·충족성

전원도시형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이상주의적 시도는 네덜란드에서 완전한 실패로 끝날 운명이었다. 아마 이런 요인은 거의 손수할 정도의 현실 도피주의적 성격에 있다고 본다. 에이던(Frederik van Eeden, 1860~1932)은 토로(Thoreau)로부터 자극을 받아 1898년 부섬(Bussum)에 바르덴(Walden)을 설립하였다. 이 조지는 ‘정제된 정신적인 내용’을 갖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²²⁾ 그러나 바르덴은 건축가 윌리엄 바우어(William Bauer)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²³⁾

뷔드벨드(Weijdeveld)는 에이던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²⁴⁾ 에이던의 영향은 잡지 「더 피오니어(De Pionier)」를 통하여 보다 강력해졌다. 이 잡지는 에이던의 편집감독 아래 1901년 설립된 공유자산협회(Communal Property



그림 2. 주거동의 앞부분 전경



그림 3. 주거동의 뒷부분 전경

18) Fockema Andreae, p.99.

19) Riedel, p.7.

20) Fockema Andreae, p.101.

21) Nic.H.M. Tummers, Carboonkolonisatie, Wonen-TA/BK, No.11(June 1974), pp.5-28을 참조.

22) S.J. Fockema, p.97.

23) 벨던(Welden)이나 전원도시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관련된 바우어(Bauer)의 드로잉은 암스테르담의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aukunst에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

24) Frank, Michel de Klerk, p.54.

Ownership Association)의 기관지로서 1902년부터 1912년까지 출간되었다. 이 잡지는 네덜란드 전원도시운동(Dutch Garden City Movement)의 대변자로 공헌하였다.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또 다른 이상주의적 형태는 1905년 헤이그의 외곽에 바젤(De Bazel)이 계획한 국제세계도시(International World Capital)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바젤은 이전보다 더 초연하고 아카데미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었다(본지 9월호 참조). 이 계획은 하워드의 다이어그램(Howard's Diagram)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특히 바로크 시대에 발전된 오래 전통의 중심화와 방사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베를라헤는 1908년 헤이그의 확장계획에서 거의



그림 4. 반테르스, 헤이플라트 전원마을의 전경 (로테르담, 도로호프사), 1915

이 단지는 전원마을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이념이 결핍되어 건설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로테르담시(市) 중심부와 부두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부두시설 근처에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다른 집합주택 계획과 마찬가지로 지대와 어원의 영향을 받았다. 제공된 공유시설의 용도는 대단히 광범위하지만 모든 시설은 회사의 도덕적 가족주의(moralistic paternalism)의 문맥에 포함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1902년 제정된 주택 법의 자금지원에 따라 성공할 수 있



그림 5. 출입구 쪽의 전경

사실에 가깝게 하워드의 다이어그램 이론을 적용하였다(본지 9월호 참조).

전원도시를 구도심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접근-이것은 하워드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은 1920년 이전에 유효하였지만 현재는 전원도시 지역과 구도심지와의 사이 공간을 채우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이라는 이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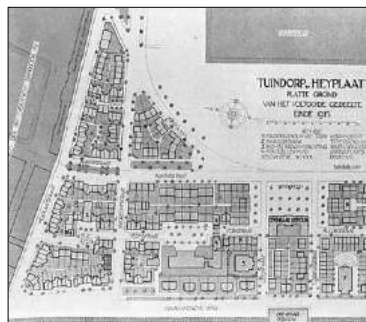


그림 6. 배치도

1) 집회실 2) 상점 3) 대중목욕탕 4) 독신자용 주택 5) 전문학교 6) 소방서 7) 회사장 8) 관리사무소 9) 작업장 10) 분수



그림 7. 베를라헤의 초기계획+ 로스(De Roos)와 오버레이더(Overeinder)의 건축담당+ 모리에,

페르하언과 쿡(건축과 확장계획 담당), 프레이베익 전원마을 단지의 전경(로테르담, 프레이베익 주택건설회사), 1916~19, 1933 1913년 완성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기 충족성(self-standing) 전원마을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21년 모리에에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을 로테르담시 확장계획의 일부로 편입시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초기 베를라헤 기본계획은 모리에의 확장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폐쇄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하학적으로 규칙성을 갖지 못하였다. 당시 건설중인 로테르담의 알 코브형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가격면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시도되었다. 또한, 모리에에는 주거건물의 배치를 남북축 방위로 하였다.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은 하워드의 사회주의 이념과 달리 진행된 것으로 네덜란드 전원도시 이념의 프로그램이 열악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자연(nature)'이라고 하는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낮은 인구밀도의 단독주택과 같은 맥락이다.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결여되고, 또한 유기적 조직성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더 아흐드와 오버바우의 건축가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네덜란드인에게는 이질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하워드에 있어서나 나중의 르 꼬르뷔제에 있어서나 거의 마찬가지이다. 프레이베익(Vreewijk)전원마을(그림7~11)의 설립자는 이 마을을 도시로부터 떨어진 곳에 만들려고 하였지만 1921년까지 이 전원마을의 주임 건축가인 모리에(Granpre Molier)는 로테르담시 확장계획의 일부로 통합할 것을 고려하였다. 당시 모리에에는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을 '전원마을도 아니고 평가도 좋게 받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⁵⁾

전원도시 지역이 도심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수역(水域)에 의한 분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분리는 헤이플라트(Heyplaat) 집합주택과 로테르담시 중심부 사이, 혹은 오스트잔(Oostzaan) 및 니우웬담(Nieuwendam)전원마을과 암스테르담시 중심부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계획의 모든 사례는 지자체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21년 암스테르담시가 와테르그라프스메어(Watergraafsmeer)마을을 합병한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 의해서 거주지 외곽부를 규제한다고 하는 특징적인 경향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바젤과 베를라헤에 의해서 지적된 독립적인 전원도시의 비전은 1929년 암스테르담시 시의회 의원인 미란다(Miranda)가 암스테르담시의 동쪽 어트 호이(Het Gooi)에 전원도시를 설립하기 위해 1906년 리델의 제안은 재생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미란다는 두 지역을 철도로 연결시켜 암스테르담시의 교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²⁶⁾ 리델은 암스테르담시 전원도시위원회 위원의 대다수가 이익을 제거할 것이라

25) Granpre Molier, Een Rondgang in het Eerste Rotterdamsche Tuindorp, Tijdschrift voor Volkshuisvesting, 2, No.6(1921), p.161.
26) S.J. Fockema, p.106.

는 예측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대중의 지지와 토지의 획득에 대한 어려움이였다.²⁷⁾

베를라헤

일반적으로 베를라헤의 작업은 강한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원도시 이론과 대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지만 결코 전원도시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베를라헤는 전원도시 이념을 도시의 확장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00년부터 1905년 사이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을 위한 베를라헤의 작업은 전원도시의 요소가 반복하여 응용되고 있었다. 1915년에 작성된 수정 계획안(본지 9월호, p.76, 그림11 참조)에서는 전원도시의 성격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가지 전원도시 요소는 합리화되었다.²⁸⁾

베를라헤와 암스테르담시 주택국 국장 게플러는 영국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면서 전원도시 이념의 해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베를라헤는 1913년 중반 무렵, 제로테르담시전원마을(Eerste Rotterdamsche Tuindrop)의 책임자로부터 계획을 위탁받았다.²⁹⁾ 그리고 같은 해 11월까지 프레이베익(Vreewijk) 전원마을의 1차 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1916년까지 이 계획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물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확장된 하수구가 설치되었고, 도로로는 약간 굽어서 베를라헤가 자주 사용하는 폐쇄적 접근이 나타나 있었다. 전체적인 폐쇄성과 저밀도는 헤이플라트집합주택을 제외하고는 로테르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당시까지 베를라헤는 어윈의 저서 『도시계획의 실천』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1906년 어윈이 주관하는 워크숍 '가로와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과 레이아웃'에 참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건축가 회의'에서 이미 어윈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³⁰⁾ 1918년 베를라헤는 어윈의 작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주택의 표준화』라는 작은 책자에 어윈의 도면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베를라헤가 암스테르담의 트란스발 근린자구에 계획한 집합주택은 일찍이 함스테드 전원도시에서 시도된 계획을 적용하려 한 사례였다(그림 12~14).

베를라헤가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공감(共感) 그 이상의 지향은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에서 그의 선택이 확실히 나타나 있으며, 얼마 후 민주적 기술사·건축사로 구성된 사회기술 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전원



그림 8. 배치도



그림 9. 전체 전경

1930년 로흐에 의해서 '농가형 주택(farmers housing architecture)'이라는 레테르가 붙여진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은 원칙적으로 커뮤니티, 노동운동,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건축의 이념적 반전이었다. 그러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은 신즉물주의 집합주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높은 상징성이 함유하고 있다는 초월론적 가치의 표현으로서 고려되어 왔다.

도시 지역을 위한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를라헤가 설계경기에서 1등으로 당선된 계획안을 암스테르담시 남부 확장계획안(1915)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베를라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암스텔 하(河)와 페르디난트 볼스트라트 거리의 중간에 위치한 트롬 거리의 남쪽, 57헥타의 부지에 전원도시가 계획되었다. 설계자는 현재 전원도시 운동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와 같은 지역이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디자인의 기초로서 베를라헤는 당시에 실시된 설계경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렘코(Mr. Repko)의 계획안을 자신의 계획에 반영하였다. (생략) 설계자는 렘코로부터 이 계획을 채택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³¹⁾

따라서 베를라헤는 기본적으로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



그림 10. 도로 속에서 본 전경



그림 11. 주택단지내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27) Riedel, p.85.

28) 베를라헤가 1915년 전원도시 운동을 '단번에 거절하였다'라고 언급한 기디온(Giedion)의 시점은 옳지 않다. Space, Time and Architecture, 제5판(Cambridge, Mass., 1967), p.801.

29) Freek Sleeboom, Vreewijk, Project Rotterdam, 미 간행논문(Utrecht, 1972), p.10을 참조. 네덜란드 국내에서는 베를라헤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의 역할에 관하여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것은 1916년에 출판된 Dr. H.P. Berlage en zijn werk에서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Granpre Moliere, Dr. H.P. Berlage en de Stedebouw. H.P. Berlage 21 Februari 1856-12 Augustus 1934를 참조). 이것은 베를라헤 작고를 추모하기 위해서 Bouwkundig Weekblad-Architectura에서 발간된 도서이다. Arbeiderswoningen in Nederland(Rotterdam, 1921)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에 관한 기사 내용에서 베를라헤의 이름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30) Transaction of S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1906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런던에서 개최. (Londen, 1908), p.301.

31) H.P.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p.907.

과 같이 그 자신이 평가한 계획을 나중에 노동자 전원도시 지역³²⁾이라고 언급한 것도 알 수 있다. 베를라헤의 과격성은 도시 계획에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1918년 2월, '암스테르담 주택회의'에서 제안된 표준화에 대한 원리가 이 지역에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베를라헤는 전원도시의 이념이 개방적이고 저밀도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런 전원도시 지역은 도시직물로서 가장 도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베를라헤의 전원도시 이념은 최소한의 녹지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1915년 자신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던 심사위원회에서 "전체계획은 그다지 전원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건설은 주로 폐쇄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이다³³⁾"라고 언급하고 있다.

베를라헤는 게플러의 영향으로 1915년의 확장계획에 렘코의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게플러가 당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에서 베를라헤의 비서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게플러는 어윈의 동료였던 파커(Barry Parker)와 가까운 사이였고³⁴⁾, 파커를 통하여 영국식 전원도시의 실무에 정통하였다. 암스테르담시 교외, 블라우베산트, 니위엔담, 오스트산 그리고 와테르호라프스메이어(본지 12월호에 게재예정)에 지어진 4개의 전원지역은 기본적으로 게플러의 초안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리델은 1906년에 출판된 저서에서 아이 예이(J.)의 북부에 전원지역을 건설하는 것을 제창하였다.

분국화와 비평

전원도시 운동이 지나치게 비판을 받게 된 것은 하위드의 이념이 순수한 형태로 적용되

지 못했기 때문이다. 1912년 초기 안드레는 신체적 분리로 인한 결점(點)이 길어지는 통근시간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 점심식사 시간이 저녁식사 시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³⁵⁾

안드레는 전원도시 이념에 반대 의견을 예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지자체의 시스템에 배경을 두고 언급한 것 같다. 새로운 주거지의 대부분이 서민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방 도시의 독립성과 자존심은 인접한 전원도시의 설립으로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전원도시에 대한 이와 같은 불리한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하고 있던 비판주의에 대한 예비 징후였다. 이미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의 1차 준공 결과, 전원도시 이념은 주거전용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³⁶⁾

이와 같은 주거전용의 형태는 가끔, 사회주의가 대중화되는 분위기에서 부르주아로서 인식되어 거부되곤 하였다. 더 스테일 이념이 네덜란드에서 성장함으로써 전원도시 미학의 낭만적 편견(bias)이 점차 명백해졌다. 게다가 몇몇의 급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에 의해서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거부

는 독일의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였다. 전원도시 이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적이었다. 왜냐하면, 전원도시 이념의 다양한 목표는 독일 정부의 지방거주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농업화(re-agrarianization)는 국가경제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커뮤니티는 급진적인 부류와 보수적인 부류의 생방이 공유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도시라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의 전쟁은 도시의 가치를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1920년대 네덜란드에서 전원도시에 대한 비평은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전되었다. 1928년 다위꺼르는 "전원도시 최대의 결점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커다란 규모에 있다"³⁷⁾고 지적한 바 있다.

몇 년 후 더 아흐드와 오펜바우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가는 "유기적인 지구는 도시 내의 주거지구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시의 주변 어디인가에 위치하여 통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³⁸⁾고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건축가는 지방의 재정착에 대한 독일의 확신이 점차 보수적인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잘 지시하고 있었다.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람메르도르프(Ramerdorf) 지역에서 와이젠호프(Weissenhof, 1927) 집합주택전시회의 반향(反響)으로 건설할 당시의 물리적 형태는 영국의 전원도시 지역을 연상케 하였다.³⁹⁾

전원도시는 확실히 우익(right-wing)정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20년대 초기, 혹은 그 이후 1930년대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로흐헨(J. B. van Loghem/1881-1940)의 초기공감의 전환은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을 농가주택⁴⁰⁾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혹독한 비평을 하였다.

그러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의 성공은 분국화, 즉 정치적 상징주의와 전원도시의 기능적 약점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우드가 설계한 끼프홀 집합주택은 저층과 도로 나열식 주택과 같은 이념이 프레이베익 전원마을과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각 세대가 외부에 정원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다.

32)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45.

33) Jury Rapport, Prijsvraag voor het ontwerpen van een tuinstadwijk, p.14, 민주적 기술자 · 건축가로 구성된 사회기술협회 주최로 1915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34) Creese, The Search for Environment, p.301.

35) Fockema Andreae, De Hedendaasche Stedenbouw, p.103.

36) 단독주택과 전원도시 구상은 본래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 지역은 전원도시 원리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이 건설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중, 예를 들면 기초파일의 높은 가격은 저층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로테르담의 브렘호프(Bloemhof)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네덜란드의 지반이 기초파일을 박지 않으면 2층 이하의 건물밖에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R.Blijstra, Rotterdam, stad in beweging (Amsterdam, 1965), p.19를 참조.

37) J. Duiker and J.G. Wiebenga, De Bouw van het Eengezinshuis, Tijdschrift voor Volkshuisvesting en Stedebouw, 9, No.5(1928), pp.88-94.

38) De 8 en Opbouw, De Organische Woonwijk in Open Bebouwing (Amsterdam, 1932), p.11.

39) Barbara Miller Lan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Cambridge, Mass, 1968), p.211.

40) J. B.van Loghem, Nederlandsche Bouwmeesters: De Kiefthoek te Rotterdam-Architect J.J.P. Oud, De Groene Amsterdammer, 1930년 4월 5일자 내용, p.10.

영향

네덜란드에서 저층 주택(low-rise dwelling)에 대한 선호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전원도시 이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방형 배치계획의 개념, 모든 세대에 전용 외부공간의 설정 가능성, 주택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련성 그리고 주택과 공유시설과의 공존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은 전원도시 이념으로부터 전이된 것이다.

이것은 계획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전원도시의 확장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⁴¹⁾ 이것은 또한 주택의 배치 계획에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구사항이 중요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건축사에게는 반복된 단위로서의 주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시점은 전원도시 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하위드가 희망하는 건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모델(model), 혹은 원형주택(prototype dwelling)이라고 하는 이념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와테르흐라프스 메이어에 있어서 대량생산방식의 경험내지는 베를라헤가 표준화를 옹호하기 위하여 어원의 이념을 도입한 것과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원도시 이념은 듀독의 지휘로 힐버썸(Hilversum) 개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원도시 이념과 신즉물주의 이념이 접속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27년부터 1933년에 걸쳐 푸랑크후르트 주택건설 계획의 감독관이었던 메이(Ernst May)는 1910년 전 후로 어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나의 모든 건설 활동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²⁾

메이가 받은 영향은 네덜란드의 여러 건

축사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스타, 메르켈바하에게 현저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이 두 건축사는 메이가 푸랑크후르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밖의 신즉물주의 건축사로 다위꺼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30년에 「고층건축」의 테마에서 「대규모 전원도시」⁴³⁾를 제안하였다. 또한 1934년에는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에서 로흐의 제출안과 함께, 고층 탑상 집합주택을 제안한 점에서 동등한 위치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본지 2005년 3월호에 게재예정).

더 아우드와 오빠바우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가는 1932년 「개방형 배치계획을 도입한 유기적 주거지구」의 제안에서 이미 네덜란드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전원도시 지구로부터의 영향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니위웬담이라든가 오스트판에 건설된 전원마을은 녹지대, 유흥시설, 상점, 클럽시설 등과 공존하고 완전한 가능성을 갖는 주거지구를 공급하는 노력이 돋보였다.”⁴⁴⁾

플레이베이크 전원마을은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양질로 집단화된 주택과 건물의 성격은 “방위의 정확성, 간결성, 인간적 성격, 섬세함, (생각) 더욱이 개방적 수법에 따른 계획”⁴⁵⁾이라는 이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간적 개방의 준비 단계

개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개념에 대한 전원도시 운동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배치계획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념적 시점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더 스테일의 공간적 개념은

옥외활동, 위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가속감(加速感)이 보다 넓게 퍼져 있는 이념에 원점을 두는 전반적인 조류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심층적으로 공간적 개방개념의 심리적 센스는 제1차세계 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다 확실해졌다고 보여진다. 이는 중세적 가치로부터의 마지막 이탈과 관련이 있다.

네덜란드의 주택법은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공간적 조직이 아니고, 지자체에 의해서 제정되는 수많은 조례가 더욱 개방적인 주거지구의 건설을 향해 실험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있었다. 주거의 내부와 외부와의 인접거리 간격은 인구밀도와 공중위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에 바탕을 두어 지정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암스테르담시(市) 주택심의회의 제안으로 1909년 부지 내 옥외공간에 공공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폐쇄형 주거공간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⁴⁶⁾

건축가의 실험적 개방형 계획에 대한 비평적 영향은 어원의 「과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1903)와 「도시계획과 그 실천」(1909), 이 두 권의 저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도시계획과 그 실천」의 영향이 컸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배치계획안은 1914년 바젤(De Bazel)의 부썸(Bussum) 집합주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의 기본적인 배치계획은 정방형에 가까운 폐쇄형 주택이었지만 주동의 모서리에 세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동의 내·외부 사이에 부분적인 공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햄스테드(Hampstead) 전원교회 계획은 「도시계획과 그 실천」에 게재되었으며 1919년 호른(Horn)계획의 기본이 되었다.⁴⁷⁾

41) 헤이플라트(Heyplaat) 마을의 모회사(母社)에 의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건설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 Korte Beschrijving van het Tuindorp, Heyplaat(Rotterdam 날짜 없음, 1922년으로 추정), p.29.

42) Creese, p.316.

43) J. Duiker, Hoogbouw (Rotterdam, 1930), pp.20-21.

44) De 8 en Opbouw, De Organische Woonwijk in Open Bebouwing, p.11.

45) Ibid., p.3.

46) Amsterdamsche Woningraad, Rapport over de Volkshuisvesting in de Nieuwe Stadte Amsterdam (Amsterdam, 1909), p.41. 이 심의위원회는 J. ter Meulen, D. Hudig, A. Keppler, J.E. van der Pek, H.H. Wollring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Raymond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London, 1909), pp.353-355.

이런 U자형 공간이 개방 중정식 주동(open hofbouw)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형식은 노동자용 주택에 처음으로 적용 되었다고 보여진다.⁴⁸⁾ 개방형에 대한 목표가 남향으로부터 많은 햇볕을 확보하려는데 있다는 것은 그다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형태가 브룩(J.H. van den Broek)이 1932년 로테르담의 부루센란(Vroesenlaan) 집합주택(본지 2005년 3월 호에 게재예정)에 도입한 반개방 형태이자 남향인 주동 형식의 선례가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주택의 앞뒤 성격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한 U자형 주동과 달리 호른(Hoorn) 집합주택의 입구는 어원에게 영향을 준 영국의 대학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입구정원의 사례에서 도입된 것이다. 주택의 뒤뜰은 관리를 받고 있는 앞쪽에 비해 여전히 활용되고 있었다.

베를라헤와 어원의 접촉은 게플러(A.Keppeler)를 제외한 어떠한 네덜란드 전문가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었다. 베를라헤는 1919년 암스테르담의 트란스발 근린지구에서 블록의 한 쪽을 개방하는 형식을 채용하



그림 12. 베를라헤+호라타마+베르스테이흐, 시영집합주택 (암스테르담, 트란스발 근린지구), 1919
베를라헤는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어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어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보다 확실해졌다. 일반적인 전원도시 이념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어원의 이념은 자국인 영국에서 보다 네덜란드에서 더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이 집합주택에서 베를라헤의 계획은 당시 일반화된 가로벽으로 인한 폐쇄형 주동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개방적 주동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원과 마찬가지로 베를라헤도 모서리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서리를 도로의 교차점으로서의 공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였다(그림 12~14 참조). 이 계획에 베르스테이흐(Versteeg)와 호라타마(Gratama)도 참여하였다. 그 결과 어원의 확신이 결여된 잠정적인 시도였다고 여겨진다. 북측이 개방되었고 그리고 이런 형식의 이점으로 활용가능한 대규모 배치계획의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집합주택에서도 바젤의 부숨계획과 같이 모서리의 세대가 생략되었지만 폐쇄적인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모서리에 위치한 두 세대의 벽면이 서로 직각으로 모서리에서 보이드(void) 공간을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벽면은 모서리가 개방되어 있지만 공유정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뒤쪽의 부지로 통과하는 기능을 가졌을 뿐이다. 이 계획의 모든 모서리에 이런 방법이 채용된 것은 아니다. 보이드화된 모서리 공간은 크라이판 거리(Kraaipanstraat)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정면의 공간에 대한 균형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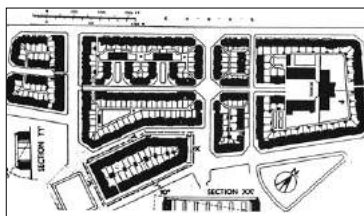


그림 13. 시영집합주택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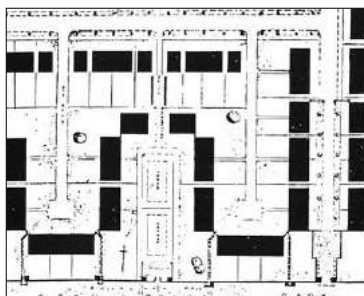


그림 14. 어원, 도시계획의 실현(런던, 1909)

공간의 일부로 보인다.

그 다음해 같은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암스테르담 북부의 꼭꼭 거리(Koekoeksstraat)집합주택의 주동코너 처리는 교차로에서의 미학성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모서리 세대가 비어있지도 않고 뒤쪽 공간으로 유도하는 경사축(傾斜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차부의 4개 블록은 교차부에 면한 4개의 블록 가운데 주동간 연속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어원의 저서 『도시계획과 그 실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동계획이 공간형성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어원의 작업과 이 이론은 영국의 지자체에 기초한 가로나열형 주택의 단조로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개되었다. 베를라헤와 그 밖의 암스테르담 계획가들은 이런 접근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런 사례는 암스테르담 남부에 있는 헨리테 론너 광장(Henriette Ronnerplein, 본지 10월호 참조)과 세레세 슈바르체 광장(Therese Schwartzplein)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강조된 외부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폐쇄형 주동의 외관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공간적 효과는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개방적인 것이다. 나열형 주택의 전체를 조작한다고 하는 새로운 대담성은 지테와 어원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이념의 형성 이전에 이루어진 중요한 준비 단계로 후에 발생한 신즉물주의 건축가의 개방형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

48) Mels J. Meijers, De Architecten en de Woningbouw, Bouwkundig Weekblad, 38, No.11(1917), p.65.

협회소식_kira news

2004년도 제2회 임시 이사회

2004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0월 26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8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 보고의 건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사항

- 제8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 앞으로 우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사들이 참석하고자 한다면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건
-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덕 부회장을 위촉함.
- 협회발전위원회 위원장에 현 부위원장인 강성익 이사를 위촉함.
- 공정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송수구 회장대행을 겸임토록 함.
- 회관지분확정협의회 위원에 송수구 회장대행을 겸임토록 함.
- 제2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폐지대책 정책토론회」 개최경비 :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정책 토론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백만원의 전용을 승인함.
- 「정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경비 : 상정안대로 예산전용을 승인하되 장소는 서울근교로 변경하고, 참석인원수는 위원장과 협의토록 하여 집행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함.
-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경비 : 상정안대로 예산전용을 승인하되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토록 함.

제13회 이사회

2004년도 제13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9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역건축사회설치및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의 건, 2005전국건축사대회 유치신청에 관한 건, 회관지분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지역건축사회설치및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문안 수정에 대해서는 회장대행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2005 회계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돈 이사로 하고, 위원 선임은 회장대행에게 위임함.

▲ 협의사항

- 제1호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유치신청에 관한 건
- 2005전국건축사대회는 개최여부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결사항이므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국건축사대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업근거가 마련된 후 그 근거에 의거 운영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전국건축사대회의 지방 유치 문제는 16개 시도건축사회에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부산건축사회 회장이 나머지 건축사회 회장들의 양해를 구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추진하도록 함.
- 제2호 : 회관지분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협의함.

『제8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

올해로 제 8회를 맞이하는 '한·중·일건축사협의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부산 해운대 소재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과거와 미래(Past and Future of Architects in Asian 3 Countries)」라는 주제로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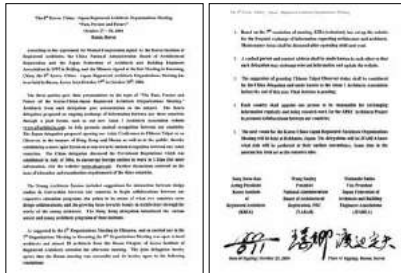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는 우리 협회 대표단으로 송수구 회장대행 등 14인과 부산건축사회 박신욱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중국전국건축사관리위원회 Wang Suqing 회장 등 7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에서는 Watanabe Sadao 부회장 등 8인, 홍콩건축사학회 Wang Wah Sang 부회장 등 2인이 참석하였다.

주요 진행내용으로는, 각 단체가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각각 발표 하였으며, 오후 회의에서는 청년건축사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부산건축사회 소속 김성배 건축사가 'Toward Tomorrow'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 이번 제8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는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및 각국의 건축과 건축사에 관련된 정보의 수시 교환을 위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유하기로 하고, 대만에게 옮겨버린 자격을 부여하지는 제안에 대해 중국대표단이 심사숙고하여 그 결과를 금년 말까지 각 단체에 알리기로 하였으며,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작업을 할 담당자 1인을 지명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대표단 기념사진

한편, 제9회 한 중 일건축사협의회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회 한·중·일 건축사 협의회 합의서

2004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지난 9월 12일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됐던 2004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명단이 발표됐다. 올 시험은 총 6,276명이 출원하고 5,192명이 응시(82.7%의 응시율)한 결과 421명이 합격해 8.1%의 합격률을 보여 지난해(467명 합격, 합격률 9.0%)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합격자는 56명으로 합격 예정자의 13.3%를 차지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합격예정자에 대한 학력, 경력 등 서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126쪽 참조)

서울건축사회,

공공의무화대상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적용모듈 설명회 및 2004하반기 건축사 연수기행

서울시건축사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와 함께 '공공의무화대상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적용모듈 설명회'를 지난 11월17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백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 설명회는 공공기관 주도의 정책적 대체에너지 시장창출 및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제도"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명회였다.

또 지난 11월 6일(토)에는 '건축사 연수기행'을 실시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개심사와 수덕사 등 고찰을 답사하고, 대도벽돌을 견학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공의무화대상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적용모듈 설명회



2004하반기 건축사 연수기행

대전건축사회, 회원친목행사 및 간담회 개최

대전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변산반도 일원과 위도의 사찰건축을 탐방하는 회원친목행사를 개최하였다.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전문가 단체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원친목행사에는 모두 60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변산반도 일원과 위도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사찰건축을 탐방하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특히 금년 행사에는 원로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여 세대간 차이를 떠나 선배회원들이 어우러져 덕담을 나누는 등 선배 후배 간에 끈끈한 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또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약 2시간 30여분 간 대전광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대전시 5개구 건축담당자와 「건축행정 분야 체감서비스」를 높이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축사회에서는 상위법과 근거 없는 구청의 시책 시행에 대한 중지 및 조정 건의와 각 구청별 법 적용 시 유권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이의 일원화를 요청하였다. 반면 대전광역시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차원에서 건축사가 노력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 분기별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기로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회의결과를 대전건축사회와 각 구청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키로 하였다. 또한 별도의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 후 상호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문의 : 대전시건축사회

042-485-2813~7



회원친목행사



간담회

충북건축사회, 삼도건축사회 등반대회 및 2004건축사대회 개최

충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에는 92명의 삼도(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건축사가 모여 회원 간에 탄탄한 친목을 다지고, 정보교류를 나누는 친목등반대회를 가졌다. 올해 4회째로 충청북도건축사회에서 주관한 '삼도건축사회 회원 친목등반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명산을 찾아 제례행사를 가진 뒤 회원간 정보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숲 속의 체육공원'에서 회원 및 직원 101명이 모인 가운데 '2004 충북건축사회 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를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축구, 배구, 족구, 윷놀이 등 체력단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회원친목과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한 행사였다.

문의 : 충북건축사회 043-223-3084



삼도건축사회 등반대회



2004건축사대회

경북건축사회, 회원 단합대회 개최

경북건축사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회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있는 고사리주차장을 출발하여 문경새재 3관문과 2, 1관문을 거치는 도보행사를 가진 뒤 '미래를 준비하는 건축사 특강' 및 '수맥'에 대한 특강행사도 아울러 개최했다. 22일 저녁에는 만찬을 통해 선후배 건축사간의 우의를 다지는 친목행사를 가졌으며, 다음날은 주변관광지인 문경석탄박물관과 하회마을을 관람하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다.

문의 : 경북건축사회 053-744-7800



○○○소장을 ○○○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

지난달 10월 19일 서울 한남동에 국내 최대의 사립 미술관인 '삼성미술관 리움(Leeum)'이 개관됐다.

삼성미술관 리움(Leeum)은 설립자 가족의 성인 'Lee'와 Museum'의 어미인 'um'을 따서 만든 미술관으로서 장장 12년이라는 긴 준비 속에 개관되었는데, 이미 널리 공인받은 예술 작품을 전시할 MUSEUM 1, 2 전시장과 교육 기능 및 기획 전시 기능을 겸하는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가 리움 미술관의 전시장들이다.

이 리움 미술관은 세계적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건축사 마리오 보타(Mario Botta)와 장 누벨(Jean Nouvel),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참여해 더욱 큰 이목을 끌었는데, 각기 다른 세 건축사에 의해 각기 다른 3개의 부분으로 분할되던 서도 지하공간에서 모두 만나고 연결되는, 이른바 세 건축사의 사상과 예술을 한 공간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사설 미술관이다.

첫 전시회로 「뮤즈-움?: 다원성의 교류」전을 내년 4월까지 개최한다.

문의 : 삼성미술관 리움 02-2014-6901



세운상가 4구역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 작품 전시회 개최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는 11월 6일부터 11월 21

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관에서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지명초청 현상설계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현재 추진 중인 종로구 예지동 블록 재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여간 개최된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의 공모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외국 건축사와 국내 건축사가 공동 응모한 총 8개 팀(패널 128점, 모형 16점)의 도시 및 건축설계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 02-399-7407,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02-399-7417



이상건축, 국제 막구조 디자인 공모전 및 학술강연회 개최

이상건축이 주관하고 한국공간셀구조학회가 공동주최하며,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는 '국제 막구조 디자인 공모전 및 학술강연회'가 오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별관에서 개최된다.

금년으로 세 번째인 이 공모전은 전시기간 중 25, 26일 양일간은 중국 상해의 상해현대건축설계집단 본사 로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전으로, 현대 건축물의 신개념지붕구조로 각광

받고 있는 막구조 공법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전이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첨단 설계기법의 연구와 기술향상을 통해 한중간 기술교류와 공법적용사례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신예 건축사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모전과 함께 막구조공법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초빙된 학술강연회도 열릴 예정으로, 연사 중에는 권택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일본의 이시이 카즈오 요코하마 대학 명예교수, 중국 청화대 나향검 교수 등 학계 권위자를 포함하여, 영국의 막구조 응력해석 전문기업 텐시스의 최고경영자 데이빗 웨이크필드 박사, 독일 구조설계업체의 선두주자 솔레이흐 버거만 파트너의 크누트 괴퍼트 박사 등 관련 산업계의 국제적 저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업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의 : 이상건축 02-325-9872,

www.idealimage.com

제9회 건축사진 심사결과 발표



최우수상 작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개최한 '제9회 건축사진전'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123점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 심사결과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17점이 선정됐다.

장석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전년에 비해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질적으로도 향상이

되는 것을 느낀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최창렬씨의 'Concourse' 작품은 France Lyon의 Concourse로 설계자의 그 아가자기한 의도를 아는 듯 공간의 화면구성을 조형미 있고 안정되게 잘 처리하였고, Detail표현도 다른 작품에 비해 매우 월등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금년 출품자 중에는 전국 각 대학 건축과에서 많이 참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일부 학생의 고건축 흑백 사진이 인화과정에서 Contrast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건축사진 촬영에는 필름감도가 낮은(ISO50)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조언했다.

수상작은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http://www.kia.or.kr>

서울건축학교 'ua-sa 2005'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sa'가 다가올 새로운 10년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하여 총체적인 재편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ua)와 함께 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건축대학원(M.Arch)과 건축연구소가 포함된 새로운 체제의 지식공동체를 설립하는데, 기존의 이념이었던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만이 아닌 새로운 실험과 교류를 나누는 장소라는 생각을 넘어 모두 함께 건축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며, 그 새로운 이름을 ua-sa(seoul institute of architecture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로 명명했다.

- studio tutor : sa 건축사들 및 국외 초빙 건축사
- theoretician : 김봉렬, 박선우, 우동선
- ua-sa Friday(2005년 3월~7월/세부일정 협의 중) : Manuel Gausa(스페인), Alejandro Zaera polo(영국), 창용호(중국), Vicente Gallart(스페인), NL Architects(네

덜란드), 이토 도요(일본), Luca Galofaro(이탈리아)

- ua-sa seminar(2005년 6월) : [HYPER-POLIS] next urbanism and architecture in east asia

- ua-sa winter workshop(2005년 1월) : Eduardo Arroyo(스페인) master class

- ua-sa 건축사 전시회(2005년 2월)

- ua-sa summer workshop(2005년 8월) : 통영-문화의 풍경, 여름학교장 김영섭, 코디네이터: 김 현

- 모집 일정

• 원서교부 : 2004년 11월 15~24일

• 원서접수 : 2004년 11월 23~24일

10:00 ~17:00 시

• 전형일자 : 2004년 11월 27일

• 전형내용 : 논술, 구술, 심층면접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연구계획서(이론과정 지원자), 기타 소정양식의 서류(한국예술종합학교 및 sa 홈페이지 참조)

문의 : <http://www.knua.ac.kr>,

<http://www.saschool.or.kr>

2004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국제건축심포지엄'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2차 행사를 가진 '제4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국제건축심포지엄을 비롯해 건축학과 및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 공모전인 부산다운 건축상,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디자인 공모전, 워크숍 건축작품전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국제건축심포지엄에는 성공적인 건축행사를 치르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4곳이 초대되었는데, 일본 구마모토 아토폴리스, 독일 베를린 IBA(국제건축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과 헤이리 아트밸리가 그곳이다.

이들 도시는 건축행사와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도시환경을 바꾸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모여 도시 건축 전체가 관광상품화됨에 따라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문화제는 각 도시가 건축행사를 통해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배우고 이를 통해 건축문화제의 나아가 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초청 강사는 건축행사를 총괄 지휘한 건축전문가와 행정담당자 각 2인씩 초대되고, 이와 함께 8일 12시에는 부산건축대전 심사위원 나스린 세르지(Nasrine Seraji, 코넬대학장) 건축사의 특강도 함께 열렸다.

문의 : 문화제 사무국 051-888-4760 /

www.biacf.org

제 13회 MBC 건축박람회

제13회 MBC 건축박람회가 2005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는 건축자재전, 건축 공구전, 건축정보전, 가구/인테리어전, 건축 리노베이션전, 조경 산업전, DIY 산업전, 원주택 및 펜션 산업전으로 구성된다.

문의 : 02-780-0366~7

제9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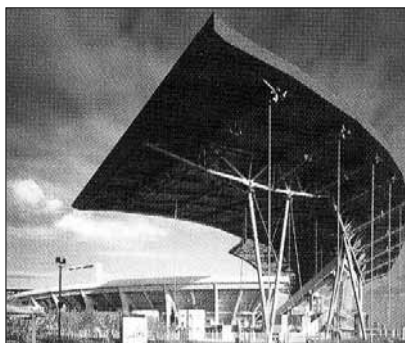
제9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이 발표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에는 사용승인 건축물부문과 계획작품부문에 각 45점과 62점이 출품되어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대상에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수상하였고, 금상의 비주거 부문에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의 'LG화재 금융연구소'가, 주거부문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부천상동 정다운마을 쌍용스윗닷홈'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은상 각 1점씩 2점과 동상 각 2점씩 4점 등 총 9점이 선

정되었다.

아울러 계획작품 부문에는 이봉래(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씨의 'Memories-the overlapping of different time in same space'가 대상을 수상했고, 이 외에도 은상 2점, 동상 3점이 선정되었다.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대상작인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수원의 랜드마크로서 독창성과 공공성이 특별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었고, 계획작품 부문의 'Memories-the overlapping of different time in same space'에 대해서는 "수원 화성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 미래의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건축적 시각을 담아낸 작품으로 역사의 장소성을 부여한 점과 건축적 표현 및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대상 수원월드컵경기장

제1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동시대의 건축문화-아시아 도시 특유의 건축의 정체성(Contemporary Architectural Culture-The Architectural and Urban Identity of the Cities of Asia)'이라는 주제로 '제1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마카오의 마카오대학 내 마카오 문화센터에서 오는 200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간 개최된다.

△행사일정

- FORUM ARCASIA 24

• 11.27 : Fellowship Meeting, 환영만찬
Fellowship dinner

• 11.28 : 아카시아 이사회, 교육위원회, AAM

전사회 개막

• 11.29 : 아카시아 이사회, 교육위원회, 이사회, ACA-11 환영만찬

- ACA-11

• 11.30 : ACA-11 개막식, Session I, II, III, ACA-11 우정의밤, 학생잡보리

• 12.1 : Session IV, V, 건축물탐방, 폐회식

• 12.2 : 건축물 탐방

프랑스 상띠이 워크숍 및 유럽 건축여행

[PARA-ZONE]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건축 워크숍과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프랑스 파리에 인접한 상띠이에서 진행되며, 여행지는 프랑스 및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총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27일 시작해서 2005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그중 절반은 여행 프로그램으로, 절반은 현지에서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의 첫 주제는 [PARA-TERRA]이다.

문의: 02-515-7595(PARA-ZONE 임시 사무국) 사무국장 홍윤식

웹사이트: www.para-zone.com

제22차 UIA 총회 개최

'도시-건축물들의 시장(Cities-Grand Bazaar of Architectures)'이라는 주제로 '제22차 UIA총회'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2005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 세부 행사 주제

• Celebration of the World's Cities

• Architecture And Life in Cities

• Architecture of Cities

•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Facing the Cities

- 주제 논문 접수

• 신청서 및 논문 개요 접수 : '04. 11. 13.

• 논문 발표자 발표 : '05. 1. 14

• 논문 접수 : '05. 4. 15

『건축서비스팀』 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건축서비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 의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건(부내 최다)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 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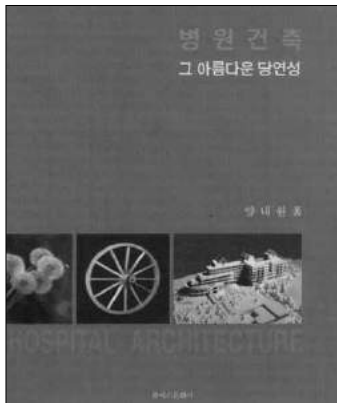
• 문의 :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시간

병원건축-그 아름다운 당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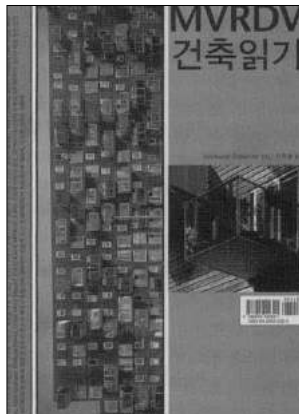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월간 플러스에 연재했던 병원건축 글을 모아 내용을 더 보완하고 추가하여 펴낸 것이다. 이 책은 병원건축의 역사적인 관점과 형태 유형별 관점, 치유환경의 관점, 관념의 관점 그리고 증축과 개축(리모델링)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병원건축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양내원 지음 / 2만4천원 / (주)플러스문화사 펴냄

MVRDV 건축읽기

이 책은 MVRDV(유럽에서 위니 마스, 자코브 반 리지, 나탈리 드 브리스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의 리서치에 바탕을 둔 사고와 기존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애런 베헤트, 바트 루츠마, 이레네 스카버트 등의 각기 다른 철학과 건축 비평, 건축 이론, 역사 등을 통하여 MVRDV가 작업한 건축의 이유와 원인, 데이터 스케이프의 잠재성, MVRDV의 성공비밀 등을 기록하고 있다.



Veronique Patteeuw 편집 / 최하중 역 / 1만4천원 / 시공문화사 펴냄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8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6)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6)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6)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서일대학 학습관

Seoil College Study Center

당선작 / (주)수건축사사무소(이종택) + 호정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이창훈)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3번지와 9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지면적 22,430.10㎡
건축면적 5,287.96㎡
연면적 38,218.48㎡
건폐율 23.58%
용적률 140.1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91.09대
외부마감 화강석 마감
설계팀 김창은, 유광호, 양승숙, 조현진, 신규진,
강남재, 김정기, 이완구, 이승태, 문 석,
어인준

개 념

人 地 相 庭

人 HUMAN

세계화로 향한 국내

명문 사립대학 건설

地 NATURE

자연과의 조화

풍수지리상 용마산의 정기 유입

相 HARMONY

공간의 질서 정립

열림과 닫힘, 긴장과 이완의 반복으로 다이나믹

한 공간 연출

庭 AGORA

교류, 화합의장 조성



건축과 사람의 어울리는 교육의 장 조성

단풍나무 휴게공간 : 학생들의 만남, 휴식, 담소를 위한 공간

느티나무 휴게공간 : 느티나무 숲에 싸인 정적인 휴게공간

탄생마당 : 대학의 모태공간으로 탐구와 진리의 잉태공간

성장의 마당 : 대학의 미래지향과 세계화를 살린 열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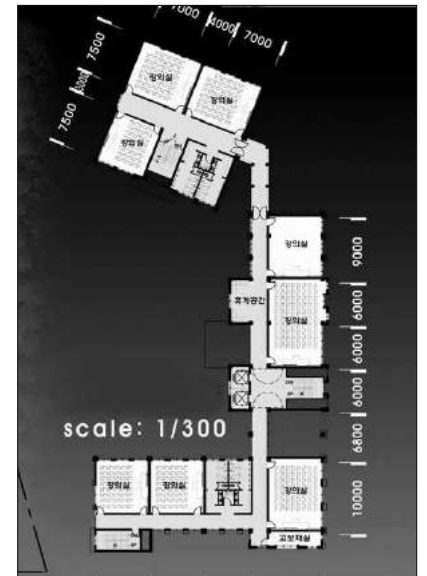
부 진입공간 : 원활한 진입유도 및 쾌적한 보행을 위한 수목터널 조성

교류마당/운동공간 : 다양한 옥외행사 이벤트 등 다목적 잔디마당, 옥외스포츠를 위한 족구장 농구장 설치

상징광장/주진입 : 대학의 주진입공간으로 입구의 인지성 및 상징성 제고, PILOT 공간계획 및 바닥 패턴으로 보행공간 확장, 장식 열주 계획으로 입구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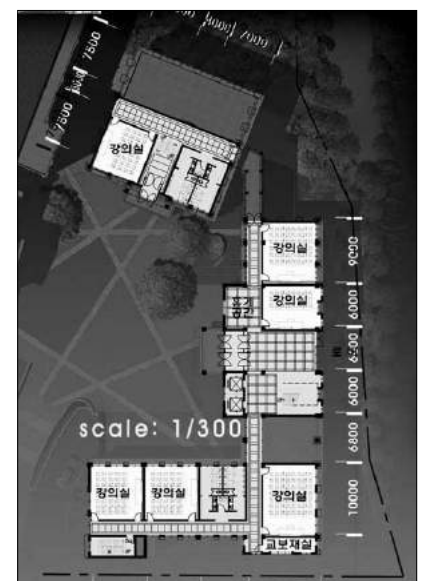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주단면도



1층 평면도

Domus

2004년 7~8월

최근작으로
Renzo Piano
의 스위스 베
른 Zentrum
Paul Klee,
Massimiliano
Fuksas의
이탈리아
Maranello

Ferrari 상품개발센터를 소개하고 있으며,
디자인 부문에서는 Droog Design, Toyo Ito
의 최근 디자인 전시회 소식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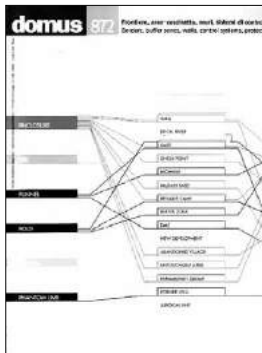
■ 근작소개

Renzo Piano의 스위스 베른 Zentrum Paul Klee

20세기 초의 위대한 예술가 Paul Klee에 대한 열정을 통해 Renzo Piano, 정형외과의사 Maurice Muller, 피아니스트 Maurizio Pollini를 한데 모았다. 베른 중심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구릉지에 들어설 Piano의 거대 구조물 아래 2005년 6월부터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가 벌어질 예정이다. 시내로부터 떨어진 입지는 접근성이 중요한 문화시설로서는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대지 예술로 인식하고 새로운 장소성



Renzo Piano의 스위스 베른 Zentrum Paul Klee



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과였다. 목초지를 포함하는 전체 계획은 Klee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풍경 속에 Piano는 물결 형태의 거대 전시공간을 삽입하였다. 총 3개로 구성된 이 건물군은 전체 철골조의 길이가 4.2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그 곡선은 주위의 자연 지형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4m에서 19m까지 다양한 천정고를 갖는 이들 건물은 Klee의 작품과 글 등 예술품을 위한 전시장으로 사용되며, 세미나와 워크숍 공간도 제공하게 된다. 대지는 Klee의 묘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시각적 연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Massimiliano● Fuksas의 이탈리아
Maranello● Ferrari 상품개발센터

1970년대에 Francois Truffaut와 Alfred Hitchcock의 인터뷰를 읽은 후부터 Fuksas는 건축에 바탕을 둔 건축이 아닌 영화적 원류를 가진 건축에 매혹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건축을 몽타주 작업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Wim Wenders가 잘 사용하는 롱테이크의 시퀀스 쇼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건물은 외부의 풍경을 단편화시키고 이를 조직적으로 편집한다. 2층의 경우 다목적홀의 전면유리 사용은 황색으로 가득 찬 내부로부터 외부 수반으로의 갑작스런 전환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동시에 주위의 도시 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빛, 풍경의 반사, 투명성 그리고 열의 어긋남을 통해 건물 전체



Massimiliano Fuksas의 이탈리아 Maranello Ferrari 상품개발센터

의 형태는 그 굳건한 물질성을 잃게 된다. 밤에는 전혀 다른 경관을 연출하게 되는데,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들 사이로 내부의 모습들이 분화되어 제시되게 된다. 그의 건물은 전체 특성을 잡아내는 단 하나의 시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의 사진으로 설명이 될 수 없고, 부분들을 구성함으로써 전체 구조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점에서 바로 몽타주의 건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 기타

올림픽 개최를 한달 여 앞두고 여전히 미완공된 그리스 아테네의 올림픽 시설 방문기, 사무실 개설 10주년을 맞은 Droog Design의 전시회, 지난해 말 작고한 Mario Merz를 추억하는 Jannis Kounellis, Manuela Gandini의 글, Asymptote Studio의 베니스 비엔날레 설치작품, Hans Ulrich Obrist와 Richard Hamilton의 인터뷰, Toyo Ito의 가구디자인 전시회 소식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view

2004년 9월

최근의 건축 사례로 Klein Dytham의 일본 Kobuchizawa 예식장, Herzog & de Meuron

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본부와 광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연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축 그리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한 에세이를 실고 있다.



■ 근작소개 - Klein Dytham의 일본 Kobuchizawa 예식장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요즘 일본에서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한 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도, 기독교 중에서 선택하므로 특정 종교적 장소에서만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는다. 최근 완공한 Leaf Chapel은 일본의 남쪽 알프스라고 불리는 숲을 배경으로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 눈동자를 연상시키는 구조로서 일부 배면은 땅에 묻히고 정면으로는 숲을 배경으로 작은 반사면들을 마주하고 있다. 동굴과 같이 이룩한 내부는 '눈꺼풀'과 같은 차양이 설치되어있다. 이 차양은 소용돌이치는 잎사귀 모양으로 편칭된 아크릴 판으로 만들어졌으며,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차양이 완전히 닫히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은 편칭 구멍사이로 은은하게 내부로 퍼진다. 움직이는 차양은 성스러운 예식 과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식의 마지막,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걷을 때 이 차양도 함께 올라가면서 자연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연못을 가로질러 야외 연회장으로 나가 연회를 즐기고, 예식장의 차양은 다시 닫혀서 다음 예식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 자연을 이루는 요소들과 건축 Building with the Elements

땅, 바람, 물 그리고 바람은 예부터 심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



Klein Dytham의 일본 Kobuchizawa 예식장

재는 이 네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져 왔다. 이것들은 또한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세계와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건축에서는 이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구조 시스템은 명확하게 바람이나 불의 힘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건물의 외피는 비가 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값비싼 방법이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가능성 있는 시각을 잃게 된다. 그 고유의 속성을 이용하고 잘 다스림으로써 환경적으로 잘 이해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기술과 지역적 전통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건축의 형태와 재료 본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을 통해 얻어진다. Peter Blondell Jones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사람들은 단순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기후와 균형을 잘 이루고 생활한다.'고 언급하였다. 자연은 풍부한 건축문화를 생성시키고, 그러한 결과로 생성된 건축은 공기조화 시스템을 채택한,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일반적 건물들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건물과 자연요소간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경험적 과정 모두를 요구한다. 단일한 외피로 실들을 밀폐하여 감싸는 것보다는 유연성 있게 외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양, 발코니, 브리즈 쉘 레이유 등등이 외피에 복합적 요소를 부여하며, 현관, 아케이드, 온실 등은 외부와의 경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중정이나 아트리움은 실이 깊은 평면에 빛과 공기를 유입시킨다. 한편, 화초는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직사광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Studio Downie의 국립 지리원이나 Edouard Francois의 파리 아파트 계획에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였다.

Herzog & de Meuron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본부와 광장

형태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일견 지역적 컨텍스트에 대하여는 외계물체와 같이 보이는

이 건물은 그러나 물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방식에서 컨텍스트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민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처리는 '만들기'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것에서나, 기존 도시조직에 공명하면서 퍼블릭한 공간을 생성하는 방식에서도 보여진다. 기하학적인 도시의 축에 의해 건물의 배치는 결정되었으며, 진입시의 역동적 효과를 위해 도로에 대하여 약간 비틀어졌다. 건물 전반에 걸쳐서 개념적인 아이디어는 디테일에까지 명확하게 전개된다. 내부와 외부에 걸쳐서 바닥은 동일하게 연속되며, 스프레이 페인트 된 유리 복합판은 이음매 없이 건물을 감싼다. 이러한 기술적 일관성은 천장에도 이어지는데, 금속제의 음향판은 오디오리움의 2층 객석 하부까지 연장된다. Herzog & de Meuron에게 있어서 그들의 건물은 신선하면서도 기능적이고 재미있어야 한다. 그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재치를 보이면서도 근대적인 고유성을 잃지 않는다. 또한 재료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교묘하게 실제와 달라보이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Eduard Francois의 프랑스 파리 아파트

사고는 파리사람들이 발코니에서 화초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Flower Tower라고 불리는 10층짜리 건물로서, 캔틸레버로 나간 발코니가 건물의 외주부를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대나무가 식재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화분 380개가 전층에 걸쳐 설치되었다. 대나무가 적당한 상태로 길러지기 위하여 각각 자동으로 비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이 설치되었다. 이 식재는 시각적 장관을 연출할 뿐 아니라 태양열과 직사일광을



Herzog & de Meuron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본부와 광장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Herzog & de Meuron의 독일 함부르크 콘서트 홀

역사적인 건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는 근대이후 랜드마크적 건물이 별로 없다. 그러나 Herzog & de Meuron의 필하모닉 콤플렉스는 이러한 도시적 풍경을 바꿔 놓을 것이다. 기존의 항만 창고 위에 선루 같은 구조물을 얹은 이 건물은 Hapen City의 서쪽 끝 지점에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텐트와 같은 지붕아래 2,200개 좌석의 오디오리움, 600석 규모의 실내악당, 리허설 룸, 회의실, 미디어 도서관이 위치하며, 200실 규모의 고급 호텔과 아파트먼트가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룬다. 1966년 독일 건축가 Werner Kallmorgen이 설계한 이 벽돌 건물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부에 복합적 프로그램을 태우고 벽돌 구조물 내부에는 주차장을 수용하였다. 그 밖에 Renzo Piano의 이태리, Puglia, Pilgrimage Church, Studio Dawnie의 런던, 국립지리원등이 자연요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0월호

최근 전세계 도시마다 계획되고 있는 박물관 건축의 최신 경향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 타

입별 연구 코너에서는 의료시설의 최근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택부문에서는 Juhani Pallasmaa의 최근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 박물관 근작소개

최근 건축잡지들에서 박물관을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지만, Gehry의 Bilbao 미술관의 성공 이후 수많은 도시들이 저마다의 대표적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전시품들을 위한 이상적인 배경 조성이라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건축 자체의 목소리를 내고 또 박물관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최근의 박물관들을 살펴본다. 최근에 완공된 Polshek Partnership의 뉴욕 Brooklyn Museum, Tadao Ando Architects & Associates의 일본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Gluckman Mayner Architects의 스페인 Museo Picasso Malaga, Studio Daniel Libeskind의 덴마크 코펜하겐 유태인 박물관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병원

Rafael Moneo의 스페인 마드리드 Gregorio Marañon 산부인과 및 소아병원

Moneo는 병원이 "과학의 도움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자 이들이 기대하는 과학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요소들은 건강을 위한 위생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건축 전문가인 Jose Maria de la



덴마크 코펜하겐 유태인 박물관

Mata와 함께 진행한 이 계획은 그리드를 통한 간결하고 논리적인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8개의 중정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으로 모든 병실과 복도를 '소독'하고 있다. 서로 관련이 깊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으나 진찰실과 서비스 공간을 제외한 출입구, 수술실 등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돼온 슈퍼블록의 한쪽 끝을 새로 계획한 것으로 입면은 알루미늄 멀리언들로 분리된 유리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에는 불투명 유리를 중간에 삽입시켜 전체적으로 가벼움과 청결함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중정들은 딱딱하고 공격적인 주위 도시환경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다.

그외의 최근 우수 병원건축의 사례로 Henriquez Partners/IBI Group의 캐나다 뱅쿠버 어린이 병원 Ambulatory Care Building, Domenig/Eisenkock/Gruber의 오스트리아 Graz-West Provincial Hospital, NBBJ의 미국 워싱턴 Bremerton Naval Hospital을 소개하고 있다.

■ 주거

Juhani Pallasmaa Architects의 House of Silence

핀란드의 우거진 자작나무 숲속에 지어진 '침묵의 주택'은 절제된 표현, 총체성, 자연에 대한 동경 등 Pallasmaa와 건축주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담고 있다. 소형 사우나를 비롯한 소규모의 부대시설을 갖고 있는 이 주택은 Pallasmaa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인간적 스케일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다른 최



Rafael Moneo의 스페인 마드리드 Gregorio Marañon 산부인과 및 소아병원

근 주택과 마찬가지로 쪼개진 원형을 취하고 있다. 거친 토양 위를 향해하는, 주위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된 배에 비유되는 이 주택에는 내외부로 다양한 개구부가 계획되었는데, 이를 통해 특정한 장소나 행위에 주목하게 하고 이들을 엮는 '영화적 몽타주'를 연출하고 있다.

Salmela Architects의 Two Black Sheds, Tighe Architecture의 Trahan Residence, Simon Condor Associates의 Vista House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기타

얼마전 세상을 뜬 미국의 건축사 E. Fay Jones에 대한 단상, Libeskind, Hadid, Isozaki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가 고층건물군 계획 소식, 올해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전세계 유명건축물을 베이징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LAB Architecture의 새 복합시설 소개, 건축테크놀로지 코너에서는 건축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새로운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로 Caesar Pelli, Moshe Safdie, Rafael Vinoly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도심 재개발 계획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au

9월호

이 번 호의 특집은 유럽에서의 리노베이션이다. 유럽은 18세기 이후의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리



노베이션 작업이 일찍이 관심을 얻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니콜라스 그림쇼, 장 누벨, 렌조 피아노 등 유럽의 저명한 중견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사들의 최근 리노베이션 작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오래된 구조물에 새로운 조형미가 가미되고, 기존 기능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의 새로움은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건축에서는 맞볼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유럽에서의 리노베이션 : 재생되어진 공간

유럽은 아시아지역에 비해 근대의 도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건물에 대한 창조적 리노베이션 작업이 일찍이 진행되어왔던 곳이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리노베이션은 건축활동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유럽의 리노베이션 작품도 심심치 않게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이번 특집은 최근의 유럽 리노베이션의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건축사들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리노베이션은 기존의 건물을 개조, 보수하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지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기능의 건물로 재탄생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것도 이와 같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기능을 유지한 것들은 니콜라스 그림쇼의 배스 스파(Bath Spa), 미케일 세이의 퍼블리시스 사(社)의 드러그스토어, B-아키텍텐의 극장, 페이펠릭의 바실리카와 성직자의 집, 홉킨스 아키텍츠의 식당 등이다.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의 '배스 스파' 프로젝트는 이름만으로도 온천도시임을 알 수 있는 영국의 '배스(Bath)'의 오래된 스파시설들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이며, 그 대상이 된 것은 '뉴 로얄 배스'로 명명된 신축시설을 포함하여, 크로스 배스, 핫 배스, 핫링크 배스, 7-7A/8배스 스트리트 등 총 5개 건물이다. 서로 인접해 있는 신축건물 뉴 로얄 배스와 핫 배스, 7-7A/8배스 스트리트 건물은 서로 연결되

어 개발되었는데,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간의 층 고차는 스킵 플러워 방식으로 처리 했으며, 각 건물과 연결되는 공간은 명확한 분절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눈에 띄지 않는 다리로 연결되게 하였으며, 다리에서는 시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펼쳐지도록 하였다. 그림소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구 건물과 신축부분의 대비와 조화를 이루었는데, 신축건물인 뉴 로얄 배스는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모'자형의 평면으로 된 핫 배스의 중정에 마련된 탕이다. 1775년 설계된 이 핫 배스의 건물과 최신 설비의 욕탕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리노베이션 건물이 아니면 얻어낼 수 없는 공간의 질일 것이다.

미케일 세이(Michele Sae)의 퍼블리시스(Publicis)사의 드러그스토어(Drugstore)는 70년대 완성된 유리 파사드의 건물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현대의 도시와 호흡할 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이 건물은 이름이 드러그스토어로 되어있지만 각종 잡화점과 레스토랑, 극장이 복합된 상업시설이다. 기존 건물은 1970년에 오스망의 건물이 소실된 후 1972년 재건된 것으로, 콘크리트의 본체에 알루미늄 프레임과 반사유리로 된 커튼월로 외부 마감이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입지는 이 거리의 모뉴먼트가 되는 건물과 인접한 위치이지만 이 건물은 도시와의 대화를 끊고 철저히 내부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세이는 이와같은 건물에 회사의 창조적 실험정신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배스 스파' 프로젝트

도시와의 호흡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면에 유리 와 프레임으로 된 장식을 가미했다. 70년대의 유리커튼월과 현대적 조형어휘가 동일한 소재로 인해 어우러지는 결과를 낳았고, 건물의 내부도 현대적 조형감각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구성 되었다. 그림소의 배스 스파 프로젝트가 기존 건물과의 대비를 통한 조화를 이끌어냈다면 세이의 작업은 유사함 속에서 차이와 새로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그 기능을 새로운 것으로 변환한 것들에서 발견된다.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능을 변경한 것들로는 여학교를 요양 시설로 바꾼 장 누벨의 작업, 19세기 공장을 오디토리움으로 바꾼 렌조 피아노의 작업, 텍스타일 공장을 예술 관련 시설로 바꾼 NOX의 작업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양조장을 오피스로 만든 것, 백화점을 문화복합시설로 바꾼 것, 수도원을 식당으로 바꾼 것 등 기존 시설들을 예상치 못한 것들로 바꾼 예들이 소개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의 변환은 건물의 쇠퇴는 구조물 자체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기능의 수요상실에도 큰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이 부여된 기능들은 현재의 건물 입지에 적절한 기능들의 재 배분이다.

건물이 그 기능성과 연관된 타이포라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능의 변환은 새로운



퍼블리시스(Publicis)사의 드러그스토어(Drugstore)



니콜로 파가니니 음악당

공간적 실험과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니콜로 파가니니 음악당은 에리다니아사의 설탕공장이라는 음악당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형태와 구조를 지닌 건물의 개조를 통해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음악당은 기존 콘서트홀이 지니는 전형적인 외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내부의 공간적 시퀀스도 전혀 새로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음악당의 거대한 바실리카와 같은 내부 공간은 기존의 음악당에서 볼 수 없는 체험을 안겨준다. 이 음악당은 이와 같은 구조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음향적 퀄리티와 리노베이션에 의해 실현된 경쾌한 투명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호의
특집은 '오스
트리아 이스
트'로서 최근
의 오스트리
아의 건축 경
향을 다룬 것
이다. 아돌프
로스로 대표



되는 래디컬한 근대 건축의 전통이 살아있는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의 최근의 활동들을 모아보았다. 한스 홀라인, 코프 힘멜브라우 등 잘 알려진 작가를 비롯하여 1건축사 14명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최근 국내에서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했던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의 래디컬한 작품세계를 맛볼 수 있다.

■특집 : 오스트리아 이스트

특집의 권두 에세이를 작성한 바트 로츠마(Bart Lootsma)는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은 두 가지 양 극단의 성격 중 하나에 가까운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극단의 한가지는 건축의 전통과 연속성을 고수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것 즉 모더니티이다. 어느 나라의 건축사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분류의 틀이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올 수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건축사들처럼 이와 같은 틀이 정말로 잘 맞아 들어가는 곳도 없다는 것이 로츠마의 주장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오스트리아 건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건축을 토지의 정신구조 즉, 각 지방의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와 연결시켜 보는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빈(Wien)의 건축은 가장 좋은 소재였다. 1980년 칼 E 쇼스키(Carl E. Schorske)는 「세기말 비엔나, 정치와 문화」를, 자닉(Janik)과 톨민(Toulmin)은 「비트겐슈타인의 비엔나」를 저술한다. 이들 저작에 힘입어 시간

이 멈추어버린 도시인 빈은 문화도시로서 세계지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학자나 문화에 관심을 둔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일어났다. 한스 홀라인은 이러한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빈의 명건축물들을 자신의 1980년대 작품에 자주 인용했던 그는 하스 하우스(Haas Haus, 1990년)에 그 응축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빈의 구시가지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은 쇼핑몰인 이 건물에서 그는 도시 빈의 역사적 연속성에서부터 현대의 테크놀러지와 상업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였다. 비록 이 건물은 빈의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실패한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하이라이트였다.

로츠마는 오스트리아의 건축사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많은 유럽의 건축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교편을 잡고 싶어 한다고 오스트리아의 건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분명 한스 홀라인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코프 힘멜브라우는 분명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의 건축사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건축에 대한 평가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작품들만 하더라도 몇몇 건축사의 작품을 제외하곤 유럽의 다른 국가 건축사들과 다른 특징을 찾아보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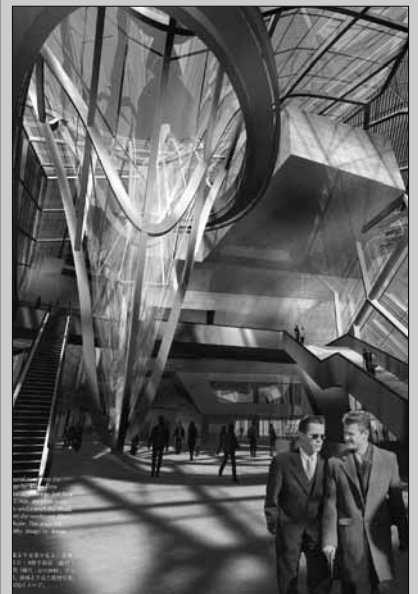
한스 홀라인의 파드츠(Vaduz)의 센트럼 뱅크



BKK-3의 IP.TWO 비즈니스센터

려우며, 개성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다지 돋보이는 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래디컬한 면면들이 드러난다. 과감한 형태표현으로 잘 알려진 코프 힘멜브라우를 논하지 않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들의 소유한 도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각자 과격하고 대범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아돌프 로스가 약 1세기 전 논쟁과 충격을 안겨준 작업을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소개된 작품들은 한스 홀라인의 파드츠(Vaduz)의 센트럼 뱅크, MSP-H 아키텍츠의 마우트하우젠의 비저터 센터, BKK-3의 IP.TWO 비즈니스센터, 코프 힘멜브라우의 BMW Welt - 시간과 지식의 박물관 등이다.



코프 힘멜브라우의 BMW Welt - 시간과 지식의 박물관

신건축

10월호

이번 호에
서는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쇼와시대
건물인 메이
지생명관을
포함한 블록
의 정비 프로



젝트, 아오키 준의 새로운 루이뷔통 매장 건물,
코지마 카즈히로의 '오타 하우스 뮤지엄' 등이
소개되었으며, 실험적 생태건축물인 '지구의 달
갈'도 주목할 만 하다.

메이지아사다생명(明治安田生命)빌딩(마루노 우찌 My Plaza) - 미쯔비시지소설계

1997년 쇼와시대의 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메이지생명관
(1934년 건립)'을 전면보존하는 가운데 약
127m×90m의 도시 블록 전체를 정비하는 프로
젝트이다.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한 시가지 정비
를 진행하기 위해 1999년 도쿄도가 창설한 '중
요문화재 특별형 특정가구제도'의 적용에 의해



메이지아사다생명(明治安田生命)빌딩(마루노우찌 My Plaza) - 미쯔비시지소설계

처음으로 1,500%의 용적률(중축분+기준분)으로
준공된 계획이다. 메이지생명관은 앞으로 1년의
기간을 걸쳐 기능갱신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 중
요문화재의 동태보존이 실천될 예정이다.

고층의 새로운 건물과 메이지생명관과의 사
이 공간은 유리의 천정으로 덮여져 내부공간으
로 만들어졌다. 이 파사주(Passage)와 아트리
움을 계획함으로써 쇼와 30년(1956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가로를 옥내의 가로공간으로 재현하였
으며, 동시에 훼손되어있던 메이지생명관의 동
측 입면을 수복(修復)하게 되었다. 파사주와 아
트리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메이지 생명관이나
황거(皇居)의 숲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마루노
우찌' 지구에 이제껏 없었던 도시경관을 창출하
게 되었다.

중요문화재를 보존하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하구축부가 협조했으며, 지상에 공사 야드도
확보되지 못하는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분제와
메이지생명관과의 디자인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층 사무실의 엘리베이터 출발지점을 3
층으로 하여 8개의 내진(耐震) 코아에 의한 대가
구(大架構)와 6.4m의 기본 스패를 채용하였다.
내진 코아를 늘어놓은 분산코아와 센터코어를
복합한 평면을 통해 고층부는 4,000㎡의 거대한
플레이트이지만 창에 면한 오피스 스페이스가
연속되어 자연채광과 조망이 우수한 워크플레이
스를 실현하였다.

고층부의 외관디자인은 메이지생명관의 외장
석(北木産)에 가까운 이탈리아산 화강석을 메이
지생명관의 자이언트 오더와 비슷한 간격으로



루이뷔통 긴자 나미키점 - 아오키 준

현대적인 디테일을 적용해 배열했으며, 한편 저
층부는 마루노우치의 31m의 현고(軒高)를 계승
해 하나의 블록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임을 강조
하였다.

루이뷔통 긴자 나미키점 - 아오키 준

이제 루이뷔통 스토어의 건축하면 아오키 준,
아오키 준하면 루이뷔통이 떠오를 정도로 루이
뷔통 스토어 건축에서 아오키 준의 작업을 빼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아오키 준이 루이뷔통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1999년 여름 완성한
'루이뷔통 나고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
부터 5년 전이다. 이후 여러 개의 루이뷔통 매장
건물의 설계를 통해 그는 일본 내 루이뷔통의
대표적 건축가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일본
내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근 관심을 끌
고 있는 패션 업계와 건축사와의 밀월의 대표적
인 예인 것이다.

루이뷔통 매장 건축에는 다른 건축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실내공간의 설
계와 외관의 디자인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완
전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루이뷔통을 세계 각국
의 매장에서 동일한 인테리어의 컨셉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건
축사가 고용되어 있다. 인테리어는 그의 몫이 되
며, 매장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전체적인 구조
체와 외관의 디자인을 맡게 되는 것이다.

아오키 준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일련의
루이뷔통과의 작업을 일단락 짓는 것 같다고 하
였다. 그간 루이뷔통 매장의 설계를 하면서 도달
한 결론은 '외장이나 내장을 구조로부터 분리하
여 외장을 독립된 디자인 영역으로 하더라도 그
것은 건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작품과 관련된 에세이의 제목
을 「'절대장식'에 대하여」라고 붙이고 있다. 그
는 분명 루이뷔통의 '모노그램' 이상의 미려한
문양과 현대적 건축 이슈들을 담아낸 외장 디자
인을 완성해 왔다. 또한 그의 루이뷔통 외관은
비록 내부를 손댈 수 없더라도 외부와 내부가
소통하는 적극적인 외부장식이었다.

(번역 / 강상훈)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4년 9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건 축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14	5,014	248	497	46	138	3	12	0	0	5,311	5,661	1,371	1,371	268	529	93	279	24	93	21	105	7	43	5	35	6	54	1,795	2,509	9	9	7,115	8,179	100.0%	100.0%
서울	1,250	1,250	69	138	19	57					1,338	1,445	828	828	171	342	55	165	16	64	9	45	4	24	5	35	4	35	1,092	1,538	8	8	2,438	2,991	34.3%	36.6%
부산	529	529	32	64	4	12					565	605	56	56	16	32	4	12			6	30	2	13					84	143			649	748	9.1%	9.1%
대구	392	392	38	78	12	36	1	4			443	510	26	26	13	26	11	33			4	20							54	105			497	615	7.0%	7.5%
인천	226	226	3	6							229	232	44	44	7	13													51	57			280	289	3.9%	3.5%
광주	192	192	3	6							195	198	33	33	10	20	3	9	4	16			1	6					51	84			246	282	3.5%	3.4%
대전	209	209	18	36	3	9					230	254	25	25	6	12	2	6								1	11		34	54			264	308	3.7%	3.8%
울산	132	132	9	18	5	15	1	4			147	169	14	14	1	2	1	3											16	19			163	188	2.3%	2.3%
경기	637	637	27	53							664	690	218	218	27	48	8	25			1	5							254	296			918	986	12.9%	12.1%
강원	154	154	5	10							159	164	24	24	2	4					1	5							27	33			186	197	2.6%	2.4%
충북	161	161	10	20							171	181	17	17	6	12	1	3	1	4						1	8		26	44			197	225	2.8%	2.8%
충남	147	147	3	6							150	153	29	29			2	6	1	4									32	39			182	192	2.6%	2.3%
전북	183	183	2	4	1	3					186	190	6	6	2	4	4	11	2	5									14	26			200	216	2.8%	2.6%
전남	132	132									132	132	8	8			1	3											9	11			141	143	2.0%	1.7%
경북	256	256	16	32	0	0					272	288	20	20	1	2	1	3											22	25	1	1	295	314	4.1%	3.8%
경남	312	312	12	24	2	6	1	4			327	346	17	17	6	12													23	29			350	375	4.9%	4.6%
제주	102	102	1	2							103	104	6	6															6	6			109	110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69	10	8,179	100.0%	27
서 울	2,988	3	2,991	36.6%	15
부 산	747	1	748	9.1%	8
대 구	615	0	615	7.5%	0
인 천	289	0	289	3.5%	0
광 주	282	0	282	3.4%	0
대 전	307	1	308	3.8%	0
울 산	188	0	188	2.3%	0
경 기	984	2	986	12.1%	2
강 원	197	0	197	2.4%	0
충 북	225	0	225	2.8%	1
충 남	189	3	192	2.3%	0
전 북	216	0	216	2.6%	0
전 남	143	0	143	1.7%	0
경 북	314	0	314	3.8%	1
경 남	375	0	375	4.6%	0
제 주	110	0	11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661	2,509	9	8,179	
비 율	69.2%	30.7%	0.1%	100.0%	
사무소수	5,311	1,795	9	7,115	
비 율	74.6%	25.2%	0.1%	100.0%	